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

| 책임연구원 | 정선옥(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 공동연구원 | 김진숙(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경옥(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산사회복지재단
Asan Foundation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Korea Council of Group home for Children & Youth



2020년 6월 22일 인쇄
2020년 6월 24일 발행

엮은이 |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지은이 | 정선옥 김진숙 최경옥
펴낸이 | 이양현
펴낸곳 | LICERE (리체레)
등 록 | 제 398-251002010000175호(2010년 9월 16일)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진원대로34번길 9,704
전 화 | 010-3210-8563
이메일 | dmind88@naver.com

Copyright Korea Council of Group home for Children & Youth, 202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96599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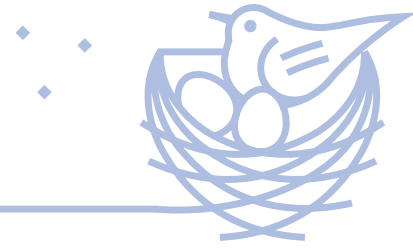
| 책임연구원 | 정선옥(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 공동연구원 | 김진숙(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경옥(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산사회복지재단
Asan Foundation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Korea Council of Group home for Children & 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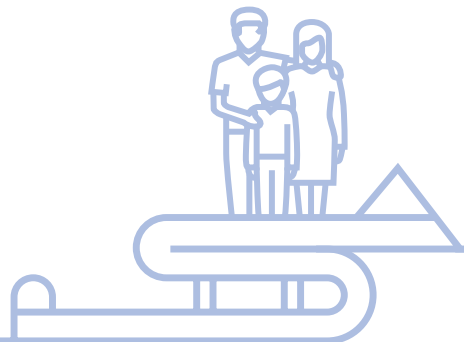


CONTENTS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제2장 문헌검토	13
제1절 국내외 문헌검토	15
제2절 국내외 문헌검토가 주는 함의	37
제3장 그룹홈 종사자 대상 양적연구	39
제4장 관계자 대상 질적연구	73
제1절 그룹홈 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75
제2절 생활인(아동) 대상 개별 면접	99
제5장 원가정 복귀 지원 경험 사례연구	117
제1절 탈북아동 그룹홈 사례	119
제2절 경기도 A 그룹홈 사례	134
제3절 아동양육시설 사례	149
제6장 결론 및 제언	163
참고문헌	170
부록	171
양적연구 설문지	173

표 · 그림 목차

< 표1-1 > 그룹홈 자립준비프로그램 대상자 현황	8
< 표1-2 > 그룹홈의 업무	9
< 표1-3 > 직무 내용의 수행 빈도와 중요도	9
< 표2-1 > 2016년 아동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16
< 표2-2 > 친부모 상황 점검표	18
< 표2-3 > 상담·조사·사정 시 고려사항	19
< 표2-4 > 양육상황 점검표	22
< 표2-5 > 포용국가 아동정책 하의 아동보호업무에서 그룹홈 종사자의 역할	24
< 표2-6 > 재결합 평가도구	26
< 표2-7 >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31
< 표2-8 > 재결합 성공 및 실패 요인	33
< 표2-9 > 재학대 발생 가능성 관련 요인	35
< 표3-1 > 응답자 특성	42
< 표3-2 > 연락 가능한 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는(혹은 연락을 못하는) 이유	48
< 표3-3 > 기타	49
< 표3-4 > 부모 혹은 친인척과의 연락이 가능하게 된 이유	49
< 표3-5 > 기타	50
< 표3-6 >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	51
< 표3-7 > 기타	52
< 표3-8 >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	52
< 표3-9 >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에 대한 평가 이유 (중복응답)	53
< 표3-10 >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54
< 표3-11 >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에 대한 평가 이유 (중복응답)	55
< 표3-12 > 원가정보호 원칙과 관련된 아동복지법 4조 3항의 내용에 대한 생각	56
< 표3-13 >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중요도	57
< 표3-14 > 기타	58
< 표3-15 > 원가정 복귀를 위한 그룹홈의 노력	58
< 표3-16 > 기타	59
< 표3-17 > 가족개입기술 숙달 정도	60
< 표3-18 > 기타	60
< 표3-19 > “대체적으로 아동의 원가정들은(의) ~~하다”	61
< 표3-20 > 원가정 관련 현재 실천 정도	61



표·그림 목차

<표3-21> 원가정 관련 중요성 인식	63
<표3-22>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에 대한 평가	66
<표3-23>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교육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 (중복응답)	66
<표3-24>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중복응답)	67
<표3-25> 원가정 복귀를 위한 그룹홈의 역할	68
<표3-26> 기타	69
<표3-27> 희망하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중복응답)	69
<표5-1> 프로그램 대상별 목표 및 프로그램	150
<표6-1> 원가정 복귀를 촉발하는 요인	165
<표6-2> 원가정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	166
<표6-3> 아동보호업무에서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 종사자의 역할	168

[그림2-1] 시설아동의 원가족복귀 프로그램의 구성	25
[그림3-1] 시설장/실무자 여부	43
[그림3-2] 그룹홈의 유형	43
[그림3-3] 그룹홈의 운영 주체	44
[그림3-4] 그룹홈의 소재지	44
[그림3-5] 그룹홈의 주거형태	44
[그림3-6] 그룹홈 건물의 소유형태	45
[그림3-7] 그룹홈 설립년도	45
[그림3-8] 그룹홈의 국가 보조금 지원 여부	46
[그림3-9] 그룹홈의 종사자 수(운영자(시설장) 제외)	46
[그림3-10] 그룹홈에 사는 아동청소년 수	47
[그림3-11] 연락가능한(실제 연락여부와 관계없이)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는 아동청소년 수	47
[그림3-12] 부모 혹은 친인척과 실제 연락하고 있는(연락 횟수나 방법에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수	48
[그림3-13]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킨 경험유무	50
[그림3-14]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변화 횟수(2017년 이후 현재까지)	54
[그림3-15] UN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56
[그림3-16] 그룹홈의 주요 기능(중복응답)	64
[그림3-17] 2019년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경험	65
[그림3-18]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의 횟수	65
[그림3-19]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의 시간	65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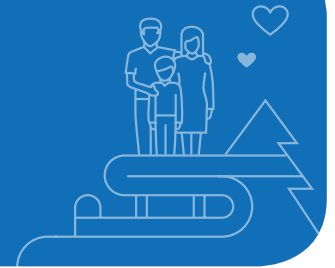
I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UN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9조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협약 당사국은 부모와 분리된 아동에 대해,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쪽이나 양 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황옥경 외, 2015).

또한, 2009년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아동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에서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분리된 경우 가능한 일시적이고 단기간 내에 분리 종결되어 원가정¹⁾ 또는 가까운 친인척에게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안양육 방식을 선택한 후에도 아동이 친부모·가족과 연락이 닿을 수 있어야 하고 가족재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4호 3항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천명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은 보호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그룹홈 차원에서도 시설장과 보육사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라는 중요한 목표를 항상 유지하면서 의무적으로 아동이 원가족과 접촉하는 것을 촉진하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이용교 외, 2014).

1) 본 연구에서는 원가정, 원가족을 혼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원가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예, 원가정 복귀)했으나, 본 연구 참여자 및 본 연구에서 인용한 글에서 사용한 단어를 옮긴 경우, 원가족이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의미가 중요한 경우(예, 원가족 접촉, 원가족 관계 등)에 원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정익중, 2018)에서, 응답자의 71.1%가 친부, 친모, 형제자매, 삼촌 등 친족과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집단생활 스트레스’ 다음으로 부모나 친척에 대한 그리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룹홈 종사자들은 아동이 부모나 친척을 그리워하는 것을 그룹홈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있는 그룹홈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노력이 필요하며,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그룹홈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정익중, 2018), ‘연락하는 부모/친척이 있는 아동’이 ‘연락하는 부모/친척이 없는 아동’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았지만, 우울·불안, 공격성 또한 높았다. 이는 원가정 접촉 및 복귀가 아동 및 원가정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면밀하게 준비·시행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룹홈의 원가정 복귀 지원의 현실은 상당히 취약하다. 일례로 2017년 그룹홈 자립준비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원가족 연계 및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적었는데, 이는 그룹홈에서 원가정 복귀 지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표1-1〉 그룹홈 자립준비프로그램 대상자 현황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726(38.8)	256(13.7)	146(7.8)	170(9.1)	138(7.4)	217(11.6)
직장생활기술	다시집떠나기	원가족 연계 및 복귀	자립체험관	자립가이드	계
32(1.7)	65(3.5)	13(0.7)	88(4.7)	20(1.1)	1,871(100.0)

※ 출처: 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2019). 2017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그룹홈에서 원가정 복귀 지원의 제한적인 상황은 종사자 직무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신혜령 외(2011)는 그룹홈의 업무를 행정 관련 업무와 서비스 관련 업무로 구분한 후, 수행 빈도와 중요도를 중심으로 직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분한 그룹홈의 업무는 〈표1-2〉와 같다.

〈표1-2〉 그룹홈의 업무

직무	세부활동	직무	세부활동
행정관련업무	입퇴소 지원업무	서비스 관련업무	원가족과의 유대
	일반관리 및 사무행정		지역사회네트워크 개발 및 관리
	직원인사관리		자립지원
	자원봉사자관리		위기개입
	후원관리		아동개별지도
	시설홍보		

※ 출처: 신혜령 외(2011)

시설장과 보육사의 직급별로 직무 내용의 수행 빈도와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표1-3〉와 같이 시설장과 보육사 모두, ‘원가족과의 유대’ 업무를 다른 업무에 비해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행 빈도도 다른 업무에 비해 낮았다.

〈표1-3〉 직무 내용의 수행 빈도와 중요도

직무내용		수행빈도		중요도	
		시설장	보육사	시설장	보육사
원가족과의 유대		○	○	○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 및 관리	시설운영위원회운영	○	○	○	○
	지역사회협력	○	○	○	○
	자원개발 및 연계	○	○	●	●
자립지원	일상생활관련	●	●	●	●
	직업관련	●	○	●	●
	주택지원관련	○	○	●	●
	돈관리	●	●	●	●
	가족지원	○	○	●	●
	심리정서적지원	●	○	●	●
	학업 및 진로지도	●	●	●	●
	퇴소 후 사후관리	○	○	●	●
위기개입	학대 신고	○	○	●	●
	학대 위기대응	○	○	●	●
	가출에 대한 개입	○	○	●	●
	자살에 대한 개입	○	○	●	●

아동개별지도	생활지도	●	●	●	●
	학습지도	●	●	●	●
	진로지도(진로탐색)	●	○	●	●
	아동권리 및 안전	●	●	●	●
	아동학대 신고 의무	●	●	●	●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	●	●	●
	시설 가족 행사	●	●	●	●

※ 출처 : 신혜령 외(2011)(수행빈도 혹은 중요도가 4점이상 ●, 4점 미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가족과 연락 가능한 아동이 다수이고 ‘부모/친척 그리움’을 그룹홈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야기하는 상황, 부모가 있는 아동이 보이는 특성들에서 그룹홈의 원가정 복귀 지원 관련 노력이 중시되어야 하지만, 그룹홈의 현실은 <표1-2>와 <표1-3>의 결과에서 보듯 그렇지 못하다.

원가정 복귀는 당위적인 주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분리 사유 등 분리 당시의 상황이 아동 양육에 적절하고 충분한 방향으로 회복되어야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개별 그룹홈 차원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국가가 여러 차원의 접근, 예를 들면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 경제, 고용과 노동, 교육, 심리·정서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이용교 외, 2014). 원가정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에 덧붙여, 개별 그룹홈에서도 원가정 복귀 원칙 하에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홈 종사자 및 아동의 입장에서 원가정 복귀에 관한 인식, 원가정 복귀 경험, 촉진 및 장애 요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그룹홈, 다양한 원가정 배경, 다양한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는 원가정 복귀 지원 노력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가정 복귀 지원에서 그룹홈의 역할을 밝히고 역할 수행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홈 종사자를 대상으로 원가정 복귀에 관한 인식, 원가정 복귀 노력의 실태, 원가정 복귀(혹은 관계) 경험에서 체득한 원가정 복귀 촉진 및 장애 요인, 공동생활가정 원가정 복귀를 위한 과제 등을 파악한다.

둘째, 그룹홈 생활 중이거나, 생활 경험이 있는 생활인(아동)을 대상으로 원가정 접촉 실태, 원가정 복귀 과정에서 경험, 원가정 복귀 이후의 경험, 원가정 복귀가 생활인에게 갖는 의미, 기대를 확인한다.

셋째,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를 제안한다.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원가정 복귀 성공 요인 및 실패 요인 확인



1)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한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성공 및 실패요인을 확인한다.

2) 그룹홈 종사자 대상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를 통한 실태 분석

그룹홈 종사자(시설장, 보육사(실무자)) 대상 실태조사 및 FGI를 통해 원가정 복귀에 관한 인식, 원가정 복귀 노력의 실태, 원가정 복귀 경험에서 체득한 원가정 복귀 촉진 및 장애요인, 그룹홈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과제 등을 파악한다.

3) 그룹홈 보호대상 아동 질적연구를 통한 분석

원가정 복귀 경험이 있는 생활인(아동)에 대한 면접을 통해, 생활인(아동)의 관점에서 원가정 복귀 경험을 이해하며,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4)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

원가정복귀 노력이 경험이 풍부한 그룹홈 2사례와 양육시설 1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원가정 복귀 시 유의할 점을 배운다.

2.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 도출



국내외 문헌 및 종사자 대상 양적·질적연구, 그룹홈 생활인(아동)에 대한 질적연구,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원가정 복귀 지원에서 그룹홈이 담당할 역할을 도출하고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

II

문헌검토

제1절 국내외 문헌검토

제2절 국내외 문헌검토가 주는 함의

제1절 국내외 문헌검토



1. 아동복지법의 원가정복귀 관련 법 조항



2016년 3월22일 아동복지법 개정(2018년 3월23일 시행(제4조 3항))으로 원가정보호가 아동보호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천명되었다.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아동복지법 개정, '16.3.22 / '18.3.23. 시행)

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졌던 보호아동조치 관련된 사항들이 지자체의 책무가 되었다.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표2-1>와 같다.

〈표2-1〉 2016년 아동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조문	내용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제15조 보호조치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계획 수립 시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
15조의 2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이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5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 보호·관리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해야 함(2019년 3월 23일 시행)
15조의 3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매년 점검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양육 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함
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
16조의 2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해야 함
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이 사업정지, 위탁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2016년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원가정 보호의 원칙하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관리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었다. 지자체의 구체적인 책무 이행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7년 7월에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발표하였다(정선욱, 2018). 매뉴얼(보건복지부, 2018)에 따르면 지자체는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서비스연계나 지원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의 원칙하에, 아동과 보호자가 상담이나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

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의 특징 중 하나는 “아동보호서비스에 가족 관련 지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아동보호라고 하면 제15조의 내용에 따라 대리양육,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등 가족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부모를 대체하는 서비스로만 이해해왔다. 그러나,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 강구’라는 표현으로 가족기능 회복을 보호조치에 포함시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아동보호에 대한 이해가 아동과 가족의 분리에 초점이 있었던 방식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아동에게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도 담겨있다.

다음에서는 아동보호업무의 진행 과정과 그 과정에서 원가정 보호(지원),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I. 보호조치 의뢰된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사정

2018년 3월부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고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게 될 때에는 원가정분리전지자체는 사전 상담과 심리검사 등이 의무화되었다. 그에 따라, 시군구 아동복지담당(필요시 읍면동에서 부모 상담시 작성하여 시군구에 보고)은 보호조치 요청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정을 실시한다. 이때 초기 상담지, 친부모상황점검표, 아동상황점검표를 활용한다.

친부모 상황점검표는 〈표2-2〉와 같다. 친부모상황점검표를 활용하여 부모를 상담·조사·사정할 때는 1) 아동학대 여부, 2) 양육 태도 및 의지, 3) 보호 역량(보호 역량 및 보호자(부모)의 강점 파악), 4) 가정 환경(가정의 경제 상황, 결혼상태 등을 파악), 5)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 복귀 시점(부모(보호자)에게 아동의 보호배치 예상 기간 및 가정 복귀 시점에 대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함. 이 때 구상권(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보장 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 6) 부모의 성장배경, 7)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인 연락 안내, 8) 주변 환경(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 사회적 자원 확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등 확인) 등을 확인한다.

〈표2-2〉친부모 상황 점검표

평가항목		평가(V)		특이사항
		예	아니오	
1	부모가 부부관계가 원만하다			
2	부모 중 최소 1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시간이 일정하다 □ 직업: □ 근로시간:			
3	부모의 소득이 인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 소득: 평균 ____ 만원 □ 부채: ____ 만원			
4	부모의 주거가 자가 주택이거나 전·월세이어도 지불능력이 있다 □ 전세보증금: ____ 만원 □ 월세: 만원(보증금: ____ 만원)			
5	부모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 질병명:			
6	부모에게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다 □ 종류: □ 치료여부:			
7	아동학대(신체, 정서, 성적)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 □ 학대 등 내용:			
8	부모는 아동에게 지지적이며, 이해심이 많다 □ 아동에게 공감을 보여준다 □ 아동의 언어적인 신호나 비언어적인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 아동을 돌보는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9	부모가 학교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예) 아동심리, 아동 건강, 진로, 진학 등			
10	부모는 아동의 학교 생활,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 친한 친구: □ 좋아하는 음식; □ 반/번호			
11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 부모 모두 희망 □ 부모 중 1인 희망: 부 모 (희망 보호 형태) □ 시설 □조부모 □ 친인척 등 □ 입양 □ 기타			
12	과거에도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를 한 경험이 있다 □ 언제: (보호 형태) □ 시설 □조부모 □ 친인척 등			
13	부모는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 만남 주기:			
14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 의뢰하기 전, 주양육자가 부모 본인이었다 □ 부모가 아니었을 경우, 주 양육자: □ 사유			

15	부모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16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17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은 ____ 개월이다			
18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부모-친척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다			
19	조부모·친척 등과 과거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과거에 부모를 도와줬던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소견				

한편, 부모의 양육 태도를 확인할 때는 다음 리스트를 활용한다.

양육 태도 점검 리스트
● 부모가 권위적이고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훈육하는가? ● 방임적인 태도로 아동을 양육하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 혼자 의사결정 하도록 하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정서적 성숙도에 맞지 않는 지나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 ● 아동이 실수할 경우 엄하게 훈육하는가? ● 체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예시 : 아동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부모 모두 아동체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 ● 훈육방식에 대하여 부모가 서로 일치 혹은 반대적인 입장인가?

* 출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2018), p54.

이상의 상담·조사·사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3〉상담·조사·사정 시 고려사항

구분	아동	부모(보호자)	환경
1) 우선적 고려사항	● 장애여부 ● 특수육구 ● 가정보호우선조치 대상자 (만2세 미만)	● 아동학대 여부 ● 양육의지 ● 보호역량 ● 가정환경(경제상황 포함) ●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 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	● 대리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가능성 ● 사회적 자원

2) 기타 고려사항	• 보호배치에 대한 인지 및 참여 • 교육적 욕구 • 사회적 욕구 • 문화적 욕구 • 강점 및 취약점	• 부모의 성장배경 • 담당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연락 여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	--	--	---

※ 출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2018), p57.

보호조치계획수립

상담 · 조사 · 사정을 기반으로 보호조치 의뢰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계획을 수립한다. 보호조치계획 양식(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 보호조치계획에 “원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보호조치 계획(양식 예시)〉

※ 동 양식은 업무 편의를 위한 예시이며, 대상 아동 · 가구의 욕구, 지자체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계획 수립 · 보고

I. 개요

1. 보호 대상 아동 현황
 - ※ 아동 상담 및 아동상황 점검표 작성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
 - ※ 아동 욕구에 대해 자세하고 종합적으로 제시
2. 보호자 및 가정환경 현황
 - ※ 보호자 상담 및 친부모 상황 점검표 작성 결과, 기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작성
 - ※ 해당 가구의 위기 상황 분석을 토대로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이유 등 제시
3.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
 - ※ 아동 및 보호자 욕구를 토대로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이유 등 제시

II. 보호 조치 방향

1.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시
 -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 기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제시
 -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보호자의 의견과 보호조치 내용이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제시
2. 보호조치 후 사후관리
 - ※ 보호조치 후 아동의 적응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세부 보호조치 계획 수립 방향, 모니터링 계획 등)
3. 원가정에 대한 지원
 - ※ 아동이 보호조치 된 이후에도 원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이 조기에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III. 기타 특이사항 :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 등

보호조치 결정 후 보호·관리계획 수립 → 보호서비스 제공 → 양육상황 점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개입목표(보호기간 등)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및 원가정 복귀 계획을 포함한 아동보호 ·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된 아동보호 · 관리계획에 따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 상황, 양육환경 및 아동의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파악해야 한다.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 · 관리 계획은 2016년 3월22일 아동복지법 개정 이전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수립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8년에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시범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이 해당 계획을 총괄 수립한다. 아동보호서비스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아동별 보호 · 관리 계획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단,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위탁가정 발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3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수립)

아동별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원가정 복귀를 위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친부모)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친부모 등 보호자에게 보호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구두로 이용 동의를 구해야 한다(보호계획 변동 시에도 동의절차를 밟아야 함).

종결

아동보호에 대한 기존의 종결 방식은 흔히, 만기퇴소, 연장종료로만 구분되었다. 『2017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 아동자립지원단, 2019)에 의하면, 원가정 복귀는 중간보호종료의 사유에 해당되었다. 원가정 복귀, 입양, 가정위탁, 친인척인계, 취업, 무단퇴소, 사망, 군입대, 전원, 기타 등의 10개 항목 중 한 항목으로처리되면서 더 이상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 없는 사유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서는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을 종결 유형에 포함시켰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상의 종결 유형은 1)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 2)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결, 3) 타 시군구로의 전출에 의한 종결로 구분하였다.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 목적 달성 등으로 보호 종결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서 신청서(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종결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읍면동 아동복지담당을 통해 양육상황점검표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경제적, 건강 문제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한다. 양육상황점검표는 <표2-4>와 같다. 양육상황점검을 의뢰받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직접 또는 읍면동 아동복지담당을 통해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동 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아동 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모와 보호대상아동 간의 지속적인 만남 여부 등을 담은 '원가정 복귀 의견서'를 요청하고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원가정 복귀 의견서'를 제출받아 아동의 보호조치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자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주체는 아동의 귀가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복귀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표2-4> 양육상황 점검표

평가항목		평가(V)		특이사항
		예	아니오	
1	가족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싸움 □ 심각한 갈등			
2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 정신장애 □ 신체장애 □ 질환명: _____			
3	부모 중 최소 1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시간이 일정하다 □ 직업: _____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 소득: 평균 ____ 만원 □ 부채: ____ 만원			
5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 중독 □ 약물중독 □ 도박 □ 기타_____			
6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 자가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8	부모는 아동의 시설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주기: _____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보호종결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해서는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총 2회,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해당 아동의 원가정에 대하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사례관리실시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은 읍면동의 사후관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함)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가정 내 적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내용은 아동의 경우 아동의 안전, 현재 및 지속적인 욕구, 부모(보호자)의 경우 양육자의 준수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사회적 자원 등 양육환경도 확인한다.

참고

아동	부모(보호자)	양육 환경
• 아동의 현재 및 지속적인 욕구 • 아동의 안전	• 양육자의 준수 및 개선 여부	• 사회적 자원, 지지
• 사정도구 – 아동 상황 점검표 (서식 17) 활용 가능	• 사정도구 – 친부모 상황 점검표 (서식 16) 활용 가능	• 사정도구 – 양육 상황 점검표 (서식 23)

유의

- 원가정의 안전 및 위험 여부 모니터링
- 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한 이후 안전한가?
 - 아동은 원가정 복귀 후 부모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 ▶ 보호 종결 후 1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 연장
 - ▶ 모니터링 시 부모 및 아동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 출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2018), p79.

3.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



2019년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아동보호업무는 아동보호전담요원(가칭)이 대부분을 수행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하의 아동보호업무에서 그룹홈 종사자가 담당하는 역할만을 정리하면 <표2-5>와 같다.

이러한 그룹홈의 역할을 원가정 복귀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그룹홈은 아동별로 수립된 개별 보호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된 원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에 따라 부모와 보호대상아동 간의 지속적인 만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담은 '원가정 복귀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표2-5> 포용국가 아동정책 하의 아동보호업무에서 그룹홈 종사자의 역할

일상생활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보호조치 의뢰된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사정	명시적 역할 없음
보호조치 계획 수립	명시적 역할 없음
보호조치 결정 후 보호관리계획수립	명시적 역할 없음
보호서비스 제공	● 아동별 개별 보호관리계획에 따라 보호서비스 제공. ● 보호관리계획에 포함된 원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에 따라 그룹홈의 역할이 부과될 것임.
양육상황 점검	● 양육상황에 대한 점검에 응해야함. ● 보호관리계획에 따라 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함. ● 원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에 따른 그룹홈의 역할 이행 정도를 점검받을 수 있음.
종결	●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아동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를 제출. ●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이 부모와 보호대상아동 간의 지속적인 만남 여부 등을 담은 '원가정 복귀 의견서'를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함.

4. 원가정 복귀 관련 기존 프로그램(국내)



1) Ready? Action! 프로그램 중 보호아동의 원가족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신혜령·정술(2011)이 개발한 양육시설용 원가족복귀 프로그램은 다음 [그림2-1]과 같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이다. 첫째, 입소 시부터 아동들이 원가족과의 자립지원계획을 통해 아동이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즉, 분리와 동시에 복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원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가족이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 아동을 양육 보호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개선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들을 연계하여 원가족이 자립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신혜령·정술, 2011).

신혜령 외(2011)가 제안한 공동생활가정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원가족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보호아동의 원가족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참고하여 그룹홈에서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림2-1] 시설아동의 원가족복귀 프로그램의 구성

2) 굿네이버스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굿네이버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에게 아동의 가족재결합 과정을 지원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원가정복귀가 적합한지 평가하는 도구가 부재하다는 현실에 기반하여, 가족재결합을 준비하고 재결합여부를 평가하는 평가도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유서구 · 이순기 · 정해린, 2019).

우선, 가족재결합 평가도구는 아동용, 양육자용, 실무자용 3가지로 구성되었고 각 평가도구는 4~5가지 평가영역을 갖고 있다. 평가도구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평가도구는 가족재결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병행 적용(최소 재결합 기대시점으로부터 8주 이상 확보하여 재결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가도구들을 적절히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유서구 · 정해린, 2019). 아동, 재결합 후 주양육자, 재결합을 지원하는 실무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 필요시 보호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는 종사자)는 이 평가도구를 사용(유서구 · 정해린, 2019)하여 재결합여부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진행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주관식 질문도 있다. 척도형 평가도구 모두 평균 4점 이상이어야 재결합 과정을 계속하는 안전한 기준으로 판단한다(유서구 · 정해린, 2019). 핵심문항과 핵심결정문항은 4점 이상으로 충족이 되고 다른 문항들의 평균이 4점보다 낮은 경우, 팀 접근이나 슈퍼비전을 통해 재결합 과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유서구 · 정해린, 2019). 핵심문항에 대한 응답이 부정적인 경우 재결합과정을 보수적으로 재검토한다(유서구 · 정해린, 2019).

〈표2-6〉재결합 평가도구

영역		문항
아동용 가족재결합 평가도구	재결합에 대한 아동의 인식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다(핵심 문항)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 내가 커 가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재결합에 대한 아동의 준비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를 스스로 보호할 방법을 알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선생님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도움을 요청할 기관 : _____) (선생님 이름과 연락처 : _____)
		가족과 함께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주관식) 지난 6개월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가족과의 재결합을 준비하며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래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주관식) 본인이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언제쯤 돌아가고 싶은가요? _____

아동용 가족재결합 평가도구	결합할 원가족에 대한 아동의 평가	가족 모두가 나와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
		가족 모두가 나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릴 사람은 없다(핵심 문항)
		가족 중에 나를 안전하게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주관식) 가족원들과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염려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빈 칸에 적어주세요. _____
		주관식) 가족원 중에서 본인과 관계가 가장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_____
		주관식) 가족원 중에서 함께 살게 되면 가장 불편하고 염려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_____
	결합할 가정 환경에 대한 아동의 평가	가족/가정 내에 폭력이나 방임의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한다(핵심 문항)
		가족/가정 내에 심리/정서적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가정은 경제적 상황이 좋은 편이다
		가족/가정 내 가족들끼리 관계가 좋다
		가족/가정 내에 나를 힘들게 할 걱정거리가 거의 없다
		가족/가정의 주거환경은 내가 함께 지내기에 편하다고 생각한다
		주관식)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염려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해당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주관식)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본인의 안전이나 생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과 그 점을 함께 얘기해보고 아래에 적어주세요. _____
	아동의 문제해결 능력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가족들과 잘 지내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
		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예: 가족, 친구, 선생님, 기관의 서비스 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잘 활용할 줄 안다
		주관식) 도움이 필요할 때 본인이 도움을 얻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관식) 가족들과 잘 지내기 위해 생각한 방법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관식)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원과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양육자용 가족재결합 평가도구	재결합에 대한 주양육자의 인식	아동과 함께 사는 것은 나와 가족 모두(분리보호의 이유와 관련된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가 원하는 일이다(핵심문항)
		아동과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나와 가족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아동과 함께 사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아동과 함께 같이 살게 되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아동과 함께 같이 살게 되면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질 것 같다
	재결합에 대한 주양육자의 준비도	나와 가족들은 아동과 잘 지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준비해왔다
		함께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나와 가족들이 잘 알고 있다
		함께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선생님이나 기관, 서비스를 잘 알고 있다 (도움을 요청할 기관: _____) (선생님 이름과 연락처: _____)
		아동과 함께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주관식) 지난 6개월간 응답자와 가족원들이 재결합을 준비하며 참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내용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가족기능과 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평가	현재 우리 가족/가정 내(분리보호의 이유와 관련된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에 폭력이나 방임의 위험성이 없다(핵심문항)
		현재 우리 가족/가정 내에 심리/정서적 스트레스가 없다
		현재 우리 가족/가정은 경제적 상황이 좋은 편이다
		현재 우리 가족/가정은 가족들끼리 관계가 좋다
		현재 우리 가족/가정 내에 아동 양육을 힘들게 하는 걱정거리가 없다
		주관식) 현재 가족기능과 가정환경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염려사항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주양육자의 양육역량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나는 아이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아이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한다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아이가 나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위협적이지 않게 차분히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주관식) 아동을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염려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실무자용 가족재결합 평가도구	아동에 대한 실무자의 평가	아동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아동은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다
		아동에게 염려되는 문제행동이 없다
		아동은 원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
		아동은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핵심문항)
		아동은 재결합을 위해 필요한 준비와 활동을 하고 있다(재결합지원 프로그램 참여)
		주관식) 지난 6개월 간 아동과 가족원들이 재결합을 준비하며 참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내용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주양육자에 대한 실무자의 평가	주양육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주양육자는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다
		주양육자에게 음주 또는 약물 문제가 없다
		주양육자와 아동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
		주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충분하다
		주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할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주양육자는 아동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핵심문항)
	가족기능과 가정환경에 대한 실무자의 평가	주양육자는 재결합을 위해 필요한 준비와 활동을 하고 있다(재결합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주관식) 재결합 과정이나 결정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주양육자나 보호자와 관련된 경험이나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아래에 적어주세요.. _____
		주양육자와 관련하여, 실무자가 가진 염려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결합할) 가정의 주거호나경은 아동을 양육하기에 안전하다
		(결합할) 가정 내에 폭력이나 방임의 위험성이 없다(핵심문항)
		(결합할) 가정 내에 심리/정서적 스트레스가 없다
		(결합할)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결합할) 가정은 가족들끼리 관계가 좋다
		(결합할) 가정 내에 아동 양육을 힘들게 할 걱정거리가 거의 없다
		주관식) 가족기능 및 가정 환경 관련하여, 실무자가 가진 염려사항이 있으면 아래 빈 칸에 해당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실무자용 가족재결합 평가도구	재학대 위험성과 대처능력에 대한 실무자의 평가	기존 가해 보호자(양육자)에 의한 학대나 방임 가능성이 낮다(핵심문항)
		기존 비가해 보호자(양육자)를 포함하여 가족원에 의한 학대나 방임 가능성이 낮다(핵심문항)
		분리보호의 주원인이었던 위험요인이 감소 또는 해소되었다
		가족들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방법을 알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아동과 가족이 도움을 요청할 선생님, 기관, 서비스를 잘 알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아동과 가족이 적극적으로 도움(신고 등)을 요청할 능력이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아동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지지체계나 자원(기관, 학교, 친인척, 이웃, 종교단체 등)이 있다
		주관식) 재학대 위험성과 관련하여, 실무자가 가진 염려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재결합 관련 실무자의 총괄평가	아동은 재결합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핵심문항)
		아동은 재결합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주양육자(가족원)는 재결합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핵심문항)
		주양육자(가족원)는 재결합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종합적으로) 재결합은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핵심결정문항)
		(종합적으로) 재결합은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믿는다(핵심결정문항)
		주관식) 재결합 과정 및 결정과 관련하여, 실무자가 가진 공유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해당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 출처 : 유서구 · 이순기 · 정해린(2019), 유서구 · 정해린(2019)

굿네이버스가 해외문헌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 2016년 1차로 개발한 가족 재결합프로그램은 1년 반의 시범적용과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가족재결합프로그램(2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 중이다(유서구 · 이순기 · 정해린, 2019)

굿네이버스가 개발한 가족재결합프로그램은 학대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며, 아동과 가족(주양육자를 포함하여)이 재결합 과정을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유서구 · 이순기 · 정해린, 2019).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은 인지, 정서, 행동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아동용 프로그램, 주양육자용 프로그램, 가족재결합 전환적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 <표2-7>과 같다(유서구 · 이순기 · 정해린, 2019)

<표2-7>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구분	주제	핵심목표	주요내용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아동용)	가족의 의미 (인지)	가족의 의미 정립하기	가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 탐색하고 가족의 의미를 더 긍정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
	재결합 관련 정서 (정서)	재결합 관련 정서다루기	재결합과 관련된 아동의 정서를 다루고 정서적 불편함이 완화된 상태로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
	상황 기술 대처 (행동)	상황대처기술 익히기	재결합 이후, 위기/위험 상황에서 아동 스스로 안전을 지켜낼 수 있게 대처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내용
	진로 및 생활계획 (행동)	재결합 이후 생활 및 진로계획	아동이 재결합 이후, 학교적응이나 일상생활에서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주양육자용)	아동에 대한 이해 (인지)	아동에 대한 이해증진	주양육자가 대상 아동과 연령대별 발달특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내용
	성격유형과 양육스타일에 대한 이해(인지)	자신의 성격과 양육스타일에 대한 이해증진	주양육자가 자신의 성격유형과 양육스타일을 파악하고 양육을 더 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탐색해보는 내용
	재결합 관련 심리/정서(정서)	재결합 관련 심리정서 다루기	주양육자가 재결합을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심리 · 정서적 이슈를 다루어 전환적응을 돕는 내용
	양육의지 및 양육기술(행동)	양육의지, 양육기술 향상	주양육자의 양육의지를 향상시키고 양육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내용
	유선/이메일/기관내 만남(행동)	서로에 대해 이해와 기대나누기	기관 내 안전한 환경에서 분리아동과 주양육자가 1시간 내외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나누는 내용
가족재결합 전환 적응 프로그램	함께하는 식사/요리(행동)	기관 밖에서 둘만의 식사시간 가져보기	기관 내에서의 만남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 3시간 내외로 지역사회 내 식당에서의 함께 하는 식사활동을 하거나 함께 요리해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환경이 허락할 경우)을 가짐으로써 재결합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활동
	가족 나들이(행동)	하루동안 활동 하며 상호적응의 시간 갖기	1, 2단계에서 주양육자와 아동 모두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함께 가족 나들이를 기획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함. 주양육자와 아동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하루 단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평소 같이 해보고 싶었던 활동을 하며 상호 적응의 시간을 갖는 내용
	숙박 (행동)	숙박을 통한 재결합 예비 경험	나들이 프로그램까지 잘 마쳤다면, 아동이 생활하게 될 가정(주거지)에서 숙박을 해보게 되는데 최소 1박 이상(1박부터 시작해서 늘려가도 좋음)의 상호적응연습을 해보는데 이런 과정이 주양육자와 아동에게 재결합에 대한 예비경험을 제공하고 상호 적응에 도움이 되게 돕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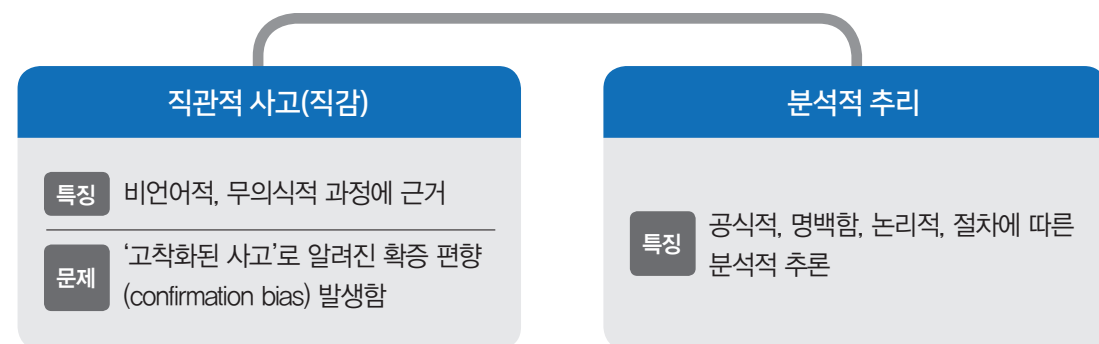
※ 출처 : 유서구 · 이순기 · 정해린(2019)

5.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원가정 복귀 결정은 분리보호 결정을 내리게 했던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전제한다. 원가정 복귀 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분리보호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분리보호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분리보호 결정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사결정과정은 직관적(또는 ‘직감’)과 분석적 추리 간의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김세원 · 김지혜 · 김정희, 2019에서 재인용).



* 출처: 김세원 · 김지혜 · 김정희(2019)에서 재구성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추론 과정에 편견과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착화된 사고로 알려진 확증 편향이다(김세원 외, 2019).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확증편향의 예〉(김세원 외, 2019)

아동학대의 여러 사례를 봐 온 전문가는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은 불결한 모습에 불행한 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아동의 겉모습이 깨끗하고 표정이 비교적 밝아 보이는 상황에서 부모의 방임 상황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확증편향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에 이를 깨닫고 이것이 분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세원 외, 2019).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나,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인지, 누구에게 도

움을 청할 것인지, 지역 내 서비스가 부재하거나 유관 기관과 협조가 어려운 경우 일선 현장에서 어떠한 도움을, 어떤 경로를 통해 구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김세원 외, 2019)하고 의사결정 관련 훈련과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증거기반 실천을 위해, 국외 문헌 중에서 재결합의 성공 혹은 실패, 재학대 발생 위험성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중심실천에 대해 알아보았다.

6. 재결합 성공 및 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영국의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의 재결합 연구를 통해 밝혀진 재결합 성공 및 실패 요인은 <표2-8>과 같다. 이들 연구로부터, 재결합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 아동과 원가정에 대한 개별화되고 충분한 공식적(전문적) · 비공식적 지원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표2-8〉 재결합 성공 및 실패 요인

성공적인 재결합 요인	재결합 실패와 관련된 요인
아동이 변화된 집으로 갔다	아동의 나이가 10세 이상이다
	예전에 가족 재결합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 이런 경우 추가 도움이 필요
	아동이 행동 혹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런 경우 추가 도움이 필요
케이스 히스토리를 포함하여 철저한 사정	불충분한 사정, 아동의 케이스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사회복지사
원가정 복귀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부모와 아동에게 제공하였다	허술한 계획, 특히 아동을 보호할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학대 환경에 노출되었던 아동을 집으로 보내는 경우, 영속성 달성 가능성을 놓쳤던 아동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부모와 아동에게 전문적 서비스(specialist services)가 제공되었다	서비스 제공이 불충분했다 - 서비스가 불충분했거나 너무 늦게 제공되었거나 충분히 집중적이지 않았음. 혹은나 너무 빨리 종결되어 변화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부모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채 혹은 감춰진 채로 남아 있음. 알코올 혹은 약물 문제는 특히 재학대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 알코올 혹은 약물 남용 부모의 78%가 아동이 집으로 돌아간 후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함(알코올 혹은 약물 남용이 없는 부모의 경우 29%가 그러함)
위탁 양육자 혹은 시설 종사자가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 및 아동과 함께 활동하고 이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후에도 부모 및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연장 아동이 확대 가족, 친구 혹은 지역사회 내의 누군가로부터 비공식적 지지를 받고 있다	
애초에 분리를 야기했던 문제를 다루는데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부모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원가정 복귀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적이다	
부모와 아동에 대한 일관적이고 목적적인 사회사업과 모니터링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진 전, 부모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부모가 달라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부모가 재결합에 대해 양면적이며(혹은) 고립되어 있다

※ 출처 : NSPCC(2015). p27

7. 학대 발생 이후, 재학대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요인



아동이 원가정 복귀 이후, 아동보호체제로 재진입(원가정 복귀 실패)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재학대 발생이다.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학대 발생 위험성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이에 재학대 발생 가능성 관련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2-9〉 재학대 발생 가능성 관련 요인

요인	향후 상당한 위험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	향후 상당한 위험이 덜 발생할 가능성
학대	· 화상/데인 상처를 포함하여 심각한 신체적 학대 · 방임 · 심각한 성장 부전 · 다양한 학대 유형 · 가구 내에서 한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음 · 과거 학대 · 오랜 기간 반복된 성학대 혹은 삽입으로 인한 성학대 · 조작되거나 유발된 질병(Fabricated or Induced Illness) · 가학적 학대	심각성 정도가 낮은 학대(상해, 지속기간, 빈도 등에서)
아동	· 특별한 욕구를 가진 발달 지연 ·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 매우 어린 아동 - 보호자 변화(parental change)가 빨리 일어나야 하는 경우	· 건강한 아동 · 아동이 성 학대로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식함 · 늦은 시기 발병 · 좋은 교정적 관계(good corrective relationship)
부모	· 성격 장애(반 사회적, 가학적, 공격적) · 편집증적 정신병 · 중대한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 정신병을 동반한 학습 장애 · 순응하지 않음(lack of compliance) · 문제 부인 · 알코올/약물 남용 · 아동기 학대 경험 -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경험 · 과거의 폭력 혹은 성폭행	· 치료에 순응하는 정신 장애 · 학대하지 않는 파트너 · 서비스를 받으려는 의지 · 문제 인정 · 책임 감수 · 아동기 학대에 적응(받아들임)
양육과 부모/아동 상호작용	· 혼란 애착: 매우 불안정한 애착 · 아동에 대한 공감 결여 · 빈약한 양육 역량 · 아동의 욕구보다 자기 욕구를 앞세움 · 부모 - 아동 관계의 어려움	· 안정 애착: 덜 불안정한 애착 패턴 · 아동에 대한 공감 · 특정 영역에서의 양육 역량
가족	· 부모 간 갈등과 폭력 · 높은 스트레스(가족 스트레스, 부모 스트레스, 대가족, 좋지 못한 가정 환경, 주거 불안정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 · 힘의 문제: 협상과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함, 자율성 부족 · 아동이 외부 세계에 보이지 않고 가해자가 계속 접근하는 상황	· 가정폭력 없음 · 학대하지 않는 파트너 · 지지적인 확대 가족 · 변화 역량
전문가	· 자원 부족 · 미숙한 전문가	· 활용 가능한 자원들: 부모와 파트너십, 가족에 아웃리치, 아동과 치료적 관계
사회적 상황 (social setting)	· 사회적 고립 · 사회적 · 가족 지원 네트워크 부족, 혼자 아이를 키움 · 폭력적, 지지적이지 못한 이웃	· 사회적 지지 · 지역에 많은 아동 돌봄 시설들 ·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 법적 혹은 의료적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음

※ 출처 : NSPCC(2015). p25

8. 가족중심실천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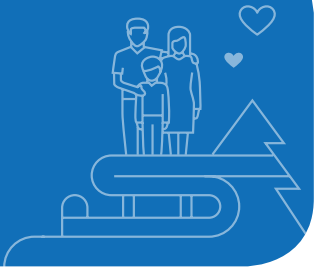
가족중심실천은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해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의 가치와 가족선택을 존중하며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정은주, 2011). Zhnag(2000)은 가족과의 협력, 가족초점, 가족강점, 가족의사결정, 포괄적 서비스 개별화의 6개의 구성요소로 가족중심실천을 설명하였다(정은주, 2011에서 재인용).

첫째, 가족중심실천을 위해 가족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강점에 기초하여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가족과의 협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협력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간의 신뢰, 존경, 의사소통, 공유가치, 그리고 문화적 민감성을 보일 때 이루어진다. 둘째, 가족초점은 가족 구성원의 관심과 자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가족 강점은 가족의 참여를 강조하며, 가족의 강점을 찾아 동기부여하고 목표와 비전 달성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넷째, 가족의사결정은 의사결정시 가족을 중요한 맥락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가족의사결정은 의뢰에서 시작하여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에 가족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해가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포괄적 서비스란 아동과 가족이 최대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고 아동과 가족이 자신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협력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개별화는 개별 가족의 특성과 욕구, 관심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2) 정은주(2011)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제2장 문헌검토

제2절 국내외 문헌검토가 주는 함의



그룹홈은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노력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협력자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 하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의 변화로, 원가정 복귀 지원에 대한 참여는 불가피하다.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그룹홈의 역할은 보호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맞춤형으로 수립될 보호관리계획에 따라 원가정과 보호아동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또한,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룹홈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원가정과 아동 간의 관계 개선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이나 각종 사정도구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자가 갖는 확증편향이 원가정 관계 개선에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실무자의 선입견을 강화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실무자가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재결합 성공 및 실패 요인, 재학대 발생 가능성 관련 요인에 주목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원가정과 함께, 원가정 복귀를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관점 정립 또한 요구된다.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

III

그룹홈 종사자
대상 양적연구



제3장 그룹홈 종사자 대상 양적연구



그룹홈 시설장 및 보육사(실무자)(그룹홈 당 1명)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원가정 복귀에 관한 인식, 원가정 복귀 지원 노력 실태, 원가정 복귀 시 고려할 점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는 2020년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중복응답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에는 총 406부(시설장: 218명, 보육사(실무자): 188명)가 사용되었다. 시설장 및 보육사(실무자) 공통 문항의 경우에는 모든 응답자(N=406)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시설장만 응답한 문항은 시설장 응답 기준(N=218)으로 분석하였다.

1. 응답자 특성



1) 응답자 특성

응답자 총 406명 가운데, 여성은 79.6%, 남성은 20.4%로 여성 응답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40대 23.2%, 50대 40.6%, 60대 이상은 13.5%를 차지, 50대 이상이 54.1%로 절반을 넘었다.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혼자의 비율(65.5%)이 미혼자(31.5%)보다 높았다.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종교 중에서는 개신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현재 그룹홈 근무년수는 5년 미만이 58.6%, 5년-10년 미만이 23.2%, 10년 이상이 18.2%였다. 그룹홈 근무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은 14.5%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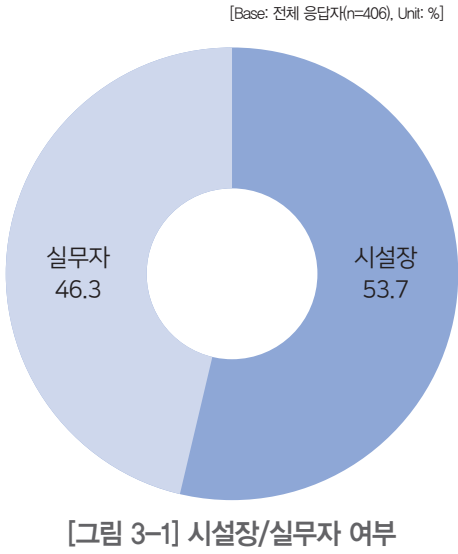
〈표3-1〉 응답자 특성

전체		사례수(406)	100.0%
성별	남	(83)	20.4
	여	(323)	79.6
연령	20대	(24)	5.9
	30대	(68)	16.7
	40대	(94)	23.2
	50대	(165)	40.6
	60대 이상	(55)	13.5
최종학력	고졸 이하	(8)	2.0
	대졸	(320)	78.8
	대학원 석사	(71)	17.5
	박사 이상	(7)	1.7
결혼상태	기혼	(266)	65.5
	미혼	(128)	31.5
	기타	(12)	3.0
종교	가톨릭	(96)	23.6
	개신교	(209)	51.5
	불교	(22)	5.4
	원불교	(1)	0.2
	기타	(7)	1.7
	종교 없음	(71)	17.5
사회복지 분야 근무년수	5년 미만	(135)	33.3
	5년~10년 미만	(95)	23.4
	10년~15년 미만	(103)	25.4
	15년 이상	(73)	18.0

전체		사례수(406)	100.0%
현 그룹홈 근무년수	5년 미만	(238)	58.6
	5년~10년 미만	(94)	23.2
	10년 이상	(74)	18.2
그룹홈 만족도	불만족	(59)	14.5
	보통	(165)	40.6
	만족	(182)	44.8

2) 시설장/보육사(실무자) 여부

총 406명 가운데 시설장 응답자의 비율은 53.7%이고
보육사(실무자) 응답자 비율은 46.3%로 전체 응답자 중
시설장 응답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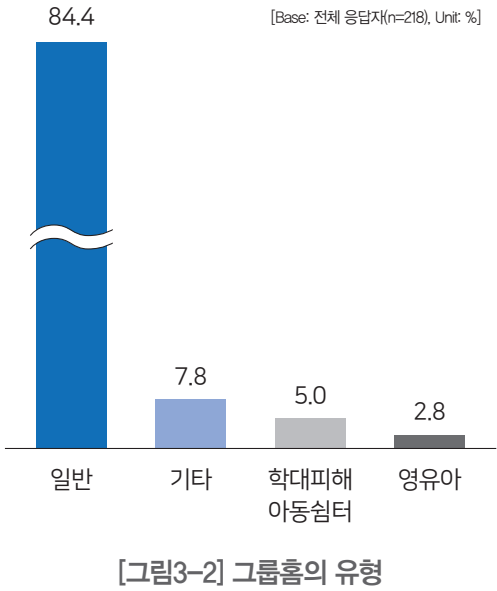


2. 그룹홈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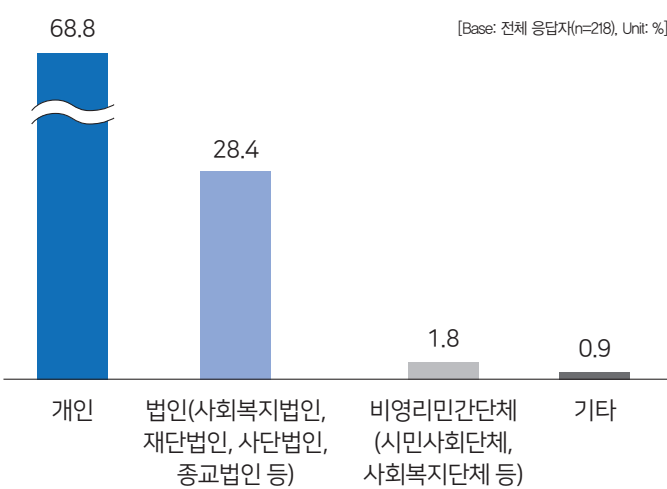
1) 그룹홈의 유형

그룹홈 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시설장만 응답하였는데,
일반 그룹홈이 84.4%로 가장 많았다.



2) 그룹홈의 운영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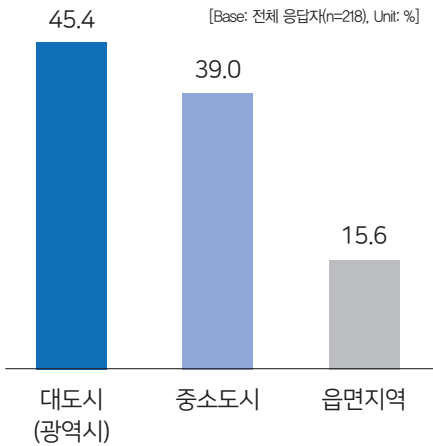
시설장 응답자 중에서 개인 그룹홈을 운영 중이라는 응답(68.8%)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등) 그룹홈(28.4%)이 뒤를 이었다.



[그림3-3] 그룹홈의 운영 주체

3) 그룹홈의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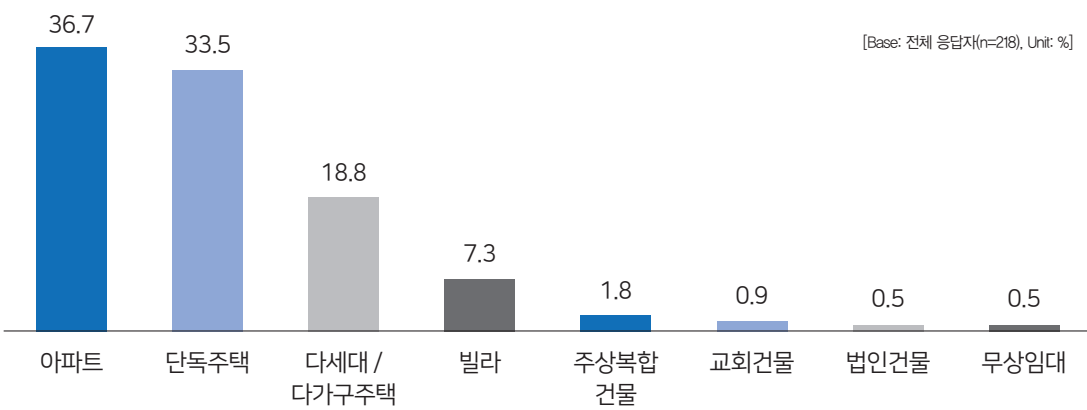
시설장을 대상으로 그룹홈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45.4%가 대도시(광역시)에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었고 중소도시 39.0%, 읍면지역 15.6%로 나타났다.



[그림3-4] 그룹홈의 소재지

4) 그룹홈의 주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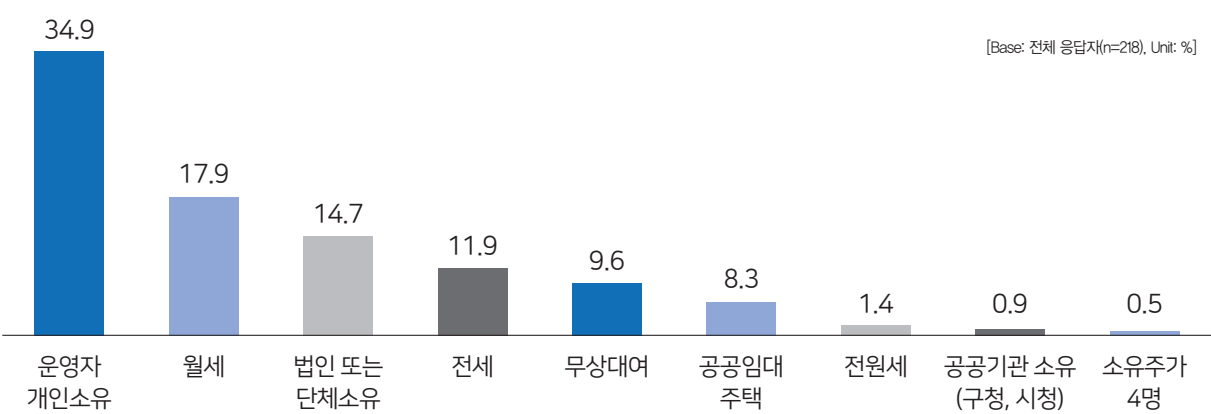
가정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홈의 주거형태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36.7%), 단독주택(33.5%), 다세대/다가구 주택(18.8%), 빌라(7.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3-5] 그룹홈의 주거형태

5) 그룹홈 건물의 소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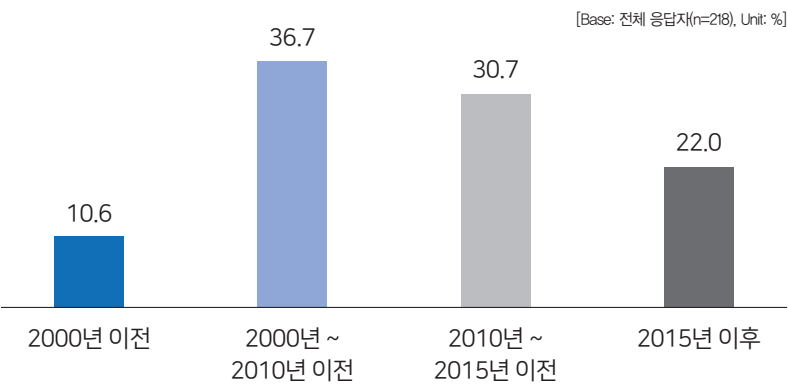
시설장을 대상으로 그룹홈 건물의 소유형태를 조사한 결과, 그룹홈 운영자 개인 소유인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고 월세의 비중도 17.9%로 다른 소유형태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3-6] 그룹홈 건물의 소유형태

6) 그룹홈 설립년도

설립년도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설립된 그룹홈이 52.7%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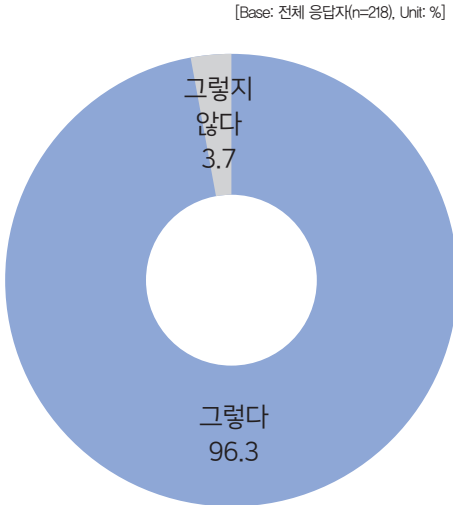


[그림3-7] 그룹홈 설립년도

2005년, 그룹홈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설립년도를 비교한 결과, 2005년 이후 설립된 그룹홈이 응답자의 82.6%였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 설립된 그룹홈은 10.6%, 2000년 - 2005년 이전에 설립된 그룹홈은 6.8%, 2005년 이후 - 2010년 이전에 설립된 그룹홈은 29.9%, 2010년 - 2015년 사이에 설립된 그룹홈은 30.7%, 2015년 설립된 그룹홈은 22.0%로 나타났다.

7) 그룹홈의 국가 보조금 지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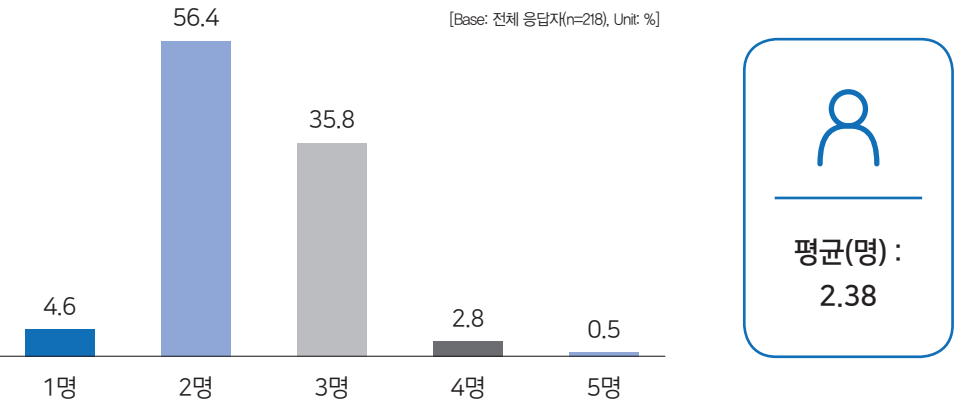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그룹홈은 96.3%로 대부분이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8] 그룹홈의 국가 보조금 지원 여부

8) 그룹홈의 종사자 수(운영자(시설장) 제외)

시설장을 대상으로 그룹홈 종사자 규모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시설장을 제외하고 2명의 종사자가 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고 3명의 종사자가 있다는 응답은 35.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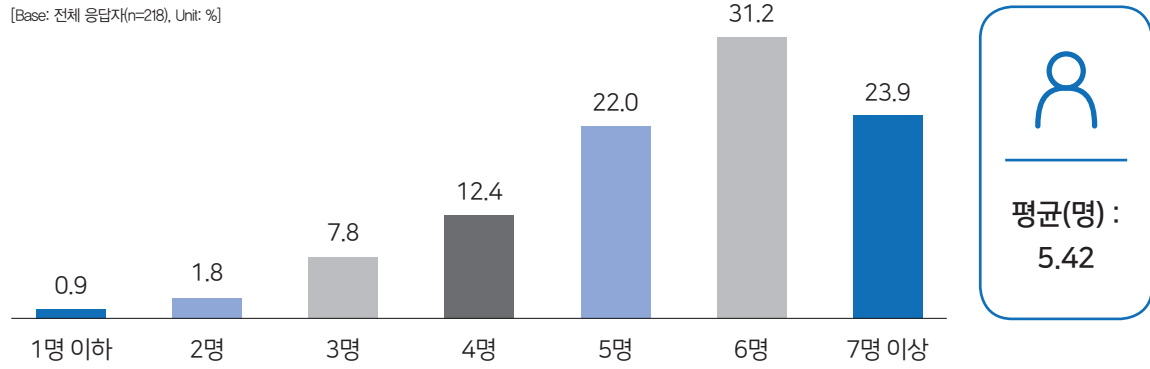
[그림3-9] 그룹홈의 종사자 수(운영자(시설장) 제외)

3. 그룹홈 아동청소년과 원가정간의 연락 현황



1) 그룹홈에 사는 아동청소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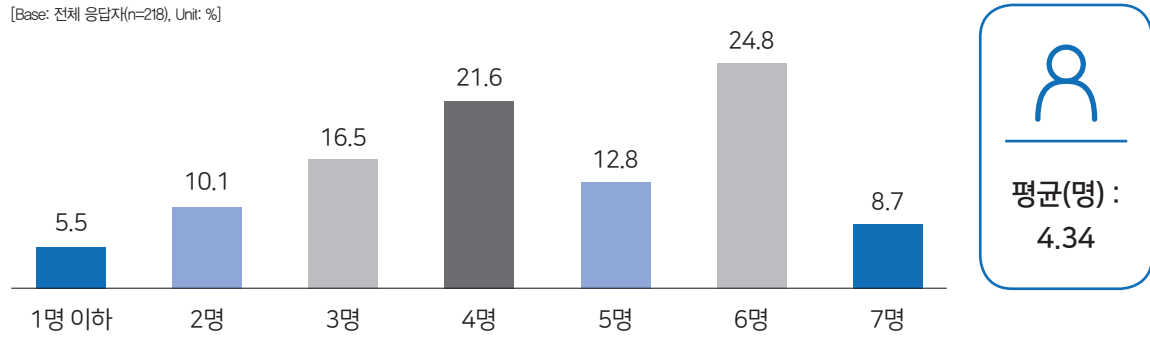
시설장 응답자 기준으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평균 5.42명으로 나타났다. 6명이 31.2%로 가장 많았는데 6명 이상이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분야사업안내』에서 5인 기준으로 7인 이내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그림3-10] 그룹홈에 사는 아동청소년 수

2) 연락가능한(실제 연락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는 아동청소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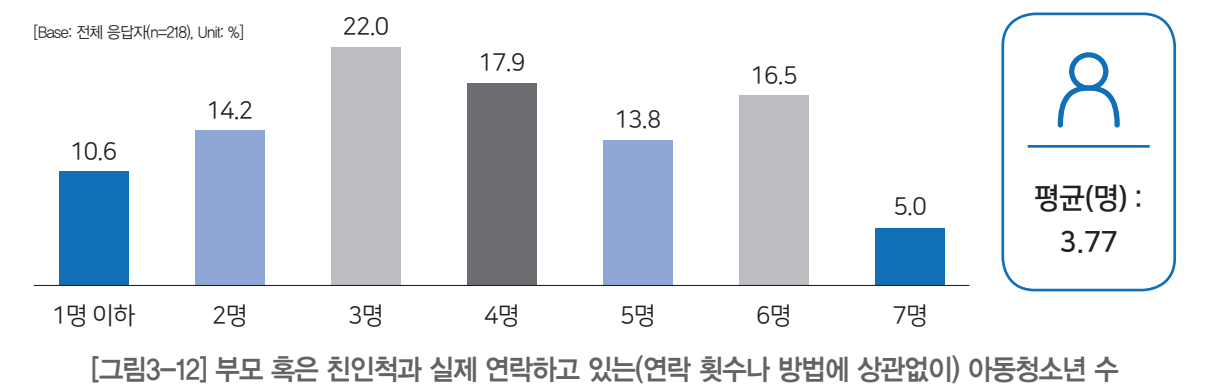
부모 혹은 친인척과의 연락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는 아동의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명 정도의 아동에게 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그룹홈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평균 인원이 5명 정도였고 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는 아동의 수가 평균 4명 이상임을 고려할 때,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대부분이 실제 연락 여부를 떠나 연락할 가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11] 연락가능한(실제 연락여부와 관계없이)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는 아동청소년 수

3) 부모 혹은 친인척과 실제 연락하고 있는(연락 횟수나 방법에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수

부모 혹은 친인척과 연락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3.7명으로, 평균 5명 정도 살고 있는 그룹홈에 3-4명 정도는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락 가능한 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는(혹은 연락을 못하는) 이유

연락 가능한 상황임에도 연락이 안되는(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부모 혹은 친인척이 연락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응답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즉, 부모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주거가 불안정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아동 양육 태도 등의 문제가 연락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모 상황의 변화가 수반된다면 연락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부모 혹은 친인척이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부모 혹은 친인척과의 연락이 중간에 끊겨서 등의 이유도 많았다.

〈표3-2〉 연락 가능한 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는(혹은 연락을 못하는) 이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아동이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38.9	25.1	10.3	16.5	9.1	2.32
연락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29.8	24.6	14.8	19.5	11.3	2.58
부모 혹은 친인척이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20.2	21.4	18.5	25.9	14.0	2.92
부모 혹은 친인척과의 연락이 중간에 끊겨서	23.4	20.4	13.3	29.3	13.5	2.89
연락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예, 교통비, 선물비, 교제비 등)	40.6	32.8	16.3	8.6	1.7	1.98
부모 혹은 친인척의 상황이 아직 연락할 만하지 않아서 (예, 부모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주거가 불안정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아동 양육 태도의 문제 등)	21.2	15.8	15.8	33.5	13.8	3.03
연락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기관)이 없어서 (예, 그룹홈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54.2	34.0	7.6	3.7	0.5	1.62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표3-3〉 기타

	전체
사례수	(16)
부모가 없어서 / 연고자가 없어서	56.3
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25.0
영아라서	12.5
관심이 없어서	6.3

[Base: 기타 응답자(n=16):Unit: %]

5) 부모 혹은 친인척과의 연락이 가능하게 된 이유

부모 혹은 친인척과의 연락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룹홈 종사자의 당연한 책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이 원해서’, ‘연락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등과 같은 아동의 바람이 연락을 성사시키게 된 배경임을 알 수 있다.

〈표3-4〉 부모 혹은 친인척과의 연락이 가능하게 된 이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아동이 원해서	4.4	8.6	20.4	45.3	21.2	3.70
연락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3.7	7.4	26.4	44.6	18.0	3.66
부모 혹은 친인척이 원해서	5.2	10.8	24.9	47.0	12.1	3.50
연락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 (예, 교통비, 선물비, 교제비 등)이 가능해서	23.6	32.5	26.6	13.8	3.4	2.41
부모 혹은 친인척의 상황이 개선되어서 (예, 부모의 취업, 안정된 주거, 부모의 건강 회복, 아동 양육에 대한 태도 변화 등)	15.8	29.1	26.6	24.1	4.4	2.72
연락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기관)(예, 그룹홈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있어서	12.1	17.2	26.1	31.8	12.8	3.16
원가정과의 연락을 지원하는 것은 그룹홈 종사자의 당연한 의무라서	3.4	4.9	19.2	42.6	29.8	3.90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표3-5〉 기타

	전체
사례수	(7)
원가정 적응 훈련을 위해서	42.9
관계 개선을 위해서	28.6
아동의 현황이 좋아져서	14.3
아동과 부모 서로 원해서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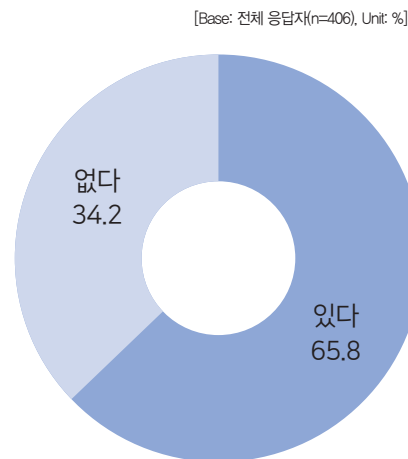
[Base: 기타 응답자(n=7):Unit: %]

4. 원가정 복귀 지원 관련 실태



1)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킨 경험유무

그룹홈 시설장과 실무자 응답자의 65.8%가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없다’는 응답도 34.2%로 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3-13]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킨 경험유무

2)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

원가정 복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원가정 복귀 후 잘 지낼지 걱정된다’, ‘입소 후, 원가정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와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후관리에 대한 우려, 입소 후 달라지지 않는 원가정 상황에 대한 걱정이 원가정 복귀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3-6〉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아동 입소 이후, 원가정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2.2	6.7	16.3	46.8	28.1	3.92
원가정과 연락이 안된다	10.8	31.3	20.7	25.1	12.1	2.96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가 어렵다	6.9	13.3	20.9	37.7	21.2	3.53
아동 관리가 힘들어 원가정으로 보내고 싶은데 원가정이 거부한다	13.1	24.9	25.4	27.6	9.1	2.95
원가정 복귀 준비가 안됐는데, 부모(혹은 친인척)가 아동을無理하게 데려가려고 한다	18.2	28.6	16.5	24.9	11.8	2.83
아직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지 않은데, 아동이 원하고 부모(혹은 친인척)가 동조한다	17.0	28.3	21.2	25.1	8.4	2.80
원가정 복귀 후, 아동이 힘들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는다	8.6	19.5	26.4	32.8	12.8	3.22
원가정 복귀 후, 아동이 잘 지낼지 걱정된다	3.0	5.4	12.3	50.2	29.1	3.97
원가정 복귀 후, 아동이 어떻게 지내는지 사후관리가 안된다	5.4	16.0	27.6	36.2	14.8	3.39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아동, 부모(혹은 친인척), 그룹홈,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생각(입장)이 서로 다르다	5.4	16.5	30.0	35.2	12.8	3.33
원가정 복귀는 그룹홈의 업무가 아닌데, 계속 요구받는 상황이 불편하다	15.3	32.8	28.1	17.2	6.7	2.67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그룹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15.3	39.2	26.4	16.3	3.0	2.52
원가정 복귀가 아동에게 좋은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9.4	22.7	21.2	34.0	12.8	3.18
그룹홈에는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할 여력(예산, 인력 등)이 없다	7.9	19.5	25.6	30.8	16.3	3.28
원가정 복귀 과정에서 도움받거나 수퍼비전 받을 곳이 없다	6.4	17.2	31.0	33.0	12.3	3.28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예,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드림스타트 등)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10.6	34.5	31.0	17.2	6.7	2.75
보호대상아동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8.9	31.3	36.9	17.2	5.7	2.80
원가정 복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 및 지원이 부족하다.	4.7	9.9	30.0	34.0	21.4	3.58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표3-7〉기타

	전체
사례수	(7)
원가정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57.1
원가정 복귀 준비가 안됐는데 악질적인 민원으로 귀가한다	14.3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원하지 않고 독립을 원한다	14.3
원가정 복귀에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다	14.3

[Base: 기타 응답자(n=7):Unit: %]

3-1)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

보호대상아동의 입소, 원가정복귀, 퇴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 정도를 조사한 결과, 입퇴소에 비해 원가정복귀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의 비율이 조금 낮았다.

〈표3-8〉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보호대상 아동 입소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3.4	5.9	28.1	48.3	14.3	3.64
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2.2	5.9	37.7	44.3	9.9	3.54
보호대상 아동 퇴소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1.7	4.7	32.0	49.8	11.8	3.65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3-2)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에 대한 평가 이유 (중복응답)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를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담당 공무원과 연락 · 소통이 잘 되고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담당공무원이 아동에 대한 관심이 적고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등의 상황이었다.

〈표3-9〉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에 대한 평가 이유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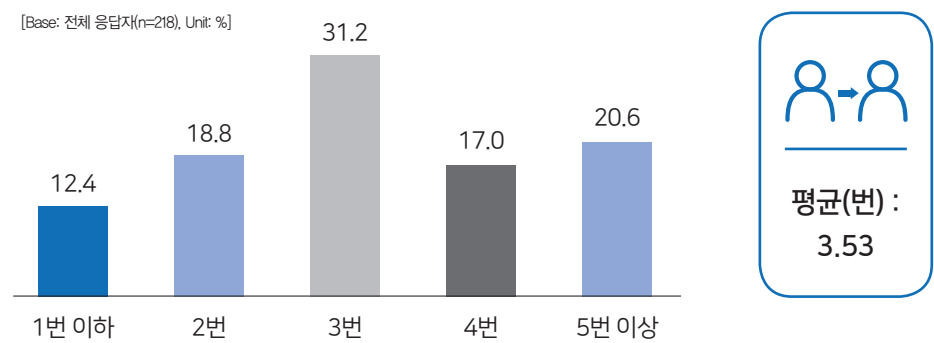
	전체
사례수	(406)
담당공무원과 소통이 잘 된다/상의를 잘 된다	11.8
입퇴소 관련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입퇴소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6.2
담당공무원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4.9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아동에게 관심이 많다	3.9
원가정 복귀 시 업무 협력이 잘된다	3.9
업무처리가 신속하다/서류 처리를 빨리 해준다	3.2
담당공무원과 연락이 잘된다/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	3.0
문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준다/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상의할 수 있다	2.7
업무처리가 원만하다/서류 처리가 잘된다	2.5
퇴소가 잘 이루어진다/퇴소 점검 후 퇴소 승인이 잘 된다	2.5
수시로 아동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수시로 아이들 상황을 알린다	2.2
담당공무원이 그룹홈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다/시설 상황을 이해한다	2.0
담당공무원이 아동에 대해 관심이 없다/관심이 없다	2.0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다/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2.0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뀐다	1.7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이다	1.5
담당공무원이 친절하다	1.5
담당공무원이 일반적인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1.5
담당공무원이 아동과 원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1.5
원가정 복귀 시 아동 상태와 가정환경 조사 후 반대해도 친권자라는 이유로 복귀시키기는 경우가 많다	1.5
요청사항에 대해 잘 응해준다/도움 요청 시 협조가 잘된다	1.2
원가정 복귀 시 가정 환경 확인이 잘 이루어진다/부모 양육방법 확인이 잘된다	1.2
아이들의 필요사항을 신경 써준다	1.0
담당공무원이 아동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	1.0
모름	16.5

[Base: 전체 응답자(n=406):Unit: %]

* 전체 응답 기준 상위 1.0% 이상만 따로 표시함.

4)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변화 횟수(2017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장을 대상으로, 지난 3년 동안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몇 번 교체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3번 바뀌었다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고 평균 교체횟수는 3.53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년에 1회 이상 바뀌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3-14]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변화 횟수(2017년 이후 현재까지)

5-1)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담당 공무원의 경우보다 입소, 원가정 복귀, 퇴소 등에서 협력 정도가 낮았다. 협력 내용에서는 퇴소와 입소에서의 협력이 원가정 복귀에서의 협력보다 다소 높았다.

〈표3-10〉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보호대상 아동 입소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5.4	9.9	40.1	36.7	7.9	3.32
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4.4	10.3	47.8	31.3	6.2	3.24
보호대상 아동 퇴소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4.7	6.7	45.3	35.7	7.6	3.35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5-2)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에 대한 평가 이유 (중복응답)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정보 공유’, ‘입소 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공통으로 지적되었다. 즉, 정보 공유가 잘되는 경우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같은 이유로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는 경우 협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3-11〉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에 대한 평가 이유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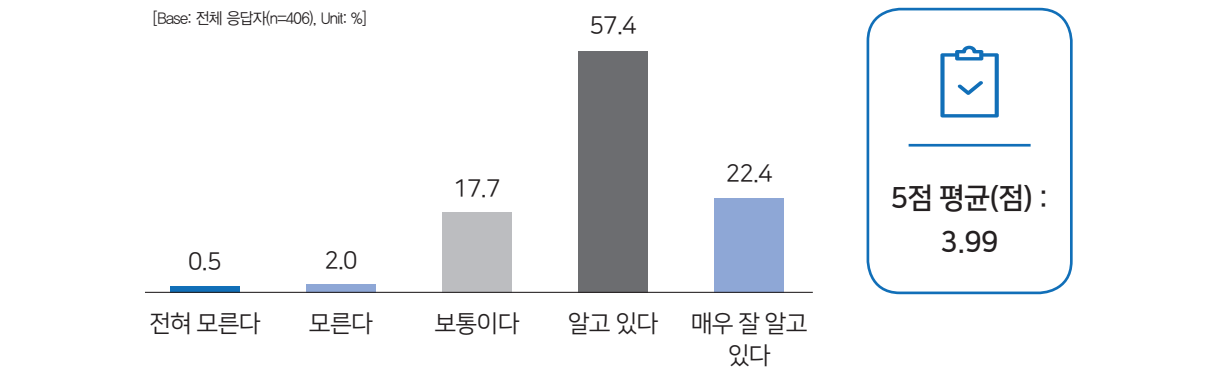
	전체		전체
사례수	(406)	사례수	(406)
모름	27.8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소통이 어렵다 / 소통이 부족하다	1.2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소통이 잘 된다 / 상의가 잘 된다	6.2	업무처리가 신속하다 / 서류 처리를 빨리 해준다	1.0
입소 관련해 협력이 잘된다 / 입소 관련해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4.4	불편사항에 대해 해결해주려고 한다 / 문제 발생 시 해결해 주려고 한다	1.0
입퇴소 관련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 입퇴소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3.9	문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준다 /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상의할 수 있다	1.0
정보 제공이 잘 된다 / 정보를 공유한다	3.0	담당자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	1.0
입소 시 아동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3.0	입퇴소 관련해서 협력이 되지 않는다	1.0
업무처리가 원만하다	2.7	그룹홈 입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그룹홈으로 입소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	1.0
아동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2.5	아동을 잘 보호한다	0.7
아동의 상황을 수시로 체크한다 / 아동 상황을 파악한다	2.2	요청사항에 대해 잘 응해준다 / 도움 요청 시 협조가 잘된다	0.7
원가정 복귀 시 업무 협력이 잘된다	2.0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 / 아동에게 관심이 많다	0.7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준다	1.7	기관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다 / 시설 상황을 이해한다	0.7
원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 원가정 부모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1.5	친절하다	0.7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바쁘다 / 처리할 일이 많다고 한다	1.5	각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 각자 일을 한다	0.7
입소를 쉽게 해주지 않는다 / 입소 절차가 원활하지 않다	1.5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아동에 대해 관심이 없다 / 관심이 없다	0.7
퇴소 시 어려움이 있다 / 퇴소 시 협력이 되지 않는다	1.5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	0.7
(부모가 원해도)원가정에 문제가 있을 시 복귀시키지 않아야 한다	1.5	서로 일을 미룬다 / 떠맡기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0.7
입장의 차이가 있다 / 생각의 차이가 있다	1.5	입소 후에 유관기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	0.7
없음	1.5	원가정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	0.7
사례 공유가 된다	1.2		

[Base: 전체 응답자(n=406):Unit: %]

* 전체 응답 기준 상위 0.7% 이상만 따로 표시함.

6) UN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79.8%로 높게 나타났다.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2.5%, ‘보통이다’는 응답은 17.7%였다.



[그림3-15] UN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7) 원가정보호 원칙과 관련된 아동복지법 4조 3항의 내용에 대한 생각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원가정보호 원칙과 관련하여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원가정 분리 시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가 평균 4.4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그룹홈의 정체성(특징)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 제공’에 두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원가정 복귀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이 조금 높았다.

〈표3-12〉 원가정보호 원칙과 관련된 아동복지법 4조 3항의 내용에 대한 생각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전적으로 동의한다	5점 평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	6.2	20.4	43.3	28.8	3.92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0.2	1.0	5.9	39.9	53.0	4.44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7	14.8	29.3	32.8	19.5	3.50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8)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도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문항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혹은 친인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양육태도(의지) 및 양육 행동 변화’, ‘분리 이유에 따른 차별화된 복귀 지원’ 등을 원가정 복귀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3-13〉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중요도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아동의 바램(욕구, 아동 이익)	0.0	1.2	8.6	46.8	43.3	4.32
아동의 안전	0.2	0.0	3.0	23.2	73.6	4.70
분리 이유(부모의 실직, 빈곤, 이혼, 질병, 장애, 아동학대, 베이비박스에 유기 등)에 따른 차별화된 복귀 지원	0.0	0.0	3.7	38.4	57.9	4.54
분리 이후, 아동과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 간의 지속적인 연락	1.0	1.7	18.2	51.5	27.6	4.03
그룹홈 운영자(종사자)와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 간의 협력적 관계	0.2	0.7	12.1	49.0	37.9	4.24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양육 태도(의지) 및 양육 행동 변화	0.0	0.5	3.7	34.2	61.6	4.57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경제 상황	0.0	0.5	9.6	51.7	38.2	4.28
복귀 후 양육환경(주거, 위생 등)	0.0	0.5	4.4	43.6	51.5	4.46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0.0	0.0	4.2	27.6	68.2	4.64
아동과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 간의 애착관계	0.0	0.0	3.9	40.6	55.4	4.51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강점(변화 가능성)	0.0	0.2	4.4	45.3	50.0	4.45
원가정 복귀 후 사후 관리	0.2	0.2	8.1	47.0	44.3	4.35
원가정 복귀 관련 그룹홈의 역할 및 권한 명료화	0.2	1.0	13.3	49.0	36.5	4.20
원가정 복귀 관련 그룹홈의 전문성 강화	0.7	1.0	13.1	48.5	36.7	4.19
원가정 복귀 관련 그룹홈에 대한 추가 지원(예산, 인력 등)	0.5	1.0	15.3	37.2	46.1	4.27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예, 담당 공무원, 드림스타트 등)와의 협력	0.0	0.0	8.6	48.0	43.3	4.35
보호대상아동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 전문 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0.0	0.7	11.8	48.3	39.2	4.26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표3-14〉 기타

	전체
사례수	(8)
그룹홈의 의견	37.5
복귀 후 원가정에 대한 지원	25.0
아동의 연령에 다른 조치 방법	12.5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마인드	12.5
아동보호전문기관	12.5

[Base: 기타 응답자(n=8):Unit: %]

9) 원가족 복귀를 위한 그룹홈의 노력

원가정 복귀를 위해 현재 그룹홈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원가정 복귀 후 필요한 기술을 아동에게 가르친다’, ‘지속적인 연락을 주선한다’,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게 갖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뤄준다’ 등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공적인 가정복귀를 위해 부모(혹은 친인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나 양육의지(태도) 및 양육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응답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원가정 복귀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친인척)의 상황이나 변화이며, 그룹홈에서는 원가정 복귀를 위한 아동 준비 및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3-15〉 원가정 복귀를 위한 그룹홈의 노력

	① 전혀 하지 못한다	② 하지 못한다	③ 보통 이다	④ 하고 있다	⑤ 매우 많이 하고있다	5점 평균
지속적인 연락을 주선(예, 주말/방학/명절 때 방문)한다	1.2	2.2	12.1	52.5	32.0	4.12
연락에 필요한 예산(예, 교통비)을 지원한다.	3.0	4.9	18.5	49.8	23.9	3.87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어준다.	1.2	2.2	14.8	58.9	22.9	4.00
원가정 복귀 후 필요한 기술(방 정리정돈, 설거지, 부모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아동에게 가르친다.	0.5	2.2	10.6	55.4	31.3	4.15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어려움을 듣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4.2	10.8	22.7	45.8	16.5	3.60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혹은 연계한다.	5.4	17.5	32.8	32.8	11.6	3.28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예, 그룹홈 내 활동, 학교 활동 등)를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예, 카톡, 문자 등의 SNS 활용)	2.0	6.2	31.0	43.1	17.7	3.68
원가정 복귀를 위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특정 목표에 따라 여러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도 하는 경우)을 실시한다.	4.7	19.5	39.4	26.6	9.9	3.17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활동에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을 참여시킨다.	5.7	19.0	35.7	30.0	9.6	3.19
원가정 복귀 이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5.9	15.5	36.7	32.8	9.1	3.24
원가정 복귀를 위해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예, 담당 공무원, 드림스타트 등)와 협력한다	2.5	11.3	35.0	38.7	12.6	3.48
원가정 복귀를 위해 보호대상아동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협력한다	3.4	10.8	37.2	35.7	12.8	3.44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표3-16〉 기타

	전체
사례수	(4)
원가정 복귀를 위한 인력을 지원한다	25.0
원가정 양육 환경에 대해 파악한다/원가정 복귀가 아동에게 안전한지 확인한다	25.0
원가정 부모가 그룹홈 방원을 원할 시 허락한다	25.0
복귀할 가정이 해체된 경우 그룹홈이 원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5.0

[Base: 기타 응답자(n=4):Unit: %]

10) 가족개입기술 숙련 정도

원가정 복귀에 필요한 가족개입기술의 숙련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체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이다’는 응답이 많았다. ‘매우 미숙하다’와 ‘미숙하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29.8%가 응답한 ‘원가정 기능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었다.

〈표3-17〉가족개입기술 숙달 정도

	① 매우 미숙하다	② 미숙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능숙 하다	⑤ 매우 능숙하다	5점 평균
원가정 복귀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	2.0	18.5	53.7	21.9	3.9	3.07
원가정 찾기(예, 연락두절 부모 찾기 등)에 필요한 기술	6.4	21.2	51.5	17.2	3.7	2.91
원가정 방문 혹은 전화, 편지 등 지속적인 관계(접촉) 유지에 필요한 기술	2.0	10.6	47.8	33.5	6.2	3.31
원가정 가족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평가에 필요한 기술	3.7	22.7	47.0	21.9	4.7	3.01
원가정 대상 부모교육, 부모·가족 상담에 필요한 기술	3.4	18.0	46.8	26.4	5.4	3.12
원가정 기능강화를 위한 가족 지원, 지역사회 연계에 필요한 기술	3.0	20.7	53.2	17.7	5.4	3.02
원가정 기능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에 필요한 기술	3.4	26.4	48.3	18.0	3.9	2.93
아동과 원가정과의 관계 진단 및 관계 개선 (예: 갈등 해결 등)에 필요한 기술	2.2	18.0	50.0	24.6	5.2	3.13
아동에 대한 원가정의 관심과 참여 유도에 필요한 기술	1.5	13.8	48.5	29.8	6.4	3.26
원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사정에 필요한 기술	2.0	16.0	50.2	24.9	6.9	3.19
아동의 원가정 복귀 준비에 필요한 기술 (예: 원가정 방문 등)	2.0	13.1	50.5	28.6	5.9	3.23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표3-18〉기타

	전체
사례수	(3)
원가정에 정서적인 지원 기술	66.7
원가정 복귀 후 사후 관리 기술	33.3

[Base: 기타 응답자(n=3);Unit: %]

11) 아동의 원가정에 대한 인식

그룹홈 시설장과 실무자의 원가정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원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원가정의 행동에 믿음을 느끼지 못했고 원가정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다만, 시설장과 실무자를 믿고 따른다는 질문에는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3-19〉“대체적으로 아동의 원가정들은(의) ~~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편이다	20.0	46.8	23.9	7.4	2.0	2.25
행동에 믿음이 간다	22.2	40.1	30.3	6.2	1.2	2.24
개입과정 동안 약속한 것에 대해서 만큼은 그대로 이행하는 편이다	15.5	36.5	34.5	11.3	2.2	2.48
개입과정에서 나를 믿고 잘 따르는 편이다	6.2	16.7	47.8	26.1	3.2	3.03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12-1) 가족중심실천 실행도

Zhang(2000)이 개발한 가족중심실천 척도를 수정 보완한 정은주(2011)의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중심실천에 대한 실행도와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였다. 가족중심실천 척도는 가족과의 협력, 가족 초점, 가족 강점, 가족 의사결정,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중심실천 척도는 중요성 인식(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과 현재 실행도(현재 실천하는 정도) 나뉘어졌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중요성 인식과 실행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실행도를 분석한 결과, ‘원가정과의 관계에서 상호 간의 신뢰, 정직, 존중,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한다’, ‘원가정의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원가정이 가능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원가정마다 원하는 서비스가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한편,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활동에 원가정을 참여시킨다’, ‘나는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과정, 그리고 아동 관련 프로그램 활동에 원가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원가정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원가정 구성원이 부모 혹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 기회, 자원 등을 제공한다’의 경우 다른 문항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표3-20〉원가정 관련 현재 실천 정도

	① 전혀 실천 하고 있지 않다	② 실천하고 있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실천하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실천하고 있다	5점 평균
나는 아동 원가정의 문화, 가치, 신념을 존중한다	0.7	2.5	40.1	48.8	7.9	3.61
나는 원가정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 정직, 존중,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한다	0.5	1.2	27.3	58.9	12.1	3.81

나는 원가정과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1.5	10.3	49.5	31.0	7.6	3.33
나는 원가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원가정의 관심사를 공유하려고 한다	2.2	11.1	41.6	37.4	7.6	3.37
나는 원가정의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원가정이 가능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1.0	3.2	35.0	50.2	10.6	3.66
나는 원가정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0	13.8	46.3	30.5	6.4	3.24
나는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과정, 그리고 아동 관련 프로그램 활동에 원가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2.7	17.5	45.6	29.8	4.4	3.16
나는 아동의 원가정과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원가정이 자신들의 아동이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관계할 때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2.7	10.3	45.6	34.7	6.7	3.32
나는 아동의 원가정 구성원이 부모 혹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 기회, 자원 등을 제공한다.	3.2	14.3	44.6	31.0	6.9	3.24
나는 원가정이 아동 양육 및 기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이용가능한 서비스 정보들을 최대한 제공한다	3.7	10.6	43.6	34.5	7.6	3.32
나는 원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2.5	8.1	43.6	37.7	8.1	3.41
나는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활동에 원가정을 참여시킨다	4.2	20.7	46.1	23.4	5.7	3.06
나는 원가정의 신념과 원가정 문화를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5	7.4	42.9	39.7	8.6	3.47
나는 원가정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지지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	4.4	39.7	43.1	11.1	3.57
나는 원가정마다 원하는 서비스가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7	3.7	38.2	42.9	13.5	3.63
나는 최대한 원가정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2.2	7.6	43.8	37.7	8.6	3.43
나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원가정의 욕구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2.2	5.7	47.5	38.2	6.4	3.41
나는 좀 더 많은 원가정과 폭넓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나의 역할을 잘 조절한다	2.0	8.1	46.1	36.7	7.1	3.39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12-2) 가족중심실천 중요성 인식

가족중심실천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원가정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 정직, 존중,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동 원가정의 문화, 가치, 신념을 존중하는 것’, ‘원가정의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원가정이 가능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문항에 비해 중요성 인식이 낮았던 문항은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과정, 그리고 아동 관련 프로그램 활동에 원가정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것’,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활동에 원가정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도 및 중요성 인식을 종합하면, “참여” 관련 문항에서 중요성 인식도 낮았고 실제 수행 정도도 낮게 나타났다. 신뢰, 정직, 존중, 개방적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경우, 중요성 인식 및 실행도 수준이 모두 높았다. 후자와 관련하여 그룹홈 종사자는 원가정과의 “관계 맺음”에 유의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표3-21〉 원가정 관련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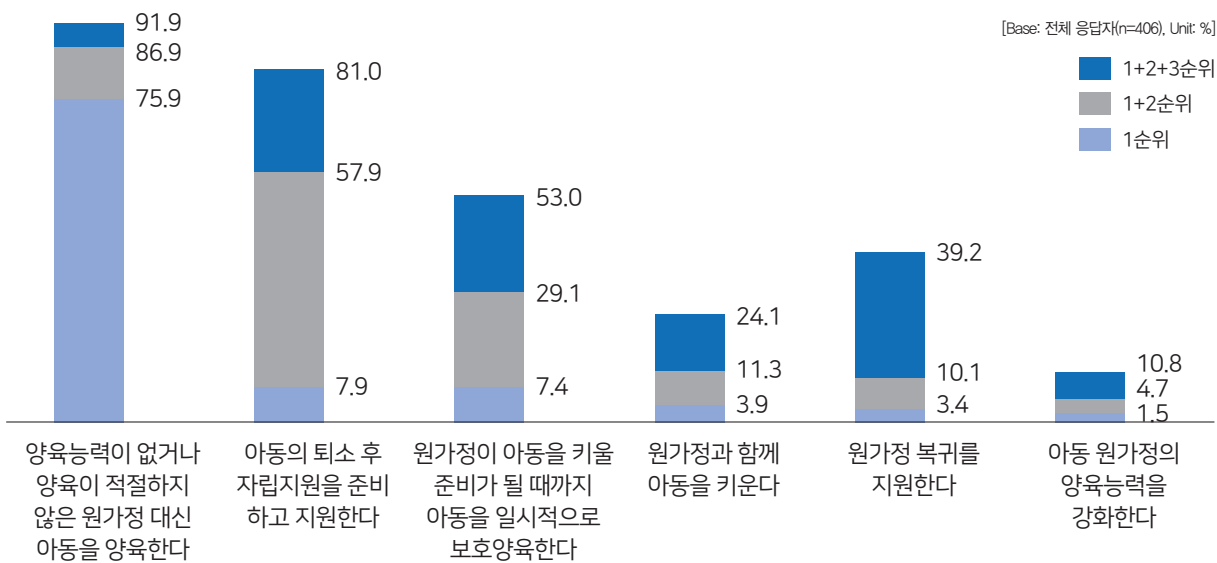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 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아동 원가정의 문화, 가치, 신념을 존중하는 것	0.2	0.5	23.4	62.1	13.8	3.89
원가정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 정직, 존중,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0.2	0.0	17.0	60.3	22.4	4.05
원가정과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0.2	2.5	34.5	51.2	11.6	3.71
원가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원가정의 관심사를 공유하려고 하는 것	0.5	2.0	35.0	51.2	11.3	3.71
원가정의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원가정이 가능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0.2	0.7	23.9	59.6	15.5	3.89
원가정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0.7	2.2	35.0	49.5	12.6	3.71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과정, 그리고 아동 관련 프로그램 활동에 원가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것	1.2	5.7	38.2	43.6	11.3	3.58
아동의 원가정과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원가정이 자신들의 아동이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관계할 때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	0.2	1.0	32.5	52.0	14.3	3.79
아동의 원가정 구성원이 부모 혹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 기회, 자원 등을 제공하는 것	0.2	1.5	25.9	55.7	16.7	3.87
원가정이 아동 양육 및 기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이용가능한 서비스 정보들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	0.2	1.0	24.9	58.4	15.5	3.88

원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 하는 것	0.2	1.2	26.8	53.7	18.0	3.88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활동에 원가정을 참여시키는 것	1.0	6.2	37.2	43.6	12.1	3.60
원가정의 신념과 원가정 문화를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0.2	3.0	33.7	51.0	12.1	3.72
원가정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지지들을 제공하는 것	0.2	1.2	31.3	54.2	13.1	3.79
원가정마다 원하는 서비스가 다양함을 잘 아는 것	0.2	1.7	27.1	54.7	16.3	3.85
원가정이 원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	0.2	2.5	35.5	48.3	13.5	3.72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원가정의 욕구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0.2	0.7	28.1	56.9	14.0	3.84
좀 더 많은 원가정과 폭넓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나의 역할을 잘 조절하는 것	0.2	1.2	30.3	51.2	17.0	3.83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13) 그룹홈의 주요 기능(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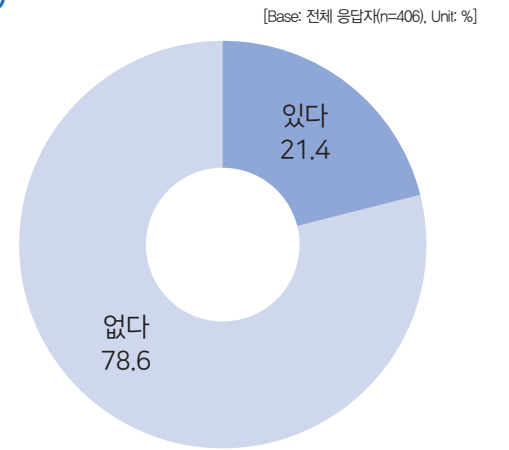
그룹홈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룹홈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로 꼽힌 것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 기능으로, ‘양육능력이 없거나 양육이 적절하지 않은 원가정 대신 아동을 양육한다’였다. 일시적인 아동 양육 기능(‘원가정이 아동을 키울 준비가 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한다’)까지 포함하면, “양육” 기능을 압도적으로 중시(1순위 응답 기준)하였다. 양육 다음으로는 “자립 지원”, “원가정 복귀”를 중시하였는데, “양육” 기능에 대한 강조에 비해 응답 비율이 크게 낮았다.



[그림3-16] 그룹홈의 주요 기능(중복응답)

14-1)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경험(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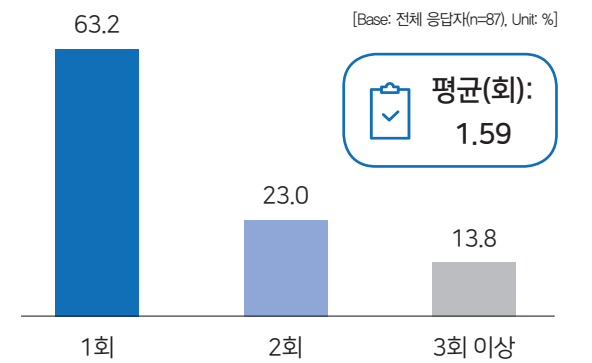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외부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21.4%만이 교육 이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3-17] 2019년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경험

14-2)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경험(2019년)-교육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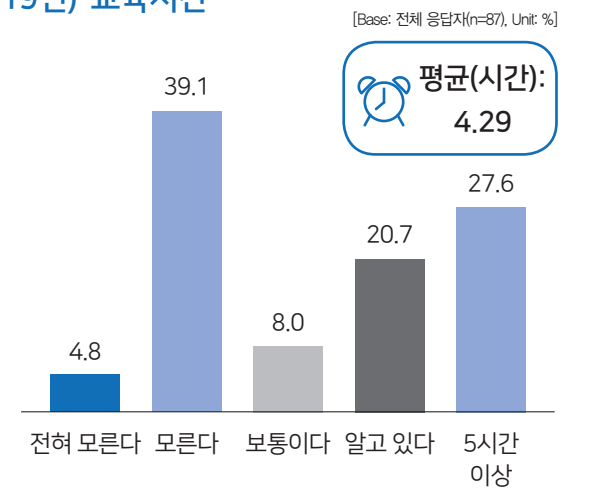
2019년,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횟수를 질문한 결과, 1회가 63.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1.59회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18]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의 횟수

14-3)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경험(2019년)-교육시간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들은 평균 4.29시간의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교육이 39.1%로 가장 많았다.



[그림3-19]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의 시간

14-4)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에 대한 평가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외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조금 높았다.

〈표3-22〉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에 대한 평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5점 평균
교육내용	1.1	0.0	43.7	43.7	11.5	3.64
교육시간	1.1	0.0	47.1	43.7	8.0	3.57
전반적 만족도	1.1	1.1	48.3	36.8	12.6	3.59

[Base: 전체 응답자(n=87), Unit: %]

14-5)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교육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 ‘새롭지 않은 교육’, ‘구체적이지 않은 교육’등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로부터 “현실에 맞는, 다양한 사례 중심의 전문적 교육”에 대한 선호를 읽을 수 있다.

〈표3-23〉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교육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 (중복응답)

	전체		전체
사례수	(48)	사례수	(48)
교육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18.8	교육 내용이 정확했으면 한다	2.1
없음	18.8	교육이 이론적이다	2.1
교육이 새로운 내용이 없다	14.6	교육이 다양했으면 한다	2.1
교육이 실효성이 낮다	10.4	원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지 않는다	2.1
모름	10.4	원가정 복귀에 대한 원가정과 아동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	2.1
교육이 구체적이지 않다	6.3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한다	2.1
원가정 복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6.3	지속적인 지원이 됐으면 한다	2.1
아동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다	4.2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1
강사가 전문적이지 않다	4.2	교육이 아닌 인력 지원의 문제이다	2.1
교육이 객관적이지 않다	2.1	아이들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다	2.1

[Base: 전체 응답자(n=48)Unit: %]

15)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향후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주관식 답을 작성하도록 한 결과, 부모 교육, 상담 교육, 원가정 복귀에 필요한 정보 관련 교육, 의사소통 기술 교육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24〉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중복응답)

	전체		전체
사례수	(406)	사례수	(406)
모름	11.3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가족의 의미 교육	2.0
부모 교육	9.1	원가정 부모에 대해 아동양육태도 개선 교육	2.0
상담 교육	8.4	개입 기술 교육	1.7
원가정 복귀에 필요한 정보 관련 교육/가정 복귀 준비 교육	8.4	없음	1.7
대화/소통 기술 교육	7.9	행정업무 교육	1.5
독립 교육/자립 교육/자립 지원 교육	5.7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1.5
원가정 복귀한 아동의 사례	5.7	현실적인 내용/현장 적용 가능한 내용	1.2
아동심리교육/심리교육	5.4	다양한 교육/전반적인 교육	1.2
원가정 부모에 대한 이해 교육	5.2	원가정 역량 강화 교육	1.0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교육	5.2	아동 교육	1.0
원가정의 문제 파악 기술 교육 / 원가정 판단 역량 강화 교육	4.4	(교육보다)예산 지원을 통해 정기 사업화해야 한다	1.0
원가정에 대한 지원 관련 교육	3.9	아동 양육 교육	0.7
원가정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 원가정과 관계 맺기 교육	3.7	원가정 환경 개선 방법 교육	0.7
가족 관계 회복 관련 교육 / 아동과 부모의 갈등 해결 방법 교육 / 거리감을 좁히는 교육	3.2	그룹홈 역할에 대한 교육	0.7
다양한 사례	3.0	기초 교육/전반적 개념 교육	0.7
원가정 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2.2	아동 대상 직장생활 교육/직업 교육	0.7
아동에 대한 이해 교육 /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2.2	아동 대상 대인관계 교육	0.7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	2.2	아동 대상 경제교육	0.7
지역사회 연계 방법 교육	2.0	아동과 원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0.7

[Base: 전체 응답자(n=48)Unit: %]

* 전체 응답 기준 상위 0.7% 이상만 따로 표시함.

16) 원가정 복귀를 위한 그룹홈의 역할

원가정 복귀를 위해 그룹홈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동에게 원가정 복귀 후 필요한 기술(방 정리정돈, 설거지, 부모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아동에게 교육하는 것, 원가정과

의 지속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뤄주는 것, 원 가정과의 연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 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봤던 ‘원가정 복귀를 위해 그룹홈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 결과(〈표 3-15〉)와 비교해보았다. 〈표3-25〉에서 그룹홈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평균 점수와 현재 실천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그룹홈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평균 점수가 거의 모든 문항에서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종사자들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현재 실천보다 더 많아져야 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지속적인 연락 주선’, ‘원가정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를 원가정 복귀를 위한 그룹홈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였다. 현재의 실천과 그룹홈이 담당해야 할 역할 간의 평균 점수 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컸던 문항은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원가정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제공 혹은 연계’, ‘원가정 복귀를 위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아동 담당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었다. 그룹홈 종사자들은 현장 경험을 통해, 사후관리, 원가정에 대한 지원, 관련 조직 간 협력 등이 필요함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표3-25〉 원가정 복귀를 위한 그룹홈의 역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룹홈 역할에 대한 평균 점수	현재의 실천 평균 점수
지속적인 연락을 주선(예, 주말/방학/명절 때 방문)한다	0.5	1.2	15.8	55.7	26.8	4.07	4.12
연락에 필요한 예산(예, 교통비)을 지원한다.	1.5	3.2	21.2	52.7	21.4	3.89	3.87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어준다.	1.5	3.2	12.8	60.3	22.2	3.99	4.00
원가정 복귀 후 필요한 기술(방 정리정돈, 설거지, 부모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아동에게 가르친다.	0.5	1.0	8.6	58.4	31.5	4.19	4.15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어려움을 듣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3.2	4.9	24.1	52.5	15.3	3.72	3.60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혹은 연계한다.	3.4	7.6	27.1	48.5	13.3	3.61	3.28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예, 그룹홈 내 활동, 학교 활동 등)를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예, 카톡, 문자 등의 SNS 활용).	1.2	4.2	27.1	50.0	17.5	3.78	3.68
원가정 복귀를 위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특정 목표에 따라 여러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도 하는 경우)을 실시한다.	3.0	7.9	33.5	43.1	12.6	3.54	3.17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활동에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를 참여시킨다.	4.7	14.3	32.8	38.2	10.1	3.35	3.19

원가정 복귀 이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4.2	5.7	28.8	47.8	13.5	3.61	3.24
원가정 복귀를 위해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자체단체(예, 담당 공무원, 드림스타트 등)와 협력한다	2.0	2.5	23.4	54.9	17.2	3.83	3.48
원가정 복귀를 위해 보호대상아동 관련 지역 사회 유관기관 (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협력한다	2.0	3.2	24.4	54.2	16.3	3.80	3.44

[Base: 전체 응답자(n=406), Unit: %]

〈표3-26〉 기타

	전체
사례수	(4)
원가정 양육 환경에 대해 파악한다/원가정 복귀가 아동에게 안전한지 확인한다	75.0
원가정 부모가 그룹홈 방원을 원할 시 허락한다	25.0

[Base: 기타 응답자(n=4)Unit: %]

17) 희망하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중복응답)

그룹홈이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및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가정 대상 교육,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컸다.

〈표3-27〉 희망하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중복응답)

	전체		전체
사례수	(406)	사례수	(406)
(원가정 복귀 시)경제적인 지원/보조금 지원/예산 지원	31.3	원가정 복귀 역할을 담당할 전문기관 필요 / 전담팀 따로 구성	2.0
인적 지원/전문가 투입	15.8	부모 지원/원가정 지원	1.7
부모 교육/원가정 교육/가정 교육	9.9	원가정 양육태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1.5
심리 상담 지원/심리치료 지원	9.6	물질적 지원	1.2
모름	6.7	취업 지원	1.2
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발굴	5.9	원가정과의 관계 개선 지원	1.2
자립 지원	5.4	원가정에 대한 상태 파악 필요	1.2

교육/교육 지원	5.4
원가정 복귀 후 사후 관리	4.7
지속적인 사후 관리	2.5
지속적인 관심	2.5
그룹홈에 재정 지원/운영 보조금	2.2
원가정의 역량 강화 지원/원가정 환경 개선 지원	2.2
사례 관리	2.2
다양한 지원	2.0
역량 강화 교육	2.0
아동 교육/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 교육	2.0

[Base: 전체 응답자(n=48):Unit: %]

주거 지원	1.0
자립 교육	1.0
원가정 복귀의 이해에 대한 교육	1.0
아동의 원가정 적응 지원	0.7
전문적인 교육	0.7
소통 기술 교육	0.7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0.7
다양한 서비스 제공	0.7
매뉴얼 필요 / 원가정 복귀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	0.7

* 전체 응답 기준 상위 0.7% 이상만 따로 표시함.

5. 소결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평균 5.4명
연락할 원가정이 있는 아동은 평균 4.3명
원가정과 연락하는 아동은 3.7명

원가정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것

- 원가정이 연락할 상황이 아님(달라지지 않은 원가정)
- 원가정 복귀 후의 아동에 대한 염려

원가정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

- 아동의 바람
- 원가정 복귀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원가정과와의 연락은 종사자의 당연한 책무라는 인식)

원가정 복귀를 위한 그룹홈의 현재 실천(평균값 높은 순)

- 아동에게 원가정 복귀 후 필요한 기술 교육
- 지속적인 연락 주선
- 아동이 원가정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에 개입

그룹홈이 담당해야 할 역할 (평균값 높은 순)

- 아동에게 원가정 복귀 후 필요한 기술 교육
- 지속적인 연락 주선
- 아동이 원가정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에 개입



현재의 실천과 담당해야 할 역할 간의 차이가 큰 영역

-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 원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혹은 연계
- 원가정 복귀를 위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 아동 담당 지자체와의 협력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

- 현실에 맞는 다양한 사례 중심의 전문적 교육(원가정의 “참여”에 주목한 교육 필요)
-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지원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

IV

관계자 대상 질적연구

제1절 그룹홈 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제2절 생활인(아동) 대상 개별 면접



제1절 그룹홈 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그룹홈 시설장 및 보육사(실무자)의 실천 경험은 원가정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실천적 노력을 발전시키 데에 중요하다. 이들의 경험을 수렴하기 위해 총 3회의 FGI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FGI는 수도권의 시설장과 보육사(실무자), 두 번째 FGI는 비수도권의 시설장과 보육사(실무자), 세 번째 FGI는 서울지역의 시설장들로 집단이 구성되었다. 3개의 FGI 집단 참여자들은 시설장 8명, 보육사(실무자) 6명이었고, 3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분포를 보였다. 경력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경력을 제외하고 그룹홈에 종사한 경력만은 1년부터 30년까지 다양했다. 성별은 남성이 3명, 여성이 11명이었다. 각 FGI에서는 집단 참여자들이 시설과 개인 차원에서 원가정 복귀를 위해 시도했던 노력과 과정, 원가정 복귀를 시도/추진했을 때 중점을 둔 것, 성공적인 사례, 실패한 사례, 원가정 복귀를 시도/추진했을 때 어려웠던 점,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 원가정 복귀를 돕는(촉진하는) 요인과 어렵게 하는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주제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가정 복귀를 위해 시도한 노력



1) 관계맺기 및 연락유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원가정 복귀가 아동보호의 방향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원가정 복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원가정과의 소통과 관계유지였다. 특히, 소통과 관계유지는 부모-아동 관계 회복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내가 애들 막 이렇게 애들 행사 같은 것 있고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사진을 보내주고 애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키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항상 해주거든요.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죠. 이렇게 소통 안 되니까 (시설장1)

진짜 이 원가족 복귀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만 잘 키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의 부모하고도 저희가 늘 소통을 하면서 그 부모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고 어떠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자꾸 자극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이러한 상태이고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아빠나 부모들은 어떤 마음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라고 압압리에 자꾸 소통을 하고.(시설장 5)

경제적인 능력은 원가정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더니 올해에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보육사(실무자)4)

2) 만남/외출/외박

원가족과 아동의 만남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가족의 그룹홈 방문, 아동과 원가족이 함께 외출, 아동이 원가족과 함께 숙박하며 지내기 등 상황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입소 초기에는 단시간 만남에서부터 시작하여 원가족과 관계가 회복될수록 여러 날의 외박까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접촉 기회를 갖고 있었다.

그런 여건이 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부모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만들어주고는 있어요. (시설장 3)

전화해가지고 와라. 와서 보고 가라. 우리는 하나도 청소도 안 해놓고 그대로 있는 모습 보여 줄 테니까 와서 보고 당신이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와서 바로 못 가게 해요. 한 시간 앉아있으라고 해요. 그러면 봐. 이 아이가 뭘 하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냉장고 열어서 뭐 꺼내 먹고 요리 만들고 우리는 그제 좋잖아요. 같은 대형시설보다 좀 지가 뭐 꺼내먹고 이런 것 보면서 아 편하구나 이걸 느끼고 가니까 안심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 회복이 그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시설장 3)

이제 그런 상태여서 아이가 이제 주말마다 아빠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는 애를 키우고 싶어했고 아이도 너무나 집에 가고 싶어해서 저희를 집에 가고 싶다고 들들 볶았어요. 밤마

다 맨날 울어. 집에 가고 싶다고 우니까 그러면 한 번 처음에는 한 달만 살아보자 아니 처음에는 일주일만 가서 살아보자. 그리고 와서 또 하고 한 달 가서 살아보자. 그리고서는 3개월 가서 살아보자 이런 기간을 주고 아빠하고 이제 저희가 퇴소 처리를 해서 애가 나가게 되었어요. (보육사(실무자)3)

3) 아동 준비시키기

참여자들은 원가정 복귀에 있어 복귀 후 가족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아동 뿐 아니라 부모도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룹홈의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개입까지 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준비시키는 내용은 부모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도록 해주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부모에 대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며, 행동적 측면에서 일상생활기술이나 생존기술, 금전관리, 자기 안전보호 같은 것들이었다.

(1) 부모에 대한 인식과 감정 다루어주기

아동들은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스스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재결합을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어 주거나 부모의 상황에 대해 이해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애가 얼떨결에 하는 말이 우리는 버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버림 받은 게 아니야. 엄마가 지금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보니까 너희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연락을 안 하고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설장 1)

아이들도 마음에는 부모보다는 시설에서 산 세월이 많기 때문에 힘들면 여기가 더 그립지. 아까 그 아이가 (아빠가 자길)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네(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게 변뜬 나 온다는 거죠. (시설장 8)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부모에 관한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서 상처 안 받도록 또 치유되도록 자꾸 서로 한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경우가....(시설장5)

(2) 일상생활기술 가르치기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를 돕기도 하고 자기관리 차원에서 많은 일상생활의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들을 그룹홈의 아동들은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원가정에 복귀하면 스스로 해내야 하는 것들이 많기에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가정 부모님의 의지에 많이 판단을 하셔서 의지가 강하시면 적극적으로 자립 같은 행동 같은 것을 미리미리 방 치우거나 자기가 먹은 그릇은 스스로 한 번씩 닦아 보거나. 그런 훈련 같은 걸.(보육사(실무자) 2)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요. 개는 진짜 왔는데 고2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활에 살림에 꼭 해야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가정에서 해야되는 것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그 아까 5학년 여자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 왜냐하면 엄마는 또 (시설장 3)

보호하고. 생활 습관 심어주는 것. 그래서 부모 만나서 부모가 경제적인 근처에 있고 되면 애들은 부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양식만 심어서 보내줘야지 그 외에 우리가 해줄 것은 없어요.(시설장6)

(3) 금전관리기술 가르치기

그룹홈의 아동들은 자립을 위해서도 스스로 금전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시설장들은 그 외에도 원가족이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그룹홈에 있는 동안 모아놓은 후원금 등 아동의 돈에 손대는 부모가 많아 금전관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냥 줄 생각이면 빌려주고 아니면 못할 테니까 엄마가 관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빌려주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주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3만 원씩 빌려주고 관계를 안 했더라고요 금전 관계를.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도를 해줘야 돼. (시설장 6)

이 아이들이 살면서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아빠가 다 써놓고 뭐야. 더 어려움이 쌓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시설장 8)

자립정착금 저희 예전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한 번 통해서 가서 그 아이와 함께 이 돈으로 우리가 자립금을 어떻게 쓰고 이런 이야기가 일련의 준비가 되는데 저희가 그것 신청을 할 때 아이가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계획서를 쓰지만 사실 그것대로 사용되지 않고. (시설장 7)

(4) 자기안전 확보 가르치기

그룹홈에서는 아동들에게 원가정 복귀 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학대나 방임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룹홈에 연락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가 되어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동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도망쳐 나온다. 그 자리를 피하라 이런 것도. (중략) 그게 학대 가정 아이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엄마는 또 화가 나거든요. 내가 일을 했건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화가 나니까 폭력이 간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걸 최소화해주기 위한 준비를 해주는 거죠.(시설장 3)

4) 원가족에 대한 상담

참여자들은 아동을 분리시킨 부모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들도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아동양육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아빠가 계속 나빠지고 누굴 죽이겠다고 칼도 갖고 나가서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됐으니까 저희는 바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아빠의 상황 말씀 드리고 저희한테 아이 맡긴 상황 모든 상황 말씀 드려서 아빠한테 이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속 치료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해서 지금은 그런 자활 센터에 가서 가지고 어쨌든 자전거 그런 일을 하세요.(보육사(실무자)3)

부모들한테 전화해서 계속 부모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정말 많이 해요(보육사(실무자)4)

원가정 훈련을 내가 계속 고2 때 시켰거든요 한 달씩 방학 때 가고 이렇게.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예뻐하는데 실은 새아빠니까. 애들을 막 안고 뽀뽀하고 그랬어요. 그것 못 하게 애네들도 이제 성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빠가 일곱 살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체 접촉하는 것 안된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아빠가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해서 아이들 키우는 양육법에 대해서 꼭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데려 갔어요(시설장1)

저는 부모님들한테 지금 같이 살 형편은 못 되지만 나는 널 사랑한다 항상 그걸 표현을 좀 해달라
그걸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시설장5)

엄마한테 대신 요청을 해요. 어머니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키웠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걸 최소
한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를 케어할 때에는 이것 이것 예를 들자면 아이가 돈 들고 나가서 그냥 친
구들하고 늦게까지 놀고 다니고 여자한테 막 악세사리 꾸미고 짧게 치마 입고 이런 것은 이렇게 이
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울리는 친구들도 이런 게 이런 게 있대요. 이런 친구들하고는 조금 줄
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엄마를 바꿔야 되겠다(시설장 3)

5) 캠프 등 특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그룹홈에서 가족캠프나 가족여행 등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부모의 관계회복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가족하고 원가족들을 불러서 같이 여행을 한 번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자.
한 번 해보려고요.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시설장4)

2. 원가정 복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 원가정 복귀를 촉진하는 요인

(1) 아동 요인

아동의 원가정 복귀 준비를 통한 변화는 부모에게 영향을 미쳐 복귀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아동의 긍
정적인 변화나 성장에 대해 부모들은 감동하기도 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아빠나 엄마가 성공케이스를 보면요 아이가 변한 모습에서 엄마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없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장8)

그렇게 1년이 지나갔는데 그 때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OO가 이렇게 변할
지 몰랐대요.(시설장8)

(2) 가족 요인

참여자들은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의 준비라고 하였다. 준비의 정도에 따라
아동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복귀 후에도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이 준비할 것
은 여러 가지이다.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기 위한 취업, 안정적이고 안전한 거주지
마련, 아동을 양육하려는 마음과 의지, 정서적 안정이나 치료 등 아동과 생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
을 준비해야 한다.

뭐 부부가 되었든 이혼을 했든 그러면 이 엄마가 엄마든 아빠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퇴소 후에
우리 아이들 자립하는 것처럼 부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렇게 해서
치료도 하고 어떤 사회적 진로 탐색도 해가지고(보육사(실무자)4)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준비 되었다고 보낼 수 없어요. 가서 살아야 될 그 가정의 준비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걸 우선으로 봐야 하는 거죠. 물론 열정 이런 것 좋죠. 떨어졌으니까 만나고 오고 하는
데 그런 기분이나 그런 것 가지고 자립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시설장8)

시설 뒤에다 집을 얻어서 엄마가 생활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딸들

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 돌보니까 시설에다 아이들을 맡기고 엄마는 엄마 생활 하니까 이 아이들은 시설에 있지만 시설 아동이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다가다 엄마한테 식당에 들렀다 오고 엄마는 아이들이 하교길에 지나가면 우리 아이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집에 가는지 그걸 보고 연락을 해주고. 그리고 주말 같은 때에 선생님 집에 엄마한테 갔다 올게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밝게 자라고.(시설장5)

지금 말씀하시는 것 부모 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우선이기는 해요. 애가 가려고 한다면.(보육사(실무자)6)

(3) 그룹홈의 요인

그룹홈에서는 아동과 원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준비 없이 의지만으로 재결합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했다. 따라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려면 많은 것을 선행하여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① 원가정 복귀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룹홈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시설장이나 보육사가 아동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원가족과 함께 살면서 성장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의 지향점을 가족재결합으로 삼는 일이었다.

저희 시설장님이 애네가 버림받지 않고 그래도 계속 부모하고 연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건 계속 지금 고집하고 계시는 거죠. (보육사(실무자)4)

원가족 복귀 자체를 거부 거절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저희는 조금 달라요. 그럴지라도 보내자 주의거든요. 저희는 원가족.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줘요. 정말 많은 걸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시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면 보내자 가 저희는 목적(시설장3)

그러나, FGI에 참여한 종사자들간에도 이러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원가정대신 그룹홈이 아동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나 종사자가 부모를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모와 함께 아동을 키운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종사자도 있었다. 그러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세부적인 활동과 전문적 행동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가 ‘버린’아동을 그룹홈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낳은 부모가 아닌 ‘기른 부모’라는 관점에서 무책임한 부모와 협력보다는 그룹홈의 책임감을 더 무겁게 갖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부모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일 수 밖에 없어 협력하기

는 다소 어렵다. 반대로, 부모와 함께 키운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아동과 부모간 접촉과 만남을 더 장려하였고, 시설장과 보육사가 부모와 함께 양육과 보호에 대해 함께 계획하거나 논의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같이 키우자. 그리고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간다고 그랬으니까 졸업할 때까지는 아빠도 도와주고 오며가며 키우자(시설장 6)

부모와의 관계 회복. 부모하고 시설. 저희 시설 입소 그러니까 학대 아동이라고 해도 입소했다하면 부모 오라고 해요. 와서 보고 가라. 아무 때고 저희 없어도 상관 없으니까 와서 봐라. 그래야 당신 믿고 우리하고 같이 같은 길을 갈 수 있다.(시설장 3)

그게 원가정도 네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너를 이렇게 양육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안 주게 하고 이런 상태라는 설명을 하계끔 내가 가르쳐서. 원가정 큰아빠 큰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아이한테 랩을 하는 걸 내가 다 들었잖아요. 그걸 녹음을 해서 보내줬어요. 애가 이렇게 어렸을 때 아빠를 어찌고 나는 어린이시설에서 이렇게 있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너를 언제부터 양육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시설장 1)

첫 번째 우리집에서 전화하면 10분 이내로 올 수 있는 데로 집을 옮겨라. 두 번째 애 양육비 대라. 먹는 것 말고 치료비. 심리 치료 같은 건 돈이 없잖아요. 그걸 계속 시키니까 돈이 엄청 들잖아요. 이것 대줘라. 이런 조건 다섯 가지를 제가 했더니 아빠가 생각을 해본대요.(시설장8)

② 가정환경에 대한 점검

그룹홈에서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준비하는 사항 중 중요한 것은 가정환경에 대한 점검이었다.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 뿐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상태, 아동을 방임할 가능성 등의 부모의 상황 뿐 아니라 아동이 다닐 학교의 위치, 전학 절차, 지역사회자원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검토하였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냥 원한다고만 해서 이게 아니라 그 부모들의 상태 가정생활 이런 것 다 점검해보고 알아봐야 돼요. (시설장8)

③ 가족관계에 대한 개입

단순히 빈곤으로 인한 분리가 아닌 경우, 아동과 부모들은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분리되어 생활하면서 오해가 쌓이기도 한다. 그런 경우 참여자들은 부모와

아동 간 중재를 하기도 하고, 관계에 개입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관계가 좋아야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우리가 케어를 해야 해.(시설장3)

그랬더니 새 아빠가 자기를 미워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이모가 이야기 할 테니까 이걸 저도 이제 컸으니까 이 부분 못 해요 이야기 하라고 했어. 그 래가지고 아빠 오시라고 해서 내가 그 부분은 해줬죠. (시설장1)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해가지고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 상처가 있으면 아물 수 있게 아물 때 까지 인내를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고 부모가 데리고 갈 자세가 되어 있으면 보내는 거고 정말 또 부모가 못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이하고의 관계는 끊지 말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시설장5)

④ 후원자 연결

참여자들 중에는 아동들에게 후원자를 연계하여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돌봄에 대한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그룹홈 외에도 아동에게 지지체계 역할을 담당한다.

내가 보내는 장애 애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애한테 후원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주말에 또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이런 분들을 옆에 가까이 집을 얻어줘요. 가까이에다가, 가까이 에다가 얻어 주면서 애를 조금 돌봐주세요. 애가 장애가 있고 하니까 돈도 조금 관리해주시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애네는 아기 때부터 엄마 라고 하기도 하고 누나라 하기도 이렇게 지내는 사이니까. 그리고 크게 나쁜 짓은 또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이.(시설장4)

(4) 부모와 그룹홈의 일관된 양육방식

참여자들은 아동이 원가정에 다녀와서 적응을 못하거나 방황하는 경우는 부모와 그룹홈의 양육방식이 다른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양육방법에 대해 서로 논의하거나 계획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훨씬 안정적으로 지내게 된다고 하였다. 일관된 양육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가족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 아이가 여기에 정이 더 많죠. 우리가 길렀으니까. 여기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여기에 와서 물어보면 해결해갈 수 있다는 것도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원가족에서 아이가 이런 문제.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활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정보를 주는 거죠. 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애가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런 것 까지 다 전수해주죠. (시설장8)

2) 원가정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

(1) 아동 요인

원가정복귀를 저해하는 아동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것은 아동이 원가정복귀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아동이 원가정복귀에 대한 동기가 없는 것인데, 어떤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재결합보다 자립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아동은 그룹홈에서의 생활을 더 원하다고 한다. 그것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아동이 판단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부모에게 상처받은 경우 등 맥락은 다양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 있어 공통적인 것은 부모-자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원가정 있어도 자립해서 혼자 살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집으로 가고 싶지 않고. 엄마가 원해도 이 엄마가 그 내가 자립을 해서 하면 내 그 자립금과 그 수급비와 이런 거를 다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왕래는 하되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보육사(실무자)6)

그런데 지금 아동도 조금 애매한 게 이미 여기(그룹홈과 전학한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자기도 굳이 가고 싶다 하는 느낌은 없고(보육사(실무자)2).

저희도 그렇고 아이 저희 아이들은 다 뭐 잘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저 같아도 우리 엄마랑 살고 싶고 우리 아빠랑 살고 싶은 마음은 그건 아이로서는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엄마 아빠가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착 관계가 안 되었거나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보육사(실무자)4)

어떤 아동의 경우에는 행동문제나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부모가 양육하기 힘든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발달과정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안하던 행동이나 통제되지 않는 행동 등을 통해 그룹홈이건 학교건 원가정이건 어디에서든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처 방법을 잘 모른다면 갈등의 소지가 많고 확대 가능성까지 예측해 볼 수 있다. 심지어 그룹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까 2학년 때 와가지고 지금 고1인 아이도 개는 완전 고아예요.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나서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벌써 다른 시설에서 저희한테 전원 되어 온 케이스예요. 도저히 못키우겠다고.. 그래서 딱 와가지고 한 달 되니까 야 오죽하면 너 보냈겠냐 초등학교 2학년 짜리를 보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선생님들이 재 좀 내보내면 안 돼요? (시설장3)

그 원가정에 간다고 해도 원가정 부모님들이 보통 힘들어 해요. 그래서 손님으로서 와서 잠깐 하루이틀 보면 좋은데 보통 아동학대로 왔기 때문에 자기도 ADHD나 그런게 많기 때문에 하루종일 붙어 있으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보육사(실무자) 2)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쯤 되면서 문제 행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담배를 배운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조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안 되니까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조르다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겨먹지 못하죠. 그리고 지능이 아버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시설장3)

아 애가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이정도인데 사춘기가 물론 사춘기가 왔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힘도 세지고 자기 주장도 강해지는데 도대체 우리가 재를 제재할 수 있을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보육사(실무자)6)

또한, 부모가 자녀보다 자녀가 가진 돈을 위해 재결합을 원하는 것처럼 아동도 부모와 함께 지내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탈통제가 가족재결합의 목적인 경우가 있다.

개가 엄마한테 가는 목적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엄마 집에 가니까 조금 자유롭고 핸드폰도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내심을 내가 아니까 (시설장3)

(2) 부모 요인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한 후, 잘 지내지 못하거나 다시 분리되는 상황에 영향을 주는 부모 요인은 부모가 양육의지가 없거나, 부모의 돌봄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때 등이다. 양육의지가 없는 경우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양육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아동보다는 아동이 모은 돈에만 관심

을 갖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된다. 동시에,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는 있으나, 아동을 데려가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재결합 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게 부모가 이게 지금 이게 딜레마예요. 부모가 자식이 오면 내가 어떻게 키우겠다 하는 부모는 10프로 밖에 안 돼요. (시설장1)

부모님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보내도 노(no) 해요 부모님이. 방학 때만. 명절 때만. 그런데(시설장1)

어릴 때는 연락 없어요. 고2, 고3 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대학을 가든 어딜 가든 돈을 벌 때가 되었고 컷잡아요. 그걸 이용하려는 거죠.(시설장8)

이래서 그러고 있는게 6개월 지나니까 이게(수급비)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니 애 내놓으라고(시설장1)

지금 아이가 고2거든요. 개 18세 성인 되면. 지금 그 경우도 애 엄마는 지체 장애인이에요. 의붓아버지가 지금 자기 얼마 수급비도 자기가 쓰고 있고 딸도 데리고 오려고 지금 계속 시청에 전화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걱정이예요. 나중에 개 졸업하게 되면 엄마한테 가야 할텐데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육사(실무자)5)

애들을 내가 도와주고 애들 키워야 된다 라는 생각보다 내가 당장 답답하니까 그거(수급비)라도 가지고 생활하고 싶어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시설장4)

부모들이 올 때 몇 천 만원 씩 생각하고 정착지원금 500만 원 받고 CMA 통장도 얼마큼 있고 그걸 2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와서 그 때는 막 우리 애~ 이러다가 돈 없으면 또 어느 순간 전화해보면 혼자 살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시설장7)

또한, 어떤 부모는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로 인해 아동양육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동이 부모의 장애를 모두 감내하긴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여 분리와 재결합이 반복될 수도 있다. 장애가 없더라도 일상생활과 돌봄이 되지 못하는 부모도 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원가정 복귀 후 아동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조현증 이런 것 앓는 분들은 100 퍼센트

아이가 다시 방임돼. (시설장1)

나 집에 가도 아빠랑 있기 싫어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개를 바이올린을 데려다 주면서 차로 항상 데려다 주다가 그 날은 걸으면서 애가 평상시에 말을 많이 안 해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에 가면은요 아빠가 설거지를 이만큼 쌓아 놓고 양말이 침대 밑에 가득 있고 너무 지저분 해요(시설장1)

둘을 맡았는데 엄마가 주변에 있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그 뭐죠? 그 연립 주택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LH 하는 것 그걸 하나 해서 줘서 보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애가 학교를 안 왔대. 00이 엄마하고 사는데 왜 학교를 안 오냐고. 엄마가 애들한테 뭐 밥늦게 두 시 세 시까지 PC방 가서 게임하고 와서 아침에 와서 못 일어나가지고 밥도 못 먹이 고 학교도 못 보내고, 제대로 씻기지도 않고. 이런 엄마도 있어요.(시설장6)

지금도 잘 지내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고 싶은 때 자고 학교도 가고 싶은 때 가고. (시설장3)

(3) 그룹홈 요인

원가정복귀에 대해 아동과 부모를 준비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그룹홈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족재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동을 어디서 보호,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없고, 원가정복귀 이후의 아동의 삶이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을 보낼 수 밖에 없는 딜레마를 경험하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여러 명의 아동을 돌보고 양육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두기도 한다. 또한,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 원가족을 만날 수 없는 아동을 배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원가족 만남을 추진하기도 마음이 불편하다.

① 아동보호배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현재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보호배치의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소 및 퇴소 등 아동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양육을 책임져 온 그룹홈에 무력감을 주기도 한다. 원가정복귀에 대한 관점, 부모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에 따라 무력감이 느껴지는 정도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무력감은 그룹홈 종사자와 부모, 아동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원가정복귀에 대해 그룹홈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한다.

저희도 이번에 가고 싶어 하던 애가 안 된 이유가 지자체가 아동보호센터에서 안 된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서. (보육사(실무자)10)

엄마가 원해서 너무너무 거기를 못살게 군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군게 아니라 나는 그냥 콧방귀도 안 뀌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자기는 업무 상에 힘드니까 사인을 하게 한 거예요. 퇴소 처리를 한 거죠. (시설장1)

② 원가정복귀에 대한 확신 없음

원가정복귀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종사자들이 원가정복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또한, 원가정복귀 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아동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종사자들이 원가정복귀를 준비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든다.

엄마랑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기에서 잘 크는 게 좋은 것인지 참 모르겠어요 진짜. (보육사(실무자)6)

개가 이제 집을 구하면서부터 아빠가 살고 계셨어요 인근에.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 내비쳐서 집을 구할 때에도 방이 두 개 이상인 집을 구해서 가고 살고는 있는데 (중략) 그렇지만 애가 아빠를 되게 원했어가지고 같이는 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아빠랑 같이 살게 놔두는 것이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든게.(시설장7)

아이들은 어찌 되었건 친부모 한테서 크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룹홈에서 일을 한 경험치로 보면 아직은 짧지만 한 3년이라는 경험치로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제 느끼고 저희 그룹홈에서도 선생님들 하고 회의할 때 그런 것이 진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보육사(실무자)3)

③ 무연고 아동에 대한 배려

또한, 그룹홈 입장에서는 무연고 아동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모를 만나는 친구들을 보며 상처를 받거나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될 무연고 아동에 대해 종사자들은 당연히 신경이 쓰이고, 이런 마음은 원가정 복귀를 위해 준비하는 활동을 위축되게 하거나 종사자 개인의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저학년 애들이 재는 갔는데 나는 못 갔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 상황은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더라고요.(보육사(실무자)2)

그 중에서도 명절 때 못 가는 애들이 막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 쉬게 하고 제가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요.(시설장1)

못 가는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빨리 보내고 저 같은 경우는 나머지 애들을 데리고 야 여행 가자.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뭐 펜션 얻어가지고 놀아 버린다. 야 너네도 못 가 나도 못 가. 그걸 보여주는 거지. 너네도 못 가 나도 못 가잖아. 그냥 못 가는 사람들끼리 노는 거야 그렇게.(시설장3)

④ 부모나 가족관계에 대한 개입이 어려움

참여자들은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아동을 돌보는 일에 주력하다보면 부모나 가족관계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어려움은 기본 가사 일을 포함하여 아동양육과 돌봄에 필요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부모의 문제들은 복합적이나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식이나 대처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거기(부모) 까지 생각하기가 너무 버겁죠. 저희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는 아이들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시설장8)

그룹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육사(실무자)2)

나는 진짜 도우미, 가정도우미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가사일이 뭐예요. 청소 빨래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저는 선생님 새로 오시면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미리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일을 하다보면 은연중에 내가 파출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참 염려되더라고.(시설장6)

3) 복귀 후의 가족갈등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활상의 갈등이 계속 발생한다. 상황적인 갈등일 수도 있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른 발달적 갈등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은 원가정 복귀를 직접적으로 저해하기도 하지만, 갈등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재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누나가 다른 그룹홈에 살고 그래서 누나가 결혼하면서 같이 이렇게, 누나네 집에 살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 동안에도, 그래도 고등학교 까지 졸업을 했더라고요(시설장8)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가 가지고 부모랑 교감을 해도 결과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할 때에는 부모가 아이를 키워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 방식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꼭 금전적인 게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좀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보육사(실무자)4)

(아빠와 같이 살기로 하고 복귀한 후) 애가 중학교가 되어서는 아예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간다고.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너 어떤 학교를 원하니 그래서 애가 원하는 학교 조금 더 화장도 자유롭고 뭐 이런 학교로 보냈어요. (중략) 신고를 받고 아빠가 찾으러 갔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애를 때린 거예요. 그냥 확 때려버리셨나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말은 거칠게 나가셨겠죠. 거기에 있던 보던 사람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랑 아빠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중략) 그래서 지금은 또 아동학대로 지금 분리 되어 가지고 (보육사(실무자)3)

3. 실천경험에 기반한 종사자 제언



1) 복귀후 에도 지지체계가 되어야 하는 그룹홈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원가정복귀가 끝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룹홈은 아동에게 또 하나의 가족 혹은 지지 체계가 되어 퇴소 후 원가족과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모나 삼촌과 같이 어려움이 있거나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 하고 찾아오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인과 개인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개인은 보통 시설장님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 법인은 시설장님이 자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가정 복귀 시키고 자립 시켰는데 애가 잘못 되면 돌아올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시설은 시설장님이 바뀌지 않게 되면 웬만하면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육사(실무자)2)

아이가 집에 가 가지고 좀 정착을 할 수 있으려면 저희의 문제가 뭐냐하면 아빠가 가요. 아빠나 부모님한테 양육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연락하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관계를 안 하면 애네는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육사(실무자)4)

(퇴소 후 오랜만에 연락된) 애 데리고 미혼모시설로 갔어요. 미리 연락을 해놨죠. 다 알아보고, 데리고 가가지고 상담 하면서 지금 입소해야 된다. 자기 집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저녁에 갖다줄게.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입소를 시키고 저는 와서 저녁에 집에를 가봤어요. 엉망인 거야. 혼자 밥도 제대로 안 먹었죠. 그러니까 병원도 한 번도 안 갔다더라고요. 애 상태도 모르겠고. (시설장5)

애가 전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너 이 쪽으로 올래?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은 아니고요 이모가 있으니까 그 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있을 거래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한 12월 달에 방학하기 전에 또 (다른) 그룹홈에 갔다는 거야. (시설장6)

2) 원가정 복귀 성공/실패의 기준은 가족재결합이 아니라 그 후에도 잘 지내는 것.

원가정 복귀로 그룹홈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는 경험에서, 참여자들은 원가정 복귀의 성공이나 실패의 기준은 그룹홈을 퇴소하여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가족과 함께 계속해서 잘 생활하는 것이 성공한 원가정 복귀라고 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동이 발달/성장해가고, 아동과 가족의 생활도 처해있는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가족관계가 적절히 기능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가족으로 돌아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언제든지 그룹홈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원가족 복귀가 여럿 있었는데 크게 성공한 케이스는 드물어요. 철저하게 여기에서 준비하고 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지내요. 진짜 잘 해요. 이 정도면 내놔도 전혀 손색없어 했는데 나가면 집으로 가더라도 그게 다 깨져 버려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미안한 마음에 한없이 풀어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아이가 약간 엄하거나 어떤 규칙 안에서는 잘 지냈는데 좀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걸 스스로가 컨트롤 못 해서 실패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가지고. (시설장3)

3) 복귀 후에도 서비스 지원이 유지되어야 함

참여자들이 의하면 어떤 아동들은 원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그룹홈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혜택이나 도움이 중단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혜택이나 도움은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성장지원에 필요한 것이라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가정복귀) 가면 아이가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생활이 안 될 것이 뻔하니까(보육사(실무자)4)

부모가 내가 아이들 데려가겠다 그랬을 때 동사무소나 지자체에서 개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좀 채워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모는 정말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또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의 환경을 정말 그 인격 같은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와서 정말 조금 경제적인 부분만 조금 보탬

이 된다면 괜찮겠다. 한다면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정신적으로나 그런게 안 되었다면 못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은 조금(시설장5)

(복귀후) 중간의 역할을 어느 기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맡아서 해줄 기관이 없다면 기존에 그 룹홈에서 해줬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시설장7)

4) 분리 유형에 따른 접근

참여자들은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된 사유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마다 가족관계에 대한 목표를 달리해야 할 필요도 있으며, 살피야 할 내용도 다르다고 하였다. 대개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은 베이비박스를 경유하여 입소하는 무연고 아동들도 있지만 빈곤, 한부모,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 부모의 수감, 학대 등 다양한 사유로 입소하고 있다. 각기 다른 분리 유형의 가족은 처해있는 상황도 다르고, 회복해야 할 관계의 맥락도 다르고, 원가정복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도 다르다. 따라서, ‘일괄적인’ 원가정복귀 프로그램³⁾은 적절하지 않다. 사례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동학대를 해서 최근에 그래도 계속 2년 전부터 조금 관계가 원활히 되기는 했는데 어머니가 또 조현병 있으셔서가지고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자기 상태를 지금 아시기 때문에 아직은 키우기가 조금 어렵다. 아동도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다 (보육사(실무자)2)

그런데 부모 그렇게 알코올 된 그 부모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부모를 지도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못 미쳐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시설장 3)

거의 다 학대 가정이고 아보전이나 이런 데에서 오기 때문에 출발이 달라요. 원가족 복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아이들의 회복, 가정 자체 회복이 급한 거지 들이 합할 마음도 없고요. 부모하고도 그냥 마음이 좋을 뿐이지 합해졌을 때 문제점 아이들도 알고요. 지금 원가족 복귀는 생각도 아마 못 하고 있을 거예요.(시설장3)

3) FGI과정에서 느껴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그룹홈 종사자마다 약간 다른 것으로 보였다. 종사자들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일괄적이고 집단적이며 의도가 있는 활동을 종사자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고 평가까지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아동이 가족을 만나는 것이나 외출, 외박 등은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캠프 등과 같은 특별한 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들도 괜찮은데 경제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빠는 아이한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준비 되면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확대해가지고 알코올로 이런 사람한테는 굳이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지가 스스로 나가려고 할 때 까지는 여기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데리고 있을 것 같아요. (시설장4)

5) 그룹홈의 소통창구나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기관 필요성

참여자들은 아동을 양육하면서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동을 돌보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관계나 특별한 심리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는 동료 슈퍼비전이나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반적인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소통 창구로 좀 이용할 수 있께. 우리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중략)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가족 업무 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이제 발생이 되면 아 애네들 발생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런 지원센터에 그런 조직을 조금 전문가적인 분이 계셔서(시설장6)

6) 원가정복귀후 사후관리의 중요성

참여자들은 원가정복귀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사후관리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간에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할은 그룹홈이 아닌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직접 양육해온 그룹홈이 아동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원가정복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룹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1)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은 아동과 그룹홈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아동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동시에 아무 일이 없어도 지지체계로서 기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퇴소한 아이들 다 불러다가 같이 고기 먹기로 했는데.(보육사(실무자)6)

간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잘 지내고 있어서 좋은 케이스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 왔다갔다 해요. 그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고 또 저희 집 방학 때에는 와서 애들하고 같이 캠프도 나가고 같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냈어도.(시설장8)

(2) 악순환/분리사유가 다시 발생하는 일에 대한 대처

참여자들이 말하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원가정복귀 후 아동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가족과 재분리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그간 원가정복귀 후 잘 지내지 못하는 아동을 지켜봤고, 그룹홈에서 생활했더라면 더 나은 생활을 했을 것 같은 아동도 지켜봐왔다. 그러다보니 그룹홈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존재로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이 중간에 원가족 복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중간에 갔는데 아빠가 돌볼 수가 없어서 다시 오는 아이들도 있던 말이에요. (보육사(실무자)6)

한 명 아동 원가정으로 간 적 있는데 부모님도 원하고 아동도 원해서 갔는데 다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그룹홈 다른 데로 그룹홈인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보육사(실무자)2)

나는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그래도 있던 집(그룹홈)에 와야지 있었던 집에 와야지 다른 데 가서 또 어떻게 적응을 하나. 우리가 데리고 오자(시설장6)

그런데 갑자기 10월 달에 갔는데 1월 달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애한테. 그래서 어디니 그랬더니 모른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아빠는 피해 다니고 지들은 어디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에다가 애들 넣어놓고 아빠도 안 오고. 시간 되면 짜장면이나 이런 것만 넣어주고. 지네들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아니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짜장면집이 어디인지 좀 확인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조치를 하려고. 그런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6월 달에 다시 애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아빠는 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시설장8)

4. 소결



이상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는 원가정 복귀 자체가 아니라 복귀 이후의 생활이 안정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아동, 그룹홈 등 3개의 주요체계의 준비가 필요하였다. 같이 살고 자 하는 의지만으로는 잘 지낼 수 없으며, 잘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것이다.

원가정 복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가족과 관계를 맺고 연락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원가정 복귀를 촉진하는 것들에는 지속적인 연락, 만남, 외출, 외박 등 가능한 한 자주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원가정 복귀 후에도 아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아동을 통해 준비하는 과정도 필수적이다. 또한, 부모에 대한 이해, 부모에 대한 감정 다스리기, 일상생활기술, 생존기술, 금전관리, 자기안전 확보 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아동을 그룹홈에 보내는 부모들 중에는 상당수가 아동양육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가족관계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담할 필요도 있다. 이외에도 부모가 취업, 거주지 마련, 아동양육에 대한 의지, 심신의 건강 등이 원가정복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며,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은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사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룹홈 측에서는 원가정복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보존을 목표로 실천하는 것, 가정환경에 대한 점검, 가족관계에 대한 개입, 아동에게 후원자를 비롯한 지지체계 확대, 부모와 그룹홈의 일관된 양육방식 등이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제시되었다.

이에 더하여 참여자들은 복귀 후에도 그룹홈이 아동과 가족에게 지지체계가 되어야 하며, 원가정 복귀의 성공 혹은 실패의 기준이 가족재결합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 아동이 가족에게 복귀한 이후에도 사회복지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아동의 분리 사유에 따른 다른 접근, 그룹홈의 원가정지원에 필요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나 기관 등 마련,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도 확인되었다. 종사자들의 상이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보호체계 안의 아동들의 가족재결합은 원가정 복귀가 아닌 복귀 후 안정적인 생활이 목표가 되도록 실천의 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룹홈에 서 종사한 경력이 많을수록 원가정 복귀에 실패했던 경험이 많고 그로 인해 원가정 복귀라는 목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했던 사례는 모두 준비되

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결정하면 즉각 복귀시키는 등 단계적이고 의도된 계획 없이 이루어진 원가정 복귀였다는 점이 공통되었다. 원가족과 재결합한 이후, 아동의 삶이 더 망가지는 모습을 경험했다면 쉽사리 원가정 복귀를 찬성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그 실패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모 요인은 아동 양육에 대해 동기가 없거나 아동이 가진 제도적 혜택을 이용하려는 부모, 심신의 장애가 있는 부모, 그룹홈과 부모간의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아동의 혼란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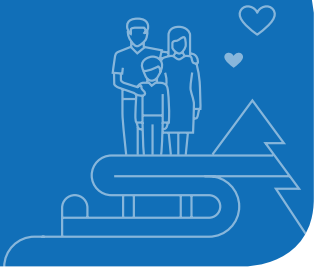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악순환의 반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삶이 어른들의 성급한 결정에 의해 변곡점이 많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진행될 원가정 복귀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1) 원가정 복귀 자체가 목적일 경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원가정으로 재배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삼고 성과지표로 삼을 때, 그룹홈에서 양육하기 힘든 정서/행동 상의 문제가 있는 아동은 덜 준비된 채로도 내보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2) 아동이 그룹홈에 배치되는 시점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신의 장애에 대해 종사자 대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룹홈에서 부모까지 교육하고 케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의미는 아동보호와 돌봄으로 인한 바쁨도 있지만, 부모들의 알코올, 지적장애, 조현병 등 그룹홈 종사자가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대처에 대한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다.
- 3) 원가정 복귀 후 아동의 발달과정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부모와 그룹홈의 양육방식 차이는 준비기간 부터 복귀 후까지 문제가 된다. 그룹홈에 아동이 배치되는 순간부터 원가정과 협력을 필수조건으로 하여 부모와 그룹홈이 일관된 양육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원가정 복귀를 촉진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요인들은 복귀후 원가족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요인도 있지만, 복귀는 했으나 잘 지내지 못해 결국 해체되거나 또 다른 그룹홈을 전전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동이나 가족의 의지로 재결합하였으나 가족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경우, 막연한 그리움이나 낙관적 기대만으로 복귀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문제가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원가정 복귀라는 상태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원가정 복귀라는 맥락 안에서 원가족 관계 회복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4장 관계자 대상 질적연구

제2절 생활인(아동) 대상 개별 면접



생활인(아동)(이하 아동) 대상 개별 면접은 그룹홈에서 생활하다가 보호 종료 전 원가족으로 복귀했거나 복귀계획이 있는 아동에 대해 1:1로 진행한 사례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의뢰하여 그룹홈 종사자를 통해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험이 있거나 준비 중인 아동 4명을 추천받았다. 추천받은 아동들의 경우 보호자나 아동에게 개별 연락을 했고 면접 목적과 과정, 결과 활용 등에 동의를 구한 후 개별 면접을 진행하였다. 아동은 여2명, 남2명이며 연령은 10세, 12세, 17세, 18세 각 1명씩이다.

이중 12세와 18세 아동은 이미 가정 복귀가 되어 가족들과 생활을 하고 있으며 17세 아동은 가정에 복귀된 후 3개월 만에 다시 그룹홈으로 돌아온 경험을 갖고 있다. 10세 남자 아동은 면접 1주일 후 가정복귀가 예정된 아동이다.

원가정 복귀 경험이 있는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룹홈 종사자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원가정으로 돌아간 후 대다수의 아동, 또는 보호자는 그룹홈과 교류가 적거나 연락이 안 되어 추천받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일부는 원가정 복귀 후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제 발생으로 타 그룹홈에 재입소하였기에 아동의 현재 행로를 추적하여 찾기 어려웠고, 부모들의 동의나 인터뷰 참여, 협조 요청도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4명의 아동에 대한 면접이 완료된 시점에서 아동 개별 면접을 종료하기로 현실적인 판단을 하였다. 개별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모두 녹취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 개별면접에 대한 내용분석은 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한 일과 준비과정, 원가정 복귀 후의 변화, 경험자로서 원가정 복귀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주제별 세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와 시도



1)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룹홈에서 보호받고 있던 아동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아동과 가족, 그리고 그룹홈의 노력과 간절함이 함축된 결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원가정 복귀를 위한 단계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에 대한 아동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전에는 아동을 힘들게 했던 사건과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 있었고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아동이 가족에 대해 갖는 생각,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욕구는 감출 수 없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은 부모에게도 전해지고 함께 살 수 있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엄마네 집에 왔다 가면 이제 좀 갈 때는 이제 갈 때 좀 슬펐던 거 같아요. 더 있고 싶은데, 방학이라고 생각하면 방학에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방학에 더 있을 수 있는데 엄마가 못 쉬니까 이제 더 못 있는 그런 게 좀 슬펐던 거 같아요. <사례 1>

그게 가족을 보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룹홈에서 잘해줘도 늘, 공허함, 허전함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그룹홈에는 말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가게 된거예요. <사례 3>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엄마랑 살래? 판 데서 살래?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을 잘못해서 판 데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룹홈에 왔어요. 엄마를 속상하게 한 거 같아서 여기 있으면서도 엄마가 계속 생각났어요. 엄마한테 말을 잘 못한 게 미안했어요. <사례 2>

엄마가 친아빠한테 예전부터 많이 맞아 가지고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그룹홈을 오게 되어 제가 그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룹홈에 있고 집에 없으니까 엄마는 계속 혼자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안 만나시고 매일 불 끈 채로 계속 있으니까.. 제가 다시 그룹홈에 갈 때도 엄마를 두고 온다는 미안한 감정도 그때 엄청 들었어요. <사례 4>

2) 가족과의 지속적인 교류

원가정 복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가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던 아동과 가족들의 만

남과 교류 속에서 싹틔우고 꽃피우는 과정과 같다. 가족이란 존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거나 단서가 붙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고 연락하고 삶을 나누면서 사랑을 쌓아간다. 아동과 가족의 교류는 외출이나 외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주말이나 방학 등을 이용하여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그 외에도 아동들은 부모의 연락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연락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서 끈을 계속 이어간다. 가족과 자주 만나게 되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동들은 비록 몸은 그룹홈에 있지만 늘 함께 한다는 공동의 연대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고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기 올 때부터 엄마랑 주말마다 만나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랬어요. 아마 얘기 때도 주말에는 엄마, 아빠 만났던 거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부터 쪽 그래왔단니까.. 주말에는 제가 엄마, 아빠 집에 갔어요. 방학 때도 매주 가요 그냥. 일상이예요. <사례 4>

그룹홈에서도 전화하게 해주는 데요. 무슨 일 말고 그냥 전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공중전화에서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는 병원에 있으니까 보고 싶어도 할머니한테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례 3>

엄마하고 만나면 동생들이 있으니까 주로 영화를 보러 가던가, 밥을 먹으러 가던가, 아니면 그런 키즈카페나 방방같은 데를 가던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요. 근데 저는 그냥 집에 있는게 좋아요. 딱히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엄마 집에 가는 게 기대가 돼 가지고 딱히 뭐 어디 안가도 엄마 집에 가는 게 좋았던 거 같아요. <사례 1>

3) 그룹홈과 가족의 의논 단계

가족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아동을 맞는 가족들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과정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동의 의사를 묻는 과정과 참여의 절차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그룹홈 선생님들과 가족들의 의논을 통해 가족과 살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아동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원래는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도 제가 자꾸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하고 의논하셨나봐요. 다른 동생들은 말고 저랑 첫째 동생만 가게 됐네요. 그룹홈에서 연말에 아이들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그걸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원장님하고 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나오게 되었어요. <사례 1>

사실 언제까지 그룹홈에 있을지 몰랐는데 외할머니가 엄마가 이제 퇴원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저
도 집에 간다고 했어요. 한 달 전에 이제는 엄마랑 살게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엄마랑만 살꺼
고 아빠는 감옥에 갇고 앞으로는 엄마와 할머니랑만 산다고 여기 삼촌이 말해주셨어요. <사례 2>

처음에는 제가 우겨서 완전 퇴소로 얘기가 됐는데 저희 엄마가 아니다, 일단 엄마가 자기 집에서
몇 개월 동안 보고 상황을 보게 해 달라 이모들하고 의논하고 얘기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엄마 집
에서 살게 된 거예요. <사례 4>

4) 아동과 가족, 그룹홈의 역할 확인하기

원가정 복귀 준비 과정에서 그룹홈과 가족들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아동들과 의논되지 않다보니 아동
의 눈에는 이러한 점이 잘 비춰지지 않는다. 결국 아동들은 집에 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어
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조금씩 인식하거나, 집에 온 후에 그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아동 자신들이
그룹홈에서 있을 때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발달 시기에 따른 일상생활이나 학업, 타인과의 관
계 맺기 등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룹홈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살
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도를 통해 아동들은 원가
정으로 복귀하기 전 자신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파악한다.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원장님이 집에 가기 전에 뭘 해야 하지? 그렇게 물으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집에 가면 공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물어보고 문제집도 혼자 풀었어요. 수학은 엄청
잘하게 되었어요. 근데 집에가서 동생이랑도 싸우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례 2>

엄마가 일을 밤에 하시니까 제가 동생이랑 둘이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엄마한테 근
무 시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를 데려오시면서 cctv
를 거실에 달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구요.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되었어요. <
사례 1>

이모들이 제가 집에 가면 숙제도 안하게 될까봐 계속 걱정하고 학교 늦을까봐 매일 확인하고 그래
서 잘 하겠다고 약속하고 저도 계획표를 막 썼죠. <사례 4>

2. 원가정 복귀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



원가정 복귀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결국 세 주체인 아동과 가족, 그룹홈이며 그 각 주체가 갖는
특성과 욕구에 따라 과업과 내용이 드러난다.

1) 아동요인

(1)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

아동들이 그룹홈에 올 때는 그 사정과 이유가 다르지만 부모들보다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막
연히 언젠가는 집에 간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다른 친구들을 보게 되면서 언제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
각은 희미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호기심, 가족과 생활하고 싶은 욕구 등
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확고한 의
지를 갖게 되는 것은 실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어차피 다시 엄마 집으로도 갈 거고 엄마도 자주 만나러 오시고, 그냥 그래도 엄마랑 자주 만나고
그냥 잠시, 제가 어릴 때도 24시간 어린이집에 예전에 다녔는데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
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가 다시 집으로 데려올 거라는 믿음, 이런 게 좀 확실히 있었
던 거 같아요. <사례 1>

집에 언제나 전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교 때문에 못가는 거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형편이 안 된거고 제가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 거 땀에 그룹홈
에 있는 거지 가족한테 그런 생각은 안해 봤어요. <사례 3>

제가 아주 얘기 때부터 4살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학교에 친구들 있는데 친구들은 자기 가족
들이랑 오래 있고 또 약간 자주 놀러 다니기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모들이 아닌 진짜 엄마, 아빠
랑 살면 어떨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게 늘 궁금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이게 점점, 호기심이
들었어요.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도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어떤
감정일까? 쪽 이렇게. 여길 아예 끊고 여기 살면 어떤 감정일까? 행복할까?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사례 4>

(2) 자유에 대한 갈망

사춘기 시기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유는 숨 쉴 때 필요한 공기와도 같을 것이다. 그룹홈에서의 집단생활은 아동들에게 돌아갈 집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된다.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이 커질수록 아동들의 반항심도 커지고 아동들과 그룹홈 종사자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망이 높아질수록 그룹홈에서의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되고 한번 발동이 걸린 마음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게 되기도 한다.

그룹홈에서는 화장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 용돈도 내 맘대로 잘 못쓰고 이런 점이 좀 힘들었어요. 그룹홈에서는 자유가 없는 게 불편했어요. 거기서 가면 군것질을 일단 못했어요. 군것질도 못하고 제가 화장품도 몰래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화장품 사려고 하는데요, 하면 안 된다고 하실 게 뻔하니까. 화장품도 안됐고 군것질도 안됐고 약간 학용품 악세사리나 좀 잡동사니 이런 것 사면 안됐었던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집에 가고 싶었던 거 같아요. <사례 1>

아, 난 자유도 없는 거 같다. 나도 막 이렇게 좀 자유롭게 놀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규칙도 없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 감정이 쌓이다 보니 <사례 4>

제가 핸드폰이 생기기 전에 전화를 하려고 엄마한테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전화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엄마 보여주고 싶고 그냥 엄마랑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건데 딱히 그런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딱히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고 싶은 말을 원장선생님한테 말하면 원장선생님이 전화해주시거나 가끔 전화를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꼭 이유가 어딴어요. <사례 1>

엄마는 집에서 담배를 피고 그래도 뭐라고 안하시거든요. 어쨌든 니 건강이지 내 건강이나.. 학교도 니가 좋아야 다니는 거지 싫은데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인드인데 그룹홈에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례 3>

2) 가족요인

(1) 가족의 의지와 상황 개선

원가정 복귀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가족의 의지이다. 가족이 아이를 데려와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마음을 바뀌게 되면서 자녀를 키울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된다. 다음은 상황 개선이다. 아동이 아무리 가족과 살고 싶어 해도 가족의 상황이 안정적으로 갖춰져야만 하고, 아이와 살 수 있을 정

도의 여유로운 제반 요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안전한 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직업과 소득이 확보되어야 하며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거나 학대나 방임 등의 양육행동을 바꿀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야 하고 또는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가족의 회복은 가족의 끈을 이어주게 되고 무엇보다 가족이 회복은 아동이 원가정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부모가 아동 양육에 자신없어 하고 책임을 미루게 되면 원가정 복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도 한다.

엄마가 점차 우울증이 나아지시고 새 아빠도 생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죠. 옛날에는 엄마가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잠만 잤거든요. <사례 4>

엄마가 이제 병이 다 나아서 회복 되어서 퇴원한다고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같이 살 수 있네요. <사례 2>

엄마가 좋아졌긴 했는데 저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저한테 실망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너를 대학까지 못 가르친다.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떡냐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불안했고 여기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례 4>

(2) 지속적인 교류

아동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언젠가는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형성된 가족의 유대감이 높아진 결과였다. 또한, 가족과의 잦은 만남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었고, 가족들이 점차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희망을 품게도 했다.

할머니 집에서 자고 올 때 할머니가 다음에 언제 또 보자 다음에 뭐 자장면 사줄게 약속하자 그러시고 엄마 있는 병원도 데리고 가주고 그랬거든요. <사례 2>

집에 가끔 왔다 가면 집이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는 아빠가 안 계실 때 아무 반찬도 없어서 파에 된장만 찍어먹고 그랬는데 가끔씩 집에 가보면 아빠가 일 다시 하시니까 약간 고기 같은 반찬도 나오고 조금 잘해준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사례 3>

3) 그룹홈 요인

(1) 그룹홈이라는 이유

아동 중 일부는 자신이 가족과 다시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그룹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아동들은 이전에 시설에서 보호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시설과 달리 그룹홈은 거주 아동들과 가족의 교류가 빈번한 것으로 보였고 마치 집 같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과 비슷한 곳이라고 연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에게 설명해준 적은 없었지만 처음부터 자신이 그룹홈에 살게 된 이유가 곧 집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아동들의 그런 경험은 그룹홈이 확실히 가족들과의 연계를 긍정적으로 이어주는 장소이자 가족들과의 신뢰감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시설에서 살았을 때는 집에 언제 간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룹홈에 와서는 어차피 저는 집이 있는데 그냥 여기 잠시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똑 같은 집이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엄마가 데리러 오실 꺼다 이런 생각하고 <사례 1>

저희 엄마가 절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하니까 시설이 아닌 그룹홈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만약 다른 그룹홈에서 만약 아예 못 만나는 거라면 엄마는 저를 거기 안 보내셨을 거예요. 주말마다 볼 수 있고 집으로 다시 올수 있으니까 여기 절 맡긴 게 아닐까 생각 들어요. <사례 4>

(2) 그룹홈에서의 아동의 부적응과 갈등

그룹홈에서 아동 원가정 복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은 앞에서 확인하다시피 아동과 가족의 재결합 욕구가 커지거나 일치되었을 때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때론 이 시기가 그룹홈에 의해서 앞당겨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그룹홈에서 주도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보호 종료보다 앞서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족의 의지가 크거나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을 경우 가족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룹홈에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이 많아지고, 실무자와의 갈등이 커졌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무자들은 부모와 아동의 생활태도와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해 의논하게 되고 결국 아동 거취와 퇴소 방법까지 논하게 된다. 아동지도가 힘들어질 때 실무자들은 더이상 아동을 달래거나 힘겨루기를 하는 것 보다는 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살면서 함께 그 상황을 겪어 보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는 제대로 된 부모역할을 하거나 경험해주기를 바라면서 퇴소를 권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이나 가족의 욕구가 아닌 그룹홈 내의 아동 부적응과 갈등으로 인한 이유가 아동의 충동적인 퇴소나 가정으로의 복귀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제가 계속 규칙 안 지키고 그랬어요. 맨날 선생님한테 대들고 동생들도 남자 그룹홈에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선생님이랑 엄마랑 상담 해야겠다 그러셨어요. 그게 시작이 돼서 집에 가게 된거죠. <사례 1>

이모랑 트러블 갖고 집에 가고 싶다고 했죠. 이모한테 좀 좋은 태도를 안보이고 딱딱하고 예를 들면, 제대로 말하면, 싸가지 없게. 그래서 제가 그럼 나가겠다, 이럴 거면 나가겠다, 우리집으로 가고 싶다, 전 나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엄청 싸웠었어요. <사례 4>

제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졌는데요. 선생님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할꺼고 근데 그룹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 그룹홈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나 불만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사례 3>

3. 원가정 복귀 후 생활의 변화



1) 꿈꾸던 자유를 누림

그룹홈에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아동생활에 많은 생활의 변화가 생긴다. 그 중의 하나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들은 이전 그룹홈 생활을 한마디로 ‘눈치 보는 생활’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규제나 규칙 없이 지내는 가정 안에서는 자신이 삶의 결정자이자 주인공이 된다. 핸드폰 사용이나 식습관, 수면과 취침시간, 심지어는 자세까지 그룹홈 선생님의 지도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이제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다. 그래서 아동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해방감이었을 것이다.

그냥 누구한테 눈치도 안보고 허락 같은 거 안 말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할 수 있었죠. <사례 3>

엄마랑 대화하거나 집에서는 똥굴똥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집에서 이렇게 막 똥굴똥굴 해요. 집

에 있는 좋은 점은 눈치를 많이 안 본다는 거... 거기서는 폰을 거둬요. 폰을 압수를 하고 애들한테 물어볼 거 있거나 이러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휴대폰 게임하거나 계속 붙잡지 않도록 폰압을 하고 너무 드러누워 있으면 솔직히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다 같이 있는데 집에서 있으면 자유롭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펴먹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눈치 안보이고 <사례 4>

그룹홈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보고 싶은 TV를 볼 수 없었는데 집에 와서 볼 수 있어서 좋고 할머니 보고 싶을 때 직접 찾아갈 수 있으니 좋아요. <사례 2>

2) 과제의 연속

자유도 잠시,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몸과 마음이 고된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부모의 지도 없이 자신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니 그룹홈에서는 학교 다니고 맛있게 차려 놓은 식탁에서 밥 먹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자신이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다 해야만 했다. 자신의 일 뿐 아니라 갑자기 부모님을 대신해서 가사 일도 해야 했고, 동생 돌보는 일부터 다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 된다. 미리 짐작하고 예상했지만 막상 매일매일 닥치는 부여된 과제 속에서 지쳐간다.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동생이 시키면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전 제 방도 치워야 되고 안방도 치워야 되고 거실도 치워야 되고 쓰레기도 해서 버려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강아지 똥도 치워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의, 집안일은 거의 다 제가 해요. 밥도 차려줘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아서 다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이걸 안하면 엄마가 저녁에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사례 1>

동생이 계속 짜증부리고 놀아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룹홈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동생 달래주고 그러는데 동생을 많이 봐줘야 해서 제가 힘들어지게 됐죠. <사례 3>

3) 불규칙적이고 외로운 하루

아동들에게는 그룹홈에서는 제약이 많아 자유를 빼앗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막상 무제한의 자유를 얻고 나니 남는 것은 불규칙적인 생활이었다. 집에서 딱히 할 일도 없었고

가족이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을 가지며 그래서 곧 외롭고 지루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생활 패턴을 달리 하자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학습습관이며 생활리듬이 틀어지게 되고 후회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부모들은 일하러 나가서서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고, 집에 계셔도 자신을 관리해 주거나 통제가 불가능해지니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외로운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룹홈에서는 체계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도 지켜야 되고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키니까 했는데 집에 오니까 전혀 안돼요. 할 수가 없어요. <사례 4>

근데 저는 엄마가 일을 나가시면 저 혼자 있거나 동생이랑 있거든요. 저 혼자 있고 동생들, 좀 애기들 이었을 때 있었는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동생은 있지만 저 혼자 있다는 그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외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가끔 있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사례 1>

그냥 계속 잘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거에 좋았던 거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한 달 딱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규칙적이지 않고... 학교에 안가고 한 달 너무 지겨웠어요. 재미없는 거 같아요. 재미 없어가지고 후회했죠. 근데 제가 후회했던 게 좀 늦었던 거 같아요. <사례 2>

제가 엄마, 아빠랑 대화를 좀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저 혼자 TV를 보고 저 혼자 휴대폰 하고. 계속. 근데 이게 하면 즐겁다는 기분은 들긴 하는데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나 지금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점점 정신이랑 마음도 피폐해진다고 할까, 외롭다고 해야 될까, 엄마, 아빠가 저에 대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날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과 외로움이 있죠. <사례 4>

4) 갈등 그리고 단절

애뜻하고 그리웠던 가족들에 대한 감정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금세 바닥난다. 처음에는 잘 해주던 부모들도 몇 가지 일들을 겪으며 자녀에 대한 실망과 꾸중으로 이어지고 곧 갈등이 시작된다. 이미 적응이 된 그룹홈에서의 생활습관이 가족들에 대한 불만으로 투사되고 거꾸로 그룹홈에서 받은 생활지도로 부모의 행동과 생각에 비판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가족 간의 골을 깊어지게 된다. 부모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고 오랜 공백과 서로에 대한 몰이해는 단절로 이어진다.

근데 집에 가끔 갔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서 좋은 감정도 있었던 말예요. 이게 주말에만 이렇게 만나다보니까 엄마, 아빠와 애뜻한 감정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엄마, 아빠랑 트러블도 점점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몰랐었던... 이렇게 살다보니까 엄마랑 엄청 싸웠어요. 엄청 <사례 4>

우리가 약속도 안 지키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엄마가 짜증이 엄청 늘었어요. 너 원래 그랬냐고 이럴까냐고 하시면서 동생한테 막 소리지르고 <사례 1>

엄마랑 제가 대화를 하면 화가 난 적이 몇 번 많이 있었거든요. 엄마랑 살짝 생각이 안 맞아서. 엄마한테 같이 동참해주고 위로 받으려고 말을 한 건데 엄마는 약간 네 잘못이다, 너 왜 그런 식으로 생각만 하나? 이런 식으로 답이 돌아오니깐 화가 나서 싸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몇 번 있으니까 좀 더 엄마한테는 이런 얘기 안해야겠다, 대화 별로 심각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다보니까 얘기를 잘 안 해요. <사례 4>

5)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의 편안함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잠재우기도 하는 위로가 되었지만 금세 현실로 돌아와서는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다. 진학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가족들의 지원과 관심의 한계 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그룹홈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과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

근데 그룹홈에서는 막 다 해주고, 재워주고, 밥 주고, 그게 당연할 줄 알았어요. 막 학원비 다 대줬는데 놀러 다니고, 근데 집에서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이 잘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나 대학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실력 할 수 있을까? 누가 날 이끌어주지? 이렇게 고민이 되니까 집에서 자꾸 그거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죠. <사례 4>

그룹홈 나와서 집에 오니까 편하긴 한데 학교도 안 다니고 졸업을 안 하니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저 한테 그냥 니 알아서 해라 그러시거든요. 어쨌든 학교는 졸업해야 하잖아요. 검정고치시고 그제야 안심이 됐죠. 그래도 군대는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사례 2>

6) 성찰의 시간

막상 집에 돌아와 살게 되면서는 미쳐 생각도 못 해봤던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드러나면서 집과 그룹홈이 비교되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걱정과 불만, 사람과의 교류와 활동의 제한을 느끼게 되고 학교생활도 규칙적으로 못하고 점차 건강하지 못한 생활태도로 바뀌게 된다. 때론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전의

그룹홈 생활에 대한 고마움과 장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좀 더 사고하고 성찰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좋죠. 편하고 근데, 집에 있으면 뭐라 해야 되지, 막, 하루가 되게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있을 때는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좀 놀 때도 약간 좀 재밌고, 약간 좀 어디 나가거나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 건 그룹홈이 더 좋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일하시는데 예전에는 다 안전하게 있었으니까 엄마가 마음 편하게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집에 어쨌든 두 명이 있으니까 걱정도 더 하시고 좀 이런 거 느끼거나 엄마가 너무 힘들대요. <사례 1>

왜냐면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나 딱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오후에 노는데 저는 오후 때까지 할 게 없잖아요. 그런 거 볼 때 학교 축제 같은 거나 그룹홈에서 캠프 가는 거 볼 때 그럴 때 후회를 많이 하죠. 추억이 좀 없고<사례 2>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느슨해져요. 그냥 다 풀어지고 아 나는 열심히, 처음에 올 때는 계획을 엄청 세워요. 난 여기보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더 멋있는 모습 보여야겠다, 숙제 이렇게 제대로 하고, 근데 집에만 오면 막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막 갇혔던, 약간 규칙과 이모가 공부 이런 것도 잡아줘 가지고 했던 것들이 집에서는 다 풀어지고 안 하게 되고 숙제도 미뤄두게 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도 매일 늦게 자고 이러니까 지각도 좀 했고 생기부 찍힐 정도는 아니고 그냥 반 지각? 막 숙제 다 밀려서 숙제도 안하고 시험도 엄청 완전 몰아서 해가지고 완전 못 본 거예요. 아 내가 집에서 계속 이렇게 느슨한 채로 살면 안 되는구나 싶기도 했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규칙 생기고 공부 억지로 잡아둔 거에 대해 화가 났었는데 나한테 도움이 됐었던 거구나, 이모들이 나를 위해 그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례 4>

4. 원가정 복귀 경험자로서의 제언(도움이 필요한 것)



1) 가족에 대한 마음 회복하기

가정으로 복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아동에게 어떤 제언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자 이들은 가족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가족이지만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나중에 가족과 함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언젠가 되든 함께 살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를 잘 만들고 가족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는 어쩌면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징표기도 하다.

주말마다 엄마 집에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그때 새아빠랑 연애 중이어서 제가 되게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해서 밥해주시고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었어요 <사례 4>

저는 무조건 그 아이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내가 가족이 있다, 집으로 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사례 1>

집에서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성인이 되고 나서 더 못살꺼 같아요. 함께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생은 집에 있고 저는 그룹홈에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살고 싶을 때 그때 해야 하는 거죠 <사례 3>

2) 원가정 복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기

가족과 함께 살게 되는 데에 무슨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아동들은 원가정 복귀에 대해 목적과 의미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집에 와보니 학업수준도 떨어지고 생활도 엉망이 되고 가족들과 사이도 안 좋아지니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얻고 갈지 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단순히 가족들과 살고 싶은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그 공허함을 메우고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집에 와서 할 일과 내용을 정하고 분명히 할 것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냥 조금만 더 참아서, 좀만 더 참아서 계획을 세우고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아니면 나올 거면 진짜 뭘 하고 싶으면 나오라고 할 거 같아요. 거기서 못하는 것을 나와서 해야 되는 거면 나오는 게 나는데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무작정 나오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례 3>

3) 복귀 시기와 할 일을 잘 계획하기 - 충동은 절대 금물!

짧은 생각과 경험이지만 아동들은 집으로 가는 것 보다 언제 가느냐 즉, 그 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이 충동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더욱이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짜서 실행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들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과 그 후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걱정과 기대감을 실무자나 경험자와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룹홈에서조차 그 심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고 결국 계획이나 준비 없이 그룹홈을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동들은 복귀 시기를 잘 결정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잘 계획하는 것에 대한 도움 받고 싶어 하였다.

그룹홈을 나와서 후회하는 거는, 그냥, 그때 후회했던 거는 제가 집에 와서 행동이 안 고쳐지니까 엄마, 아빠 힘들게 한 게 후회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학교 안가서 후회하는 거고, 일단 집에 오더라도 학교는 중학교는 졸업하고 나와야 해요. <사례 3>

제가 지금 고3이 되는데 입시도 앞두고 성적도 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걱정도 많고 불안하고 더 안 좋은 거 같아요. 차라리 더 앞서서 했든가 그래야지 시기를 잘 보고 가야겠죠. 그대 이모랑 싸우고 옥해서 집에 간다고 막 그랬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사례 4>

저는 너무 막무가내로 집으로 왔잖아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룹홈에 있으면서 제가 공허함이나 그런 걸 일찍 알아챘으면 부모님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셋 다 이야기 하면 풀어갈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그 때는 왜 그랬는지 그런 말을 못했어요. <사례 3>

4) 그룹홈과의 협력

아동들은,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아무 이유 없어도 만나고 연락하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해주고 부모와 연락을 할 수 있게 그룹홈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룹홈에 아이를 그냥 맡긴 부모에게도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래야만 부모와 아동이 그룹홈과 함

게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기와 목적을 함께 의논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룹홈은 아동 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잘 조정하고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퇴소한 후에도 아동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기관에서 연락이 없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는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동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룹홈에서는 아동뿐 아닌 부모에게도 아동과의 관계나 생활의 어려움을 의논하고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원가정 복귀는 아동과 가족, 그룹홈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있는 그룹홈의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 만나러 가거나 살아봐야 되잖아요.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살아보기 전에 선생님들한테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생각해서.. 나갔을 때 원장님한테나 그렇게 전화를 달라고 부탁했으면 좋겠고 그 나간 애들한테도 너무 가족들이랑 살고 싶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바로 나가겠다고 막 하지 말고 몇 개월? 한 달 동안 살도록 그렇게 느껴보도록 해보는 게. 그렇게 해라라는 조언 줘. <사례 4>

일단 그룹홈에서 부모님한테 가끔씩 애 이렇게 잘 지낸다, 보여주면 부모님도 이런 추억 같은 걸 나랑 만들었으면 좋겠네 하면서 부모님이 뭔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룹홈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여기서 잘 지내는 좋은 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도 여기 있을 때 부모와 떨어졌다는 그 공허함 같은 게 나아질 꺼 같아요. <사례 3>

저는 나갔을 때 그리움도 좀 있었던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모한테 전화가 오면 그게 좀 반가웠어요. 되게. 많이. 왜냐면 가족이 이렇게 살면서 불안도 많고 약간 트러블 때문에 힘들었을 때? 전화 오면 기쁘기도 했고 식구 애들한테 만나도 반갑고. 그래서 저는 전화 와서 잘 지내고 있냐? 괜찮냐? 라는 걸 바라긴 했지만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그런 건 별로 오지 않았고 그래서 원했던 거 같아요. 나갔을 때 잘 살고 있냐? 엄마, 아빠랑 사니까 어때냐? 안부전화. 그거 필요해요. <사례 4>

5. 소결



이상을 살펴보면, 원가정 복귀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아동들의 연령 차이가 많이 나고 경험이 다양하여 진술에 대한 공통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동이라는 특성상 할 수 있는 말과 주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아동들이 원가정 복귀를 위해 준비하거나 시도한 노력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과의 지속적인 교류, 그룹홈과 가족의 의논 단계, 역할 확인하기로 드러났다.

둘째, 원가정 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아동요인, 가족요인, 그룹홈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동요인에는 집으로 가겠다는 의지,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은 가족의 의지와 상황개선, 지속적인 교류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룹홈의 요인으로는 그룹홈이라는 이유, 그룹홈에서의 아동부적응과 갈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의 변화에서는 꿈꾸던 자유를 누림, 과제의 연속, 불규칙적이고 외로운 하루, 갈등 그리고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 성찰의 시간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 넷째, 경험자로서의 제언에서는 가족에 대한 마음 회복하기, 원가정 복귀에 대한 목적 세우기, 복귀 시기와 할 일을 잘 계획하기, 그룹홈과의 협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동들의 원가정 복귀과정에서는 발달 특성일지, 인터뷰한 아이들만의 특성일지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는 없었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현재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드러났다. 시간이 지나고 후회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결정의 단계에서는 주로 가족을 보고 싶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함께 살아보고 싶고, 그룹홈에서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느끼고 싶고, 그룹홈에서 탈출하고 싶고 그런 이유가 컸다는 것이다. 그 결정에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모습이 많았지만, 그러나 아동이기에, 가족 없이 살아가는 아동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의미와 이유가 과연 있을까 하는 반문을 갖게 된다.

여기에 가족들의 의지가 높아지고 상황들이 좋아지거나 그룹홈에서의 말썽이나 부적응이 계기가 되어 퇴소도 결정된다. 아쉽게도 그 단계에서 아동을 제외한 그룹홈과 가족들만의 의논을 통해 원가정 복귀가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동은 어른들의 결정에 통보를 받고 따라는 사람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또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원가족 생활은 초기의 자유로움은 아주 초기에 증발되고, 싫증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의 고단함, 가족과의 단절이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점철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동들은 원가정 복귀 자체에 대한 실망이나 후회보다는 목적과 시기를 정해서 계획하고 그 상황에서 그룹홈이 좀더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할 때, 앞으로 진행될 원가정 복귀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가정 복귀의 준비 과정에 가족이나 그룹홈만이 아닌 아동의 참여를 권장하고 이 삼자가 함께 준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그룹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원가정 복귀 사례와 지도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아동지도 계획 속에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원가정 복귀 자체가 목적이 아닌 가족 회복과 교류에 힘써야 한다. 넷째, 원가정 복귀 후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룹홈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가정을 복귀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아동을 진술처럼, 그룹홈은 아동이 가족으로 돌아가기 전 보호라는 그 목적과 역할에 대한 재규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

V

원가정 복귀 지원 경험 사례연구

제1절 탈북아동 그룹홈 사례

제2절 경기도 A 그룹홈 사례

제3절 아동양육시설 사례

제5장 원가정 복귀 지원 경험 사례연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 지원 경험이 풍부한 사례를 추천받아 개별 면접을 진행하였다. 주요 면접 질문은 1) 귀 그룹홈(혹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혹은 시행했던)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소개, 2)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3)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성공 요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등이었다. 사례연구의 대상이 된 시설은 총 3곳으로, 그룹홈 2곳과 아동양육시설 1곳이다.

제5장 원가정 복귀 지원 경험 사례연구

제1절 탈북아동 그룹홈 사례



안산에 있는 우리집 그룹홈은 탈북청소년 입소자 비율이 높은 그룹홈으로 남자그룹홈과 여자그룹홈이 같이 운영되며 각각 시설장 1명과 보육사 2명씩 종사하고 있다. 이곳의 원가족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3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집의 원가족지원 사업은 공동모금회 공모 이전부터 시행해 왔으나 공모 사업부터 더 구체적으로 정착되었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원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프로그램 내용



우리집의 원가족지원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다른 그룹홈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입소 시 부모상담, 보호기간 동안 부모와 연락, 아동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에 부모의 기관방문, 방학이나 명절 연휴 동안 원가정 방문, 멘토링, 캠프, 홈스테이 등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그룹홈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 활동의 실현 방식이나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다른 그룹홈과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가족 모임

원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애써온 온 점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모임

(2) 멘토/대안가족 모임

아동들에게 놀이나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되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멘토로 어른을 연계하여 보호 중일 때부터 보호가 종료된 이후까지 아동이 자주 연락하며 의논할 수 있는 대안가족으로 발전시킴. 이는 원가족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입소한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됨

(3) 가정방문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필요한 경우)가 원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의 생활과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이야기 나눔. 원가정을 방문하는 이유는 부모와의 상담, 원가족 생활환경 확인, 분리 사유와 해결 여부 점검 등의 목적이 있음. 이때, 원가족 복귀 준비는 부모가 하고 그 결과를 그룹홈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에 그룹홈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시킴.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가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아동과의 관계가 덜 준비된 것 같으면 어떻게 좀 더 만날지 등을 같이 계획하고, 함께 살 집의 물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면 정보를 제공함. 두 번째 방문에서는 앞선 방문에서 논의했던 것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부모와 함께 회의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아동과도 공유함으로써 부모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아동은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개별적인 면담이나 부모와 함께 면담하기도 함

(4) 아동의 원가정 방문과 부모의 시설방문

상호 방문시,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교통비와 문화비 등 지원. 아동과 부모의 만남이 규칙적으로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함

(5) 가정방문 피드백 편지쓰기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이나 부모의 시설 방문 후에는 부모님께 사회복지사가 편지를 씀. 편지 내용은 부모의 강점을 찾아 칭찬하고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도록 응원하는 내용

(6) 캠프와 가족여행

아동, 원가족, 대안가족, 종사자가 함께 여행하며 심과 소통의 시간을 가짐. 캠프는 그룹홈이 모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대안가족도 계획 과정에 참여하고 캠프 동안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을 한가지씩 준비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함. 이 과정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함

(7) 직원교육과 수퍼비전

종사자가 이용자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가족보존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교육 시행,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가로 부터 수퍼비전 받음

위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3개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1차년 사업에서는 가정방문 시설방문, 가족 여행 등을 통해 원가족과 아동이 자주 만나고 소통하였다. 무연고 탈북아동에 대해서는 대안가족

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가족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원가족, 대안가족, 실무자간 가족 보존과 지망 확대에 관한 가치를 공유하고 지지하였다. 또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퍼비전 기회 마련에 도 초점을 두었다. 이 과정은 부모들이 원가족 복귀를 희망하도록 동기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2차년에서는 1차년에서 구축한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족별 활동(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지원하였고, 가족 외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이 확장·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으면 가정방문,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고 아동에 대한 개별상담도 진행하였다.

3차년도에는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아동과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가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 프로그램 특징



우리집의 원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특성은 프로그램 실현 방식, 운영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1) 종사자들의 자기반성적 실천

우리집에서는 원가족지원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먼저 아동-부모-종사자의 관계가 잘 유지되었던 상황을 탐색하고, 어떤 실천이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여 이를 해당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많은 그룹홈들은 적은 인원으로 아동보호와 행정 업무를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집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본래 업무의 수행방식을 원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목적과 지향에 맞추어 조정하고 수정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업무 부담을 덜어내었다.

연락하는 거는 우리의 루틴한 우리의 업무로 하자. 원래 안했던 게 아니거든요. 다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고 나면 연락했지. 애가 아프고 이럴 때만 했는데 그럴 때만 하지 말자.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처럼 된다. 우리가 그러면. 전화 오면 덜컥!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연락하는 분들이어야지 어머니도 아무 때나 연락한다. 그게 이제 나중에 좀 확신이 들어서 그걸 계속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아주 디테일한 업무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요.

안에 소소한 거는 그렇게 업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캠프 원래 가던 거고 근데 가는데..

명절 때도 집에 가고. 원래 다 가잖아요. 가고 방학 때도 가잖아요. 근데 가는 거 그냥 보냈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낼까 해서 가서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 나누는 거는 하자. 가진 가는데. 그럼 애도 원하는 거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전달해드리고 어머니는 그거 해줄 수 있는지 애가 만약에 뭐 갈비 먹고 싶으면 갈비 먹을 수 있는 건지,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건지, 시간이 없는 건지, 할 수 있게끔. 그냥 대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해지니까 어머니도 안심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애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국에는. 옛날에는 한 일주일 가면 애들 다 핸드폰만 하다가 엄마들 늦게 들어오고 아빠도. 그게 불만이어서 안 간다고 그러고 엄마도 오지 말라고 더 미안해진다고 내가 해줄 게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가면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와요. 근데 그게 예측했던 일인 거예요. 애들이. 하루 종일 엄마 기다리지만 오늘은 뭐 하는 날이야. 엄마 뭐 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엄마랑 영화 한번 보고 밥은 한번 먹기로 했어. 그럼 그거 때문에 잘 하고 왔다고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엄마랑 뭐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라 그렇게는.

2) '함께' 키운다는 관점 견지

아동이 머무는 곳은 그룹홈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룹홈이 부모 대체하여 전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원가족과 멘토와 '함께' 키운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원가족모임, 멘토들의 모임을 실시하고, 틈나는 대로 원가족의 역할과 과제, 멘토들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함께 키운다는 관점은 부모의 경우는 아동 입소 시점부터, 멘토의 경우는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지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지향에 동의가 되면, 그룹홈에서는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활동을 해나가면서, 개별적인 연락을 자주 취하고, 아동의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였다. 또한, 부모나 멘토와 지속적이고 신속한 논의가 가능하고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체계를

를 만들었다. 큰 사건 사고나 용건만이 아닌 소소한 일상생활을 함께 나누어 아동에 대한 소식과 공통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하였다.

어머니는 좀 민망한 것 같다. 우리는 애를 키울 사람, 자기는 버린 사람. 근데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물고 늘어져서.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는 같이 키우는 사람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얘기해야 된다. 그거는 어머니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는 거다. 등등. 그리고 우리 입소할 때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그 가이드가 생기는 거죠. 입소할 때는 어머니 우리는 협력자다. 라는 거를 어색해도 명확하게 얘기해라. 계속 소통하고 계속 연락하고 어머니 조언을 구할 거다. 왜냐? 애를 키우는 방식은 지금까지 어머니가 더 많이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키우면 우리가 더 자세한 거 알게 될 테니까 어머니도 아셔야 된다. 데려가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그 앞에 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이런 게 무조건 생기더라고요.

사고 치더라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전엔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연락하면 돼요. 어머니 올라오시라. 학교가야 된다. 우리. 같이 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어머니 책임이라는 것을 책임감을 줘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결정은 일단 부모니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되니까 우리도 부담이 덜고. 좀 특별히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주 갈 수는 있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이 되게 좁고 혼자 사는 원룸이라 애를 데려와서 뭐 가정체험 이런 거 못한다. 근데 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자주 와서 애를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거꾸로 인 사람이에요. 집에 데려오고 굶직한 건 할 수 있지만 난 자주오진 못한다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러면 자주 오는 거는 선생님이 해서 우리 애까지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올 적에는 그 둘 같이 우리 집에 오면 되고. 자기들끼리 논의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조율이 되는 분위기가 첫날부터 좀 됐고. 서로 의논을 시키니까.

공유가 되는 게 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그걸 하고 났더니 지금은 사실은 그런 공유도 필요도 없게 된 게 뭐가 있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한 5년이 됐으니까 너무 자주 오시고 너무 다들 친하고 아. 여기 그룹홈은 이렇게 자주 다 오는구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 소통하는 그 밴드가 있는데 (중략) 여러 자원봉사자부터 보고 싶은 사람 다 들어오는 밴드인데. 물론 우리가 초대를 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그걸 이제 가입을 시켜드려요. 그러면 이제 탐색을 하시겠죠. 어떤 텐가. 보니까 엄마들 매일 오고, 매일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원 가족 복귀 명절이나 이럴 때 애들 잠깐 갔다 와도 그거에 대한 소식 엄마가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

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당연히 이렇게 해야되나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따로 산다. 근데 이제 이게 이거는 그 부모님이 맛을 좀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애랑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거를 쌓이니까

3) 강점관점 활용과 자발적 참여 독려

그룹홈 종사자들은 원가족지원 사업을 하면서 강점관점의 실천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교육만으로 체득되지 않던 강점관점 실천이 사업 진행과 함께 수퍼비전을 통해 이해가 되고 체득되었다고 하였다. 강점관점은 단순히 종사자가 아동이나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강점을 살린 실천, 멘토의 강점을 살린 지원으로 그룹홈 관련 체계 전체에 대해 강점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다. 그러한 강점관점 적용 결과는 실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이 패러다임이 너무 중요한 게 부모를 가해자로 보면 절대 할 수가 없고 (중략) 부모는 변화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애를 여행도 못 보내고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만남을 어떻게 주선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가 되냐? 라고 하는 불안해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180° 변화라기보다는 (중략) , 어떤 부분은 요만큼, 어떤 부분은 요만큼 가는 건데 지금 이만큼 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만큼 건너온 거니까 여기로만 가지말자. 더 나쁜 부모, 계속 분리하고 이 부모는 차단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될 만 한 건 없을까를 고민해 보는 정도까지. 정말 그렇게 불안하면, 뭐 그렇게 조금 더 나간단, 어쨌든 강점관점 초점 유지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거기에서도 소소하게는 여러 장치를 좀 두긴 했어요. 그냥 우리가 막 프로그램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물어보고 하게하고 첫 번째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자발성이 생길까 캠프에서도 우리가 주최해서 따라가는 거 말고. (중략)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오면서 무조건 돈 다 대서 우리는 참여만 한다. 이게 아니라 나도 뭔가를 기여한다. 이게 또 있고, 자랑하고 싶은 이게 있는 거예요. 엄청 뽐을 내시더라고요 음식솜씨를. 일단 그거 차리면서 벌써 얘기가 다 되고 서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특히 저희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애들 북한음식을 못 먹어봤을 거니까 북한음식 해온다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 많이 해오시고 우리도 모르는 거 감자김치 이런거 해오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여기에 멘토 분들이 뭐예요?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물어보는 거죠. 엄마들도 우리 애들 뭐 잘 먹나 이렇게 하면서 그거 자체가 되게 프로그램이 돼서.

4) 멘토와 대안가족을 활용

우리집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대안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대안가족의 기능은 아동과 전화나 활동을 함께 하는 것, 홈스테이 등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그룹홈을 나간 뒤에도 큰 결정할 때 지켜봐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주는 것이다. 우리집에서는 멘토/대안가정들끼리 서로 간의 정보교환, 의사소통, 지지와 격려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활동에 대한 규칙(예를 들면, 멘토들과의 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비교, 아동들에게 선물하기 등), 목적 등을 공유하고 조율하도록 하였다. 이 멘토들의 활동은 아동이 그룹홈에 생활할 때 뿐만 아니라, 원가족 복귀 혹은 자립 등으로 퇴소 후에도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아동과 가족의 지지체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아동에 대해 모든 책임이 부모 → 그룹홈 → 부모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일 뿐 부모, 대안가족, 그룹홈이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는 아동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들의 부담을 줄이고, 서로간의 지지체계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아동의 지지체계가 다중화되고 확장되는 것으로 기능하였다. 실제로 멘토와 대안가족은 종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주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아동에게도 멘토가 되지만, 그룹홈 종사자의 조력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저분(대안가족)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저분한테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게 되는 게 되게 좀 달랐고. (중략) 우리 달려갈 수 없어도 그분은 뭔 일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어떤 애가 아파서 수술한 애가 있어요. 그러면 간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업무가 마비되는 거죠. 간호를 하면.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 올려요. 애가 입원해서 며칠 동안 있는데 아버님은 하루 정도 오실 수 있다고 하고 우리는 근무를 하면 몇 명이 이렇게 갈 수 있고 근데 낮 시간이라도 좀 애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계시냐? 그럼 거기 전체 몇십 명 중에서 저요, 저요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는 무연고 아동에 대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많은 그룹홈에서는 무연고아동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여 원가족지원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우리집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멘토와 대안가정을 매칭하되 무연고아동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배치하였다. 이는 무연고아동에 대한 대안가정 매칭이 ‘연고없음’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멘토들의 모임 뿐 아니라 원가족의 모임은 내가 책임지는 아동 뿐 아니라 다른 아동에 대해서도 관

심을 가지고 함께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때 무연고 애 네 명이 있었거든요? 애네들은 되게 소외되고 슬플 수 있겠다. 엄마들이 드나들면, 그룹홈 시설장님들 다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중략) 근데 저는 그거 드러내놓고 슬퍼하는 게 더 건강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 애들끼리 다 알거든요. 다 알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그 전에도 찾아온 엄마가 드문드문은 있었겠죠. 이런 프로그램 없었어도.

거 애들 상처받는다, 어쩐다 하면서. 근데 애들 다 알아요 그래도. 지들끼리 생활하는데 모를 리 없잖아요. 엄마가 뭐 사주고, 어디 갔어? 그러면 애들이 다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더 상처인거죠. 그걸 비밀로 한다는 거 자체가 애한테는 더 낙인이고 내가 이렇게, 이런 식의 배려를 받는 거 자체가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거다, 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그 순간에는 슬플 수 있어, 비교될 수 있는데 오히려 드러내놓고 나는 뭐 다른 차원의 더 좋은 것들이 있어 라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

대안가정 선정할 때 애한테는 되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을 채워야 된다. 그건 우리만 아는 거죠. 애는 모르죠. 그러니까 애한테 뭐 취향 물어봐요. 남자, 여자, 뭐. 그렇지만 그걸 다 100%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조율해서 그렇게 해서 개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해놓고

7) 단계적 확장

우리집에서는 원가족지원이 그룹홈의 문화처럼 여겨지기까지 단계적으로 활동을 확장시켜 왔다. 처음에는 아동과 부모/부모와 그룹홈/아동과 대안가족/아동과 대안가족과 부모/ 대안가족과 그룹홈 등이 서로 알아나가기 위한 시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냈다. 가정방문, 시설방문, 가족 여행 등을 통해 원가족, 대안가족, 아동과 그룹홈이 자주 만나고 소통하여 가족 보존과 지지망 확대에 관한 가치를 공유하고 지지하였으며,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퍼비전 기회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원가족지원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부모들이 원가족 복귀를 희망하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중간 목표가 설정될 수 있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족별 활동(여행이나 취미활동)을 지원하였고, 활동 가운데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으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고 아동에 대한 개별상담도 진행하여 관계회복과 유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그룹홈의 활동이 원가정 회복 중심으로 조정되었으며,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아동과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가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좀 친해지니까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같이 가다가.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2년차 할 때는 프로포절 낼 때 아예 개별 여행으로 다 사업을 냈어요. 가족 여행으로.(중략) 특별히 이제 애 양육에 대해서 학대를, 학대행위자였거나 이런 가정은 실무자가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좀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고 어머니 상담도 필요하고 해서 한 2박 3일 같이 다니면 어머니랑 얘기 안할 수가 없고 그러면 밤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애 이래가지고 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는 실무자들이 같이 상담 하고.

3년차에는 전체캠프와 개별 여행을 둘 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전체는 전체여서 되게 화합하고 서로 관찰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들끼리 또 전체 여행을 갈 적에도 방을 가족별로 따로 쪼갰어요. 그래서 조금 수준이 떨어져도 방을 각각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갔고 그래서 애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게. 프로그램 아니어도 일단 같이 자면 뭐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어떤 집은 되게 잘 지내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애랑, 이런 집도 있으니까 그걸 관찰하면서 나도 좀 분발해야겠다. 이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는 그런대로 되게 좋았고. 개별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좋은 면이 있어서 이 두 개를 같이 하고 그 대신 이걸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품이 많이 드니까 전체는 어차피 우리 여름캠프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개별은 모두 다가 아니라 개별여행을 안 가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한번쯤 필요하다는 걸 선별해서.

8) 퇴소후에도 이어지는 만남

우리집에서는 사후관리 형식을 개별면담 뿐 아니라, 퇴소 아동 및 퇴직한 보육사(실무자)도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활동들은 반복되면서 그룹홈의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성을 높이고 원가족 보존이 그룹홈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캠프에는 어쨌든 퇴소자도 다 참여하는 거예요. (중략) 네. 뭐든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늘기 때문에 기본 소요예산은 똑같이 가는데 인원은 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올해 여름캠프는 대폭발할 위기라 이게 도대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송년회도 다 모여요. 그러면 그때는 특별히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퇴소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

요, 사례발표처럼. 그럼 이제 여기 가족들이 다 들어요. 그럼 되게 나이트하게 다 얘기해요. 이게 진짜 힘들고 좀 늦출 걸 그랬어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정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런 거 챙겨 갖고 오세요. 막 이런 것도 다 얘기하고 뭐 좋은 점 나쁜 점 다 이런 공유하는 시간을 송년회 때 갖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걸 두 개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애들 소식은 다 듣고.

퇴소한 애들도 그 선생님 보러 오는 거예요. 아 그 선생님 퇴직했지만 그 자리에는 온다. 이렇게,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죠.

9) 의도하지 않은 성과

이러한 원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원가족복귀, 혹은 원가족 관계회복이라는 표면적인 성과 외에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성과도 나타났다. 아동의 안정된 생활이나 학교적응 향상 같은 긍정적인 변화와 그룹홈 종사자의 이직율 감소가 그것이다. 그룹홈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업무는 대다수가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인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돌아볼 여유 없이 비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그룹홈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적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자신이 전문가로서 기여하는 점에 대해 돌아보면서 직업적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다.

엄마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수월해지는 어떤 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 사고를 안 쳐요. 일단, 되게 안정되더라고요. 되게 큰 변화거든요. 집에 가고 안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경찰서를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애들이 매일 뭐 싸우고, 뭐 학교폭력 뭐 열리고, 그거 매번 가야 되고 이게 옛날에 되게 잦았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내가 학교에서도 전화가 안 오고 경찰서에서도 연락 안 오고 이상하다. 근데 그 시점이 부모랑 관계 회복되면서 애들이 뭔가 안정감이 생겼구나, 뭔가 일상이 되게 평화로워진

의미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뭐 그냥 3개월, 6개월 이랬죠. 근데 지금 저희 10년차도 있고요. (중략) 사실은 그거는 또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나왔고, 근데 저도 나왔지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퇴소한 가족도 오지만 퇴소한 직원도 계속 와요. 저희는, 그 모임에 다 초대

를 해요.

3. 실천경험에 기반한 종사자 제언



1) 입소시부터 시작되는 원가족 지원

원가족지원은 입소 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음부터 대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양육하는 것이고 만남, 가정방문, 시설방문, 캠프 참여 등 그룹홈의 활동이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룹홈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룹홈의 활동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고, 동시에 그룹홈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저는 원 가족 복귀 사업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처음 첫날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을 할 때 부모가 오면 이미 지자체에서 확정해서 그 애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거부할 권리도 없고 가려 받을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는 지자체는 보통 그러죠. 그룹홈에 지금 몇 명 있냐? 자리가 있겠냐? 남자, 여자 이런 거 그냥 전화로 물어보고 괜찮을 거 같다 이러면 서류를 보내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면 짐 싸갖고 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번복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이드를 뭘 해줘, 그냥 오면 시설 입소 안내 해드리는 거지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번복할 수 없더라도 일단은 고지를 하자. 우리는 이런 그룹홈이다. 애들 계속 만나야하고 만나는 시점이나 횟수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르지만 점점 빈번해질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가정방문도 간다. 가정방문 오픈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캠프도 온 가족이 다 간다. 이 모든 부모님들 서로서로 다 만나야 된다. 이런 거 합의 하셔야지 여기 들어오는 거다.

일단 어떤 부모도 애를 만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뭐 안 만날 거야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학대로 분리되더라도,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학대로 온 아이가 요번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서류상...

지금부터 다시 그 관계를 맺는 걸 시작하셔야 된다. 명확하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시작 했더니 자기 좀 도와달라고, 자기도 애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저 부모교육도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자기가 화가 나고 이러면 어떻게, 일단 얘기 해보자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든, 뭘 하든 우린 그런 거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도움 청하시라고 얼마든지.

2) 원가정 복귀가 목표가 아니라 원가족 관계회복이 목표

아동을 원가정에게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아동이 어디에서 지내더라도 원가족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목표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원가정에게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실적과 성과주의에서는 복귀율이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는 원가정의 상황이나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관계회복이 목표가 될 경우에는 그 성과로 원가정 복귀까지 성취할 수 있다. 완전한 복귀가 아니어도 만날 기회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아동과 부모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좋은 부모, 좋은 자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사회복지사는 아동과 부모의 만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뿐 아니라, 부모의 아동에 대한 애착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부모와 지속해서 소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근데 이제 이게 이거는 그 부모님이 맛을 좀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애랑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거를 쌓이니까 (중략) 이게 원 가족 복귀 한다고 그래서 바로 뭐 바로 저 할게요, 이게 아니고 1-2년 이걸 해보면 아, 어머니도 사실은 이렇게 떼어놓고 살면 심심하고 외롭고 힘들거든요. 일은 똑같이 힘들게 하는데 집에 가면 애도 없고 뭐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애랑 만나고 오면 뭔가 똑같은 상황은 힘들지만 희망이 생기고 내가 재 때문에 살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내가 재 때문에 사는 건데 왜 재를 떨어뜨려놓지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고 질문을 해드리는 거죠. 만날 때마다.

그런 걸(자립정착금, 주거지원 등) 계산할 때는 양쪽이 다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 전제로 이걸 고려할 가치가 없고 그럼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게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보이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정말 내리더라고요.

원 가족 복귀율로 하면 사실은 그건 약간 어렵고 왜냐면 원 가족 복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3) 강점관점 지향의 교육, 실천, 슈퍼비전

원가족지원사업 성과보고서에도 제언된 것으로 그룹홈 종사자의 강점관점 지향의 교육과 실천, 슈퍼비전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모에 대해 강점관점으로 바라보아야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협력의 결과도 좋다는 것이다. 아동과 부모, 그룹홈 종사자, 대안가족 등 모든 참여자가 모여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유용할 수 있다. 이때 문제와 어려움보다는 부모와 아동의 강점, 미래를 계획하고 지향하는 질문과 토론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참여자(사회복지사 포함)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 원가족지원 체계에 도움이 된다.

4) 복귀후 사후관리

복귀하는 것 자체보다 복귀후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님과 수시로 가정복귀에 대한 생각과 준비상황에 대해 가정 복귀전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복귀후 생활에 관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실현가능한 일을 조금씩 실천하고, 가정복귀를 결심한 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의논하여 세부일정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와 아동 모두 가정 복귀전보다 후에 더 도움받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하여 복귀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거 외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체계가 구축되고 지원체계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홈에서는 자기 지역은 알지만 개가 살 곳은 모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조율하고 애가 간 후에,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바로 돌보미 연결되거나 뭐, 그리고 학교에 여러 가지 챙기는 이런 부분들, 누군가 챙길 수 있는 이런 자원들 좀 잘 알아서 연결해주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연결해주는 게 너무 필요했고

5)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지원 필요

그룹홈 단위에서 개별적인 원가족복귀 성공경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경험들이 다른 그룹홈까지 공유되거나 확산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성공 경험의 축적과 그로 인한 그룹홈 아동보호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체계는 실무자의 성공경험, 전문가의 조언, 필요한 예산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룹홈이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해주는 어떤 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팀이 너무 외부면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연계를 하면. 근데 이렇게 뭔가의 프로세스를 매니지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룹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그룹홈이 모여서 이걸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6) 멘토링에 대한 확장

원가족이 있든 없든 모든 아이들에게 그룹홈 외부의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자립할 때도 시설장보다 멘토들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기도 하고, 아이들의 행사에 멘토가 가족으로써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원가족과의 만남도 함께 한다. 단순히 정기적으로 아동과 1:1로 만남을 갖는 것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다른 멘토나 종사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멘토가 대안가족까지 확장되어 실질적인 지지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활동해야 가능하고, 그것은 멘토들의 자발성, 주체성, 강점을 강조해줄 때 동기가 강화된다고 하였다. 멘토들의 모임은 결국 그룹홈의 또 다른 의사결정 구조가 되기도 하는데, 멘토들 개개인은 그러한 과정에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아동을 둘러싼 성인 집단의 연계, 공동의 책임,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이는 결국 최종 지향이 원가족복귀가 아닌 원가족 관계회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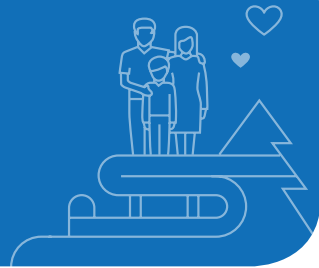
또한, 이 사례에서 원가족복귀를 위한 활동으로 인한 또 다른 성과인 아동의 변화, 안정감,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길어진 것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우리집의 원가족지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내용과 내용을 연결하는 수많은 작은 활동, 구체적인 장치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멘토링이라면 아동과 멘토를 매칭하고 활동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 활동에 대한 규칙 만들기 등에 참여하게 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멘토끼리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캠프 등에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멘토 활동이 연합되거나 보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많은 그룹홈이나 양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캠프의 경우, 대개는 종사자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참여아동이나 가족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캠프를 관계형성의 시간 및 실제 여가를 보내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계획과 정이나 준비과정에 가족들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예: 함께 나누어먹을 음식 1가지씩 준비하기)을 포함하였고, 아동 때문에 인연이 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가족과 멘토,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정방문의 경우에도 가정방문을 통해 환경을 점검하고 부모를 인터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가정복귀를 준비하는 활동의 하나가 되도록 상담, 피드백 등의 과정을 포함하였다.

제2절 경기도 A 그룹홈 사례



A 그룹홈은 특수한 목적이 아닌 빈곤, 학대, 방임 등 일반적인 이유로 의뢰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룹홈이다. 원가정 복귀를 시도했던 경험이 비교적 많았던 한 센터의 시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그룹홈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가정 복귀 경험을 정리하였다. A 그룹홈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7년에 설립되어 운영된 지 23년차에 들어선다. 현재는 여자, 남자 그룹홈 2개가 같이 운영되며 각 그룹홈별로 시설장 1인과 보육사 2인이 근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가정 복귀된 아동은 11명이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아동 그룹홈에서 원가정 복귀에 관련된 일은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하지 않으나 프로그램은 '집단 활동 뿐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에서 목표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황성철, 2009)을 말하므로, A 그룹홈에서 원가정 복귀를 위해 진행한 모든 활동을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설장과는 1회 면담, 수차례 전화, 질의 응답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이후 내용은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1. 프로그램 내용



사례로 조사한 A그룹홈에서 진행된 원가정 복귀 사업에 관한 내용은 문서나 파일로 따로 정리되어 있거나 발표된 적은 없다.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은 대다수의 그룹홈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원가정 복귀지도 경험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설 운영 경험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아동 입소 단계부터 퇴소 후 사후관리까지 실무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10단계로 재정리하였다. 단계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입소 후 아동 양육에 집중하면서 가족들과 연락

입소된 대다수의 아동들은 그룹홈에 오기 전 학대나 방임, 빈곤, 가족해체 등을 경험하였고 일시보호 센터에서의 불안감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가족이 아닌 그룹홈의 선생님, 함께 살게 된 새로운 식구들과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족이나 부모와 만남이나 빈번한 연락은 잠시 중단하고 그룹홈 생활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나 심리적 건강과 학업, 기초 생활 등의 영역에서 발달수준보다 떨어지거나 문제들이 드러나면 아동지원에 대한 개입 계획을 세워 나갔다. 그 사이 친부모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친부모의 아동접근 수준과 안전 등을 확인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또한, 부모와의 연락이 시작된다면 아동에 대한 정보와 아동발달에 관한 특이사항 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 과정은 아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2) 아동적응 기간이 끝나면 가족들과 본격적인 소통

아동의 입소 사유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아동이 원한다면 모든 부모에게 똑같이 아동의 생활하는 모습과 활동이나 소식, 사진 등을 보내주면서 가족들과 본격적인 연락을 시작한다. 아동을 부모가 그룹홈에 직접 맡겼던 시절에는 부모의 상황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연락처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바뀌어 아동보호센터를 거쳐 지자체 등을 통해 아동의 의뢰 받게 되는데 이때 연락이 닿은 가족구성원이 아닌 또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연락처는 그룹홈에서 직접 알아보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때도 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아동의 경우 부모와 직접 연락하기 어렵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치거나 그룹홈은 가족과의 소통에서 제외된 채 별도로 연락을 취하고 소통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또한, 부모 이혼 후 한쪽 부모에게 맡겨진 경우에는 아동과 헤어지고 만난 지 오래된 부모도 있기 때문에 부모 찾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무연고 아동이 아니라면 모든 아동의 부모와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든 해보려고 한다. 부모 연락 후에는 아동의 생활과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연락하고 아동의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 부모와 소식을 나누다 보면 아동적응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아동에게 가족의 소식을 전해준다 보면 대부분의 아동들도 정서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한결 편안하게 지낸다.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였더라도 아동들은 가족의 소식을 궁금해한다는 것을 경험한다.

3) 원가족과의 상담 시작

원가족들과의 교류가 시작되면 원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듣고 상담을 진행한다. 부모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듣고, 이후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파악한다. 모든 가족구성원을 다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상담하거나 아동이 연락되기를 바라는 가족을 우선적으로 만난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이 그룹홈에서 지내는 동안 부모로서 어떤 관심을 보여야 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부모의 역할에 대한 그룹홈의 운영 원칙과 가치 등을 설명해 주고 아동에 대한 연락방법과 욕구 등을 파악하고 점검하면서 협조를 구한다. 인터뷰에 응했던 시설장은 이 과정에 대해 부모상담은 그룹홈이 아닌 외부 카페 등에서 만나 실시하였는데, 아동을 맡긴 자-돌보는 자라는 위계 때문에 가족들이 위축되거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하였다. 부모를 또 다른 욕구를 가진 내담자나 협조자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4) 원가족 상담 후 아동의 외박, 외출 허락

원가족 상담을 거치고 3개월 정도 아동과 가족이 원활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며 연락이나 교류가 잘되고 서로가 원하면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가족이 원하는 만큼 가족들을 만나게 한다. 지금까지는 성학대로 인해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표현했던 아동 1명을 제외하고는 가족들한테 방임이든 학대든 어려움을 겪었던 대다수의 아이들이 다 원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아동 입소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외박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다. 물론 6개월 전에도 아동이나 가족 모두 원하고 있고 가족의 행동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외박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가족들이 일이나 주거 불안정, 가정형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아동 입소 후 바로 외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학대했던 가족이었을 경우, 또 가족이 집이 없을 경우에는 이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도 했다. 따라서 대다수의 아동들은 상황에 따라 방학, 명절, 연휴에 맞추어 외박을 하는 편이다. 아동에 따라 자주 부모를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아동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이나 제한을 두고 않고 아동 학교수업이나 그룹홈 활동 일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 상황에 최대한 맞추도록 허락하였다.

5) 가족 교류 절차

원가족과 외출, 외박을 하기 전에는 아이들한테 무얼 하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묻고 가족에게 알려주며 때로는 아이 용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도록 한다. 그룹홈 아이들은 용돈을 모

았다가 가족을 만날 때 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아이들의 반응과 만족도가 좋았다. A 그룹홈의 시설장은 아이들한테도 가족을 위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서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었다.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 오면 가족들과 했던 일, 만났던 사람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를 잘 관찰하고 살핀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기도 한다. 가족과 만나고 오면 싸우기도 하고 실망하면서 다시 우울해지거나 짜증이 늘고 공격적 성향이 발현되기도 한다. 간혹 어떤 아동은 흥분되거나 너무 기분이 올라가서 다시 그룹홈 생활로 돌아오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실무자가 힘들다고 가족을 못 만나게 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오히려 그때마다 아이의 정서적인 면에 대해 더 많이 관찰하고 따뜻하게 돌보며 심리검사나 미술치료 등을 연계하여 개입하는 편이다. 그 단계가 자연스럽게 지나가야만 아이들이 차츰 자기 인생에 가족을 담아두고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아동이 친척들을 만나고 오면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자신들이 버려지거나 내쳐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가족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비록 형편이 어려운 친척집이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외박을 하고 왔어도 아이들은 대다수 이렇게 가족과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단, 외박을 할 때 안전을 확인해야 하므로 아버지만 혼자 있는 집, 남자 친척으로만 구성된 집에는 동행할 형제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여자아동들의 외박을 권하지 않았다.

6) 가족과의 협조체계 구축

가족에게 아동의 하루 일상과 서비스 연계에 관하여 수시로 전화로 설명해주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다. 이미 가족과 아이가 교류를 시작해서 아동이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있어도 그것과는 별도로 그룹홈에서도 가족들에게 아동의 근황을 알려줄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가족들이 아동생활에 대해 나중에 통보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가족으로서 인정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가족들이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족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아동이 그룹홈 안에서 따뜻하게 보호받고 있고, 가족과 살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부모들이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원가족이 합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시작이 된다.

7) 원가정 복귀 과정 안내 및 양육계획서 점검

가족들과 아동이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하고 가족의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언제 데려가도 되는지 묻거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가족들이 생긴다. 그러나 그룹홈의 원칙상 원가정 복귀는 1년 이상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아이의 일상생활지도 경험 및 부모들의 준비과정을 지켜봐 온 경험적 기준이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확실히 집으로 갈 애기가 나오게 되면 부모에게 양육 계획서를 손수 써오도록 한다. 계획서에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대학 교육 포함)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적어 오도록 한다. 주로 아동 양육에서 필요한 주거, 직업, 양육환경과 지지체계, 경제적 유지, 양육태도와 의지에 대해 현재 상태와 목표, 기간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시설장의 경험 상 이 부분을 말로 상담하는 것과 글로 계획서를 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 계획서 작성을 통해 가족들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후 1년 동안은 양육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가족과 상담하고 돕게 되는데 이때 실무자는 분석가나 평가자가 아닌 지지자나 교육자, 자원 연계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8) 원가정 복귀 계획과 지지체계 확인하기

부모가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직업을 얻었는지, 집을 어디에 어떻게 얻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주위에 도와줄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친다. 좋은 직업이나 좋은 집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이 상황은 수급이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 기준보다는 부모의 의지와 구체적으로 도와줄 주위 사람이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해당 그룹홈의 경우, 아동이 원가정 복귀에 대한 욕구가 가족보다 더 컸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때 가족의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거주지인 지방까지 직접 가보고 원가정 복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그룹홈 종사자들은 업무과다로 모든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그룹홈 종사자가 직접 가정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거주지 관할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다른 복지체계의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친부모외에도 외할머니나 고모 등 친척이나 친구, 지인이 함께 아이를 돌보거나 도와줄 경우라면 해당자를 함께 상담하기도 한다. 이들은 아동 양육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기에 대다수가 협조적이다. 주위 자원과 도움의 정도는 아동 발달과 양육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주위사람을 파악하는 일은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아동에게 그들과의 관계나 감정에 대해 묻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도를 확

인한다. 또한 가족들이 계획한 일정이 달라지거나 어려움을 호소할 때면 함께 계획 일정을 수정하거나 의논하면서 가족들을 지지한다.

9) 가족에게 자원 연계하기

가족이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룹홈에서는 가족을 직접 돕고 자원을 연계한다. 그룹홈 종사자들은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가족 거주지 근처에 있는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들이 아동을 다시 양육한다고 마음먹고, 키우는 일은 매우 어렵고 고단한 과정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살게 된 후 긴급지원이나 수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무한돌봄센터 등에 연계하기도 하고 함께 살 집이 마땅히 구해지지 않는 가족들은 LH와 연계하여 주거를 해결해주면서 원가정 복귀를 도왔던 사례가 있다.

10) 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원가정으로 복귀된 초기는 한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고 아동의 불안과 부응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 그때 위기를 극복하도록 잘 도와주면 몇 개월 후 부모와 아동도 잘 적응이 되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소한 후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잘 지내는 지, 어려움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한다. 일단 아이의 학교생활과 적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특성이나 습관에 대해 부모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 도와주어야 한다. 이미 퇴소한 아동이지만 연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교류한다. 가족의 적응 단계가 지나고 나면 다음엔 아동과 보호자가 먼저 전화를 하여 함께 있으니 좋고 잘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연락이 온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재입소 되거나 해체된 가족보다 잘 자립해서 지내고 있는 아동이 많다. 중간에 원가정으로 가게 되는 퇴소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이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그룹홈보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관계나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은 오히려 좋아졌고 기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아동과 가족들을 볼 때면 그것이 아동의 미래에서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

2. 프로그램 특징



1) 부모상담과 자원연결

그룹홈에 자녀를 맡길 수 밖에 없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이들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거나 계획을 지키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여긴다. 또 본인의 의지가 있어도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나 자원이 없으면 금방 실망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렇기에 가족들을 격려해 줄 지원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들 모두의 손을 잡아주어야 결국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가족 상담 뿐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찾아서 연계해 주는 일을 병행한다.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부모나 가족들에게도 공을 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홈에서는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카톡이나 문자로 자주 연락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시도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부모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상담을 하게 되면 부모가 달리 보여지고 그들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차츰 변하게 된다.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룹홈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해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어 그룹홈의 운영절차나 아동양육 지도방식이나 내용에 동의하게 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지금까지 준비되지 않은 채 아이를 데려간다고 갑자기 무례하게 얘기하여 갈등을 겪었던 가족들은 없었다. 또한, 대다수가 아이를 키울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가족과의 관계가 포함된 아동지도

가족과 다시 살게 되는 요인에 있어서는 부모의 의지나 욕구, 나아진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의지와 가족에 대한 생각과 마음도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도 그룹홈에서 잘 지내게 되고 문제행동 없이 여러 조건이 안정적으로 보여야 부모들도 다시 아이를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그래야만 다시 만났을 때 서로가 잘 돕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동들의 연령이 높아졌을 경우 부모의 일방적인 보호나 지도로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자신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지도할 때 항상 가족과의 연계성을 찾는다.

따라서 아이들이 입소하게 되면 그룹홈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닌 가족과 다시 살게 될 때까지 준비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지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도 ‘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권유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다시 만나서 잘 살려면 각자가 건강하게 잘 있어야 다시 만났을 때 진짜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 것들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설득한다.

아동들이 가족을 만나기 전 갖춰야 할 태도는 자립기술에서 필요한 일상 생활기술이나 사회적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방학 때 부모집에 머물게 되면 무엇을 스스로 해야 할지, 알아야 할지 확인하는 식이다. 아동 스스로 숙제를 해야 하고, 씻어야 하고, 가족과 어떻게 지내야 할 줄 알아야 하고, 상담도 열심히 받아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부모가 자기한테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잘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무엇보다 그룹홈은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는 곳이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아동 지도를 잘하게 되면 아이들은 무난하게 일상생활을 잘하면서 발달하게 되어 있다. 가족과 함께 살게 되거나 복귀가 힘들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덧 아이들은 잘 성장해 있다. 자연스럽게 아동도 그동안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나 가족과 맞춰가는 것을 깨닫는다. 퇴소 전 가족 곁으로 돌아가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도록 지도하느냐가 더 관건이 된다.

3) 종사자들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가치 공유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의 상황이 형편없고 수준이 낮은 것 같아도 아동의 인생에서 가족을 가리거나 없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가족을 존중하고 맞춰주는 일이 종사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경험상 어떤 것도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그룹홈에서 아이들을 자식처럼 키웠어도 가족보다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교육할 때도 기관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사업을 강조하고 업무 특성을 이해시킨 후 그 생각이 잘 맞는 직원과 일하고 있다. 종사자의 눈으로 볼 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가족을 만나는 일, 가족과 아무 문제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그룹홈에서 잘 지내도록 하는 것만이 아이한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종사자에게 늘 강조하신다.

가족한테 연락하는 일과 스케줄을 조정하는 번거로운 그런 일이 많아서 힘겹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딱히 종사자들끼리 의견이 충돌된 적은 없었다. 그래서 모든 종사자들은 아동뿐만 아니고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것에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설장의 가치를 종사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 양육계획서 작성과 의논

위에서 언급한 가족상담이나 자연원계, 아동지도, 종사자 가치공유 등의 사업은 대다수의 그룹홈에서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육계획서 점검에 대한 부분은 이 그룹홈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다 있을 경우 계획서를 따로 따로 부모 모두에게 받는다고 하신다. 양육계획을 말로 하는 것과 양육계획서를 직접 써서 준비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서류를 통해 일종의 계약과정을 거치는 공적인 업무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부모들은 막연하게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자신의 방향과 틀이 자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알게 된다. 이 단계에서 그룹홈에서는 양육계획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 도움의 영역과 가족들의 강점 등을 파악하면서 도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동과일에 부모의 양육계획서를 첨부하여 아동지도의 방향에도 활용하고 상담시에도 확인해야 할 근거의 내용으로 삼는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서 이러한 절차를 갖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활동은 어느 정도의 교류와 신뢰 형성이 안 된 관계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다. 충분한 부모 상담과 관계가 잘 형성되었기에 부모와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실천경험에 기반 한 종사자 제언



1) 원가정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체계라는 관점 세우기

종사자의 눈에는 자녀를 학대하고 심하게 방임한 부모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룹홈에 아이를 맡겨놓고 전화도 안 받고 아이들한테 연락도 잘 안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무심한 부모도 많

다. 그룹홈에서 해주는 여러 서비스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는 철면피의 부모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사자가 느끼는 관점이지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다를 수 있다. 또, 그들은 아이들의 가족이며 부모의 자리는 그룹홈에서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보다 더 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한테 한 게 잘했다는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따로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아이들의 소중한 가족으로 잘 대해주고 자립하려고 하는 인격체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그들도 변하게 되요.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이전에 아이를 학대했던 일들을 반성하고 아이들한테도 용서를 구한다고 해요. 따라서 부모를 상담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자꾸 가족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데 가족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좋은 싫든 거부할 수 없어요.

가끔 어떤 시설장님 보면 부모한테 가는 것 보다 내가 데리고 키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에서 마치 본인이 부모처럼 대하고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아이의 인생에 너무 깊숙하여 관여하고 애가 상처받는다면 부모하고 못 만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 아이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룹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빼놓은 채 그냥 아이의 발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애가 가족 얘기 안한다고 가족 싫어한다고 보면 안되구요. 가족 없이 여기서 잘 지낸다고 가족 필요 없다고 해서도 안되요. 가족에 대한 역할과 자리에 대해 항상 기억하고 일해야 해요.

2) 그룹홈의 목적과 종사자의 역할 재규정

그룹홈은 부모 대신 아이들을 키워주기만 하는 곳이 아닌, 상처받은 아동을 회복시키고 집으로 가기 전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키고 돌보는 곳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종료 때까지 그룹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갖고 가족들과 연계하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점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간에 집으로 가는 아동들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당연한 사례여야 한다. 그룹홈에서 진행될 사업은 아동지도 뿐 아니라 부모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룹홈 종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확인하고 원가족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살펴야 해요. 그룹홈에서 혜택 많이 받고 잘 있다고 부모 얘기를 안 한다고 모두 만족하게 산다고 봐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저는 제 역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이 합칠 준비를 마칠 때까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걸 시켜도 무조건 그냥 해 그런 게 아니라 00야 집으로 가기 전, 우리 뭘 해야 하지? 그렇게 말해요. 부모와 잘 만나는 애들한테는 부모님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니? 그렇게 묻고요.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해요. 그럼 애들이 숙제도 잘하고 손도 잘씻어야 하고 밥도 잘 먹어야 하고 동생하고 싸우지 않아야 해요.....그런 말을 하지요. 그냥 자기가 원래 잘 하는 것예요. 그걸 얘기할 때 가족하고 연결시켜서 한다는 거지요...

인터넷 검색하여 아동이 다닐 수 있는 센터 전화번호 알려주고 상담 기관도 안내해주고 직접 가보시도록 연결하죠. 가족들은 그룹홈 종사자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도와줄 지인 없이 발을 동동거리기도 하고 의지가 약해지기도 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도와줄 손길이 필요해요. 직업의 경우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하겠지만 아이들이 집으로 가서 다녀야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센터 등은 제가 함께 알아보고 집을 구할 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주죠...

3) 가족들과의 교류

원가족들과의 교류는 아동, 종사자, 부모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아동의 생활과 일상, 심리에 대해 부모가 자세히 알게 해주는 것은 나중에 가족이 합치게 되었을 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전작업이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일수록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적으면 대화가 단절되어 관계가 어색해지고 껄끄러워지게 된다. 아동들은 컸고 사춘기가 왔는데 부모는 아이를 예전처럼 다루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고, 아동 역시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싫다고 느껴서 또 다시 갈등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것이 대화의 소재로 등장하게 되면 가족의 의사소통관계를 촉진하게 할 뿐 아니라 아동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일이 된다.

부모 중에 연락을 안주거나 반응이 없는 부모도 있지만 개의치 않고 아동에 대한 모든 소식을 전해줘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수시로 계속해서 연락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특별한 일 외에도 수시로 어떤 연락이든 자주 보내서 가족으로서 아이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고 있도록 해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 그룹홈에 연락하거나 연락을 받는 일을 부담스럽거나 어색해 하지 않거든요..

첫 상담이나 상담 초기에 보면 부모들이 죄인처럼 피하려고 해요. 아니면 엄청 방어 하려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의 사정을 잘 듣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다보면 어느새 부모들은 마음을 열고 아이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학대나 방임했던 알콜중독이든 모든 부모에

게 똑 같이 느끼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보면 대다수 부모들이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았고 상처가 많았어요. 남편한테 가정폭력에 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있고 사실 양육태도가 좋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 자신의 변명한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욕하기 보다 그렇기 때문에 품어주자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4) 서두르지 않기

가족문제나 복귀는 그룹홈에서 주도해서 진행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모와 아이의 상황이 잘 맞아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변수가 많다. 부모의 일, 건강, 주거, 지지체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인과 확보해야 할 자원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하게 서두르거나 재촉하면 부담을 느끼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기다려줘야 하고 그때 실망하지 않게 지지해줘야 한다.

제가 시설장 하고 얼마 안되서 만난 사례인데요..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양쪽 부모에게 학대를 겪다 온 입소한지 6년이 된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중에 이혼했는데 엄마가 아동을 퇴소시켜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해요. 아이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엄마도 좀 변한 거 같구요...그래서 퇴소 준비를 했는데, 막상 퇴소하기 1주일 전에 연락도 안 되고 애간장을 녹이다가 결국 연락이 되었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돼서 퇴소를 못시킨다는 연락을 하는 거예요. 1주일 남겨놓고... 아이가 무척 실망했죠. 가만히 이유를 들어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는 거예요. 더 준비해서 아동을 맞이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시라고 했죠...천천히 준비하시는게 좋겠다 그러면서.. 안되는 걸 어떻게 퇴소시켜요.. 그래서 그 후로는 원가족 복귀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적어도 마음 먹고 1년을 준비하도록 해요. 그냥 경험상 부모가 자리 잡으려면 그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적인 부모 도움과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구나 생각한거죠.

5) 가족지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과 프로그램 지원 필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들고 이에 따른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다.

원가족과 교류를 할 때 형편이나 여건이 안 되는 가족의 경우 아동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부담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가족일수록 더 자주 만나야 하는데 부모와 아이가 만날 때 뭔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원가족 지원이 훨씬 활발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와 만날 때 교통비나 활동

비, 식사, 기타 선물비 등이 필요한데 이때 예산이 공식적으로 지원된다면 그룹홈에서는 부담 없이 이러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여건과 형편이 안 되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들도 이런 도움을 통해 아이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그룹홈 별로 알아서 예산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종사자의 역량이나 욕구에 따라 변화하거나 수준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에서 원가정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예산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보호자와 아동이 외박 할 때는 후원 들어온 선물 등을 보내고 명절이 되면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고기 세트를 보내주거든요. 저희 그룹홈에서는 지금까지 명절에 아동이 집으로 갈 때 절대 빈손으로 집에 가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다수 부모님들이 명절 끝나고 아이들을 다시 보낼 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시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부모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들을 챙기는 것이 좋아요. 근데 집으로 보내는 고기 세트는 그룹홈 예산이 있을 때는 그걸로 쓰지만 부족할 때는 아니면 제 사비로 처리하는데 그런게 예산 지원이 된다면 정말 좋죠. 아이들이 집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죠.

6) 외부기관과의 교류

그룹홈에서 일할 때 반드시 연계 맺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공식적 기관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과나 주민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다. 특히 이 기관들은 이후 아동의 가족관계나 가족과의 연락, 원가정 복귀 후 자원연계 등을 위해 훌륭한 자원이나 지지체계가 되어 준다.

우리는 관계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매우 협조적인 편이에요. 저희는 부모 연락처를 받아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직접 연락해요. 원래는 학대 부모는 거기서 직접 하거든요. 근데 저희를 믿고 연락처 준대요. 거기서 말하길 다른 기관은 학대로 오는 애들이 많이 공격적이거나 그러면 애를 바꿔달라고 한대요. 못 키우겠다고... 근데 여기 오는 애들이 다 그렇지요. 어떻게 성품이나 수준이 좋은 애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애들 보내 달라고 해요. 그리고 애들 잘 적응시키고 부모만나서 집으로 잘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우리를 조금 좋아하는 가 봐요. 저한테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있는 일들도 의논하고 그런 부모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들이 직업이 없다고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이사 갈 동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전화하여 부탁하죠. 수급 좀 되게 잘 봐 달라 그러면서... 어쩔 때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에게 그쪽으로 직접 전화 좀 해달라고 사

정해요. 그러면 잘 해주세요. 이번에 원가족 복귀한 00네도 수급이 되서 일단 퇴소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무한돌봄 연결해주고 안되면 우리 무한돌봄 선생님한테 거기 전화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면 다 해줘요.

학교도 진짜 중요해요. 애가 그룹홈에 있다는 걸 몰라서 선생님이 어찌고 그랬는데 제가 딱 전화해서 도와주세요. 협조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선생님 진로랑 이런거 딱딱 더 알아봐주시고 결국 애가 원가족으로 가도 될 정도로 진학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외부지원을 다 활용해야 해요.

7) 자신과 가족에 대한 마음 회복

가족과 함께 살게 되는 일은 축복해줄 조건이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안쓰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동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잘 커나가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마음을 잘 세우고 다스리면서 마음을 회복하면, 함께 사는 것 만큼 의미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족을 지우지 않고 서로의 영역에서 각자가 잘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원가정 복귀를 무리하게 시키는 것보다 자신과 가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적 힘을 키워주면서 회복되도록 도와야 한다. 아동 개별상담이든, 치료모델이든 일상생활에서든 아이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가족문제를 풀어나가고 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마음이 회복되면 원가정 복귀가 잘 안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더라도 원망이나 미움을 갖고 있기보다 잘 이겨낼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

처음에 그룹홈에 입소되어서는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학대하고 방임했는지 막 얘기해요. 뭐 여기때리고 저기 쏘시고 어쨌고 경찰이 왔고 막 그러면서 원망해요. 근데 딱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묻는 등 차츰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가족을 찾게 되는 심리를 발견하게 되요. 그게 가족인거죠. 오히려 나쁜 부모였는데 나를 여기 그룹홈에 넣어놓고 어떤가 애들이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만나게 해줘야 한다니깐요..

부모들하고 자주 상담을 하다보면 제가 부모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반성하고 깨닫게 되나봐요. 부모들도 아이에게 자기 잘못을 미안하다고 스스로 사과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를 용서한다고 그래서 화해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이가 그걸 받아 줄 준비가 된거예요.

4. 소결



A 그룹홈의 사례는 특수한 그룹홈의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일반 그룹홈에서 진행되는 원가정 복귀 사업을 정리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장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그룹홈에서 이처럼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룹홈에서 진행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가 없고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 그룹홈에서 진행된 내용과 절차를 정리하고 확인하여 일반 그룹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찾거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룹홈별로 종사자의 역량이나 노하우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원가정 지원이나 복귀 경험이 없을 경우 지침으로 삼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진행될 그룹홈의 원가정 복귀 지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룹홈에서 가족상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종사자가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적 뒷받침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그룹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관계 프로그램이나 가족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원가정 복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차원의 단계별 점검표, 지도 매뉴얼, 양육계획서 활용방안 등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장 원가정 복귀 지원 경험 사례연구

제3절 아동양육시설 사례



1. 프로그램 내용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동명아동복지센터가 아동의 가족에 관심을 가진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IMF 경제위기로 해체가정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도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방임된 아동의 수도 증가하는 등 가족 있는 아동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동명아동복지센터의 가족에 관한 관심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드러난 것은 2001년 서울시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지역사회 확대받는 아동을 위한 전문적 보호프로그램(아름방)’이다. 프로그램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02년과 2003년, 지역사회의 해체위기 가정과 시설의 해체가정 아동과 부모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설아동과 지역사회 아동이 함께 하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가족결속력 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삼성복지재단 작은 나눔 큰 사랑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생활시설과 입소 아동 부모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가족 결속력 프로그램이 아동과 원가정 간의 유대감 강화에 주목하여, 양육시설과 원가정 부모 간의 협력적 관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개발되었다.

동명아동복지센터의 “원가정” 관련 프로그램의 역사를 살펴보면, 1) 시설 내 아동에 대한 지원, 2) 지역사회 내 방임된 아동과 해체위기 가정에 관한 관심⁴⁾, 3) 시설 내 아동과 지역사회 내 방임 아동, 그 가정에 관한 관심, 4) 시설 내 보호대상아동-원가정(부모)-시설(직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관심 등으

4) 동명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에 의하면, 시설입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방임 아동과 해체위기 가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2006년 삼성복지재단 작은 나눔 큰 사랑 지원사업의 ‘아동복지 생활시설과 입소 아동 부모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특징, 실천 경험에 기반한 종사자의 제언 등을 정리하였다. 이후 내용은 부모교육 자료집(2007)과 동명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과의 인터뷰(2020년 3월 12일, 2시간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2. 프로그램 특징



‘아동복지생활시설과 입소 아동 부모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목적은 기관(양육시설)과 연고자(원가정)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을 위한 양육과 상담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부모 모임과 부모-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협력 관계 유지, 가족 결속력 촉진으로 조기 가족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동명아동복지센터, 2007).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1) 시설아동의 원가족(부모, 친인척), 2) 시설아동, 3) 시설의 생활지도원이며 각 대상에 따라 세부 목표의 차이가 있다.

〈표5-1〉 프로그램 대상별 목표 및 프로그램

	원가족	아동	시설의 양육자(생활지도원)	원가족 - 아동 - 생활지도원
목표	1. 부모교육을 통한 긍정적 양육태도를 형성한다 2. 부모간담회 및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통해 아동 양육 및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설과 부모 간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긍정적 자아상 확립과 부모 및 양육자와 의 신뢰관계 형성을 돕는다	부모교육을 통한 긍정적 양육태도를 형성한다	시설 아동-부모-시설의 양육자(생활지도원) 간 유대관계 형성, 응집력 강화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프로그램	- 부모교육 - 부모 상담 - 전화 상담	개별 및 집단 상담	부모교육	- 월1회 관계증진 프로그램 - 체험활동

세부 활동	- 아동발달에서의 애착의 중요성과 부모 역할 교육 - 아동과의 효과적인 대화방법 교육 - 시설의 보육방침과 부모 역할 안내 - 부모의 정기 방문 유도 - 부모 교육 이후 간담회 실시(참여 부담을 줄임) - 부모 상담(인근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 가족 외식비 지원 - 시설 아동의 담당 생활지도원과 부모와의 아동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아동생활태도, 학교생활, 정서상태, 친구관계 등을 중심으로 부모 간담회를 실시 - 부모 전화 상담: 보육팀이 정기적인 전화상담 실시	아동 전문 상담 프로그램: 인근 소아정신과,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아동발달센터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문제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심리검사, 인지치료, 미술치료, 약물치료, 뇌파치료, 학습치료, 사회성 치료 등 실시	- 아동발달에서의 애착의 중요성과 부모 역할 교육 - 아동과의 효과적인 대화방법 교육	- 산행(관악산) - 가족 뮤지컬 ‘햇님 달님’ 관람 1년 사업 종결파티
-------	---	---	--	--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정 복귀의 3주체인 아동, 원가정(부모 혹은 친인척), 종사자 모두를 프로그램의 대상, 즉 변화의 대상이자 주체로 설정하여 “아동 양육의 공동 책임을 수반하는 협력적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원가정의 부모와 종사자가 공동 양육자라는 인식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것, 산행을 함께 한 것 등이 매우 인상적이다. 둘째, 시간 압박이 큰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교육과 부모간담회를 연달아 실시한 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외식비를 지원한 것도 특징적이다. 셋째, 앞서 기술한 첫 번째 특징과 연결된 것으로 시설의 양육자(생활지도원)가 프로그램의 참여자 그리고 다른 참여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이다. 자료집(2007)에 기술된, “생활지도원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시설아동 부모의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다”의 표현을 통해, 종사자 참여 및 종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리하면, 2006년에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수는 16명으로 2005년 5명, 2004년 4명에 비해 3-4배 높은 복귀율을 보였다. 이 밖에 시설아동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증진, 시설 아동 부모와 기관의 생활지도원 간의 친밀감 증진 및 관계 개선, 아동 담당 생활지도원의 (사업 수행에서의) 책임감 증진(남의 일이 아닌 내가 해야 할 일로서 인식)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3. 실천경험에 기반한 종사자 제언



동명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과의 면접 결과를 원가족(부모 혹은 친인척)과 함께 하기, 종사자의 역할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 등으로 정리하였다.

1) 원가족(부모 혹은 친인척)과 함께 하기

(1) 원가족, 시설, 국가 모두, 서로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인식

‘오죽했으면’이라는 심정, ‘국가에 제공하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상호 간의 이러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는 서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신뢰에 기반한다.

① 시설(국가)이 원가정을 긍정적으로 인식

부모의 학대 등으로 아동을 분리한 경우 그 행동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부모가 처한 상황을 살펴 보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부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가족에게 시설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위로와 인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이었다.

부모들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어요. 미울 때도 있어요. 왜 애를 이렇게 해놔서. 애가왜 이래요. 이런. 장난 아니에요. 저희도 칼 들고 쫓아오겠다고 그래갖고 거의 한 삼일을 집에 안가고 대기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 아빠는 칼 들고 휘두르는 아빠거든요. 와갖고 자기 애 안 보고, 애가 안보고 싶다고 해서 저기 아버님 그냥 저희랑 얘기하셔요. 가둬놓고 안본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차 와갖고 우리 애 진짜 가두고 있나 와갖고(중략) 그 부모하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라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이 부모하고 그게 되면 아이는 자연히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 하나는 아이가 집에 명절 때 가고 그럴 때 뭐 하나라도 해서 싸줘요. 떡 많이 들어왔으면 떡 싸가. 귀찮아요. 안 들고 가요. 그래서 누가 너 먹으래? 너 네 아빠 드시라고. 그렇게 싸주기도 하고. 쪽지하나 써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얼마나 케어를 받고 싶겠어요. 어디에다 의지하겠어. 그리고 내 새끼는 저기 있고. 그리고 저기에서 TV나 이런데 보면 막 그냥 학대받고 구박받고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불안하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내고 나서 화가 나는데 내가 막 했다가는 우리 애한테 가서 잡을까?

② 원가족이 시설(국가)을 긍정적으로 인식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럴 때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를 하나의 자원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 인식을 통해, 부모가 국가나 시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부모는, 부모도 깨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좋고요. 교육해야 되는 거 다 맞고요. 하는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있고 옛날 어른들이 피죽을 먹여도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어디 고아원에다 버리냐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본인이 손가락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변해도 똑같더라고요.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라고 처음 스타트가 그거예요. 아버님, 잘 오셨어요. 여기. 애 잘 맡기셨어요. 잘 하셨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본인이 지금 그렇게 아무 일 못하고 애도 혜택 못 받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은 시설은

③ 원가정 복귀라는 본질에 충실하여, 국가에 대한 의심을 거둬

국가 지원과 관리(통제)를 동시에 받는 시설의 입장에서, 원가정 보호를 강조하는 국가를 보면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이 누구에게도 좋을 리 없음을 알기에, 원가정 복귀를 위한 시설의 노력을 국가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국가를 움직이려고 노력하였다. 즉, 국가의 의도를 의심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일까’를 고민하면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원가정 복귀를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혹자들은 시설에서 애들 안 내보내갖고 이 가족복귀, 원가족복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왜 저희한테. 시설들한테 박혀있었냐면 예전에 그런 오해들을 많이 했어요. 시설에서 애들을 주고 있어야 나라에서 돈 받아갖고 시설문 안 닫는다. 그래서 애들 주고 있으려고 한다. 그랬었어요. 원가족, 가족복귀를 안 시키는 이유가 그거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회적,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원가족을 나라에서 해서 가져가겠다고 한 이유가 전 아. 그거에 대한 연장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어쨌든.

항상 뭐가 들어 가냐면 자립에 대한 거를 내놓든, 부모 교육에 대한 거를 내놓든, 어떤 제안을 하든, 애들에 대한 뭐든지 낼 때 거기서 빠지지 않았던 거는, 기본은 애들 프로그램이지만 딱 두 개는 안 뺐었어요. 원 가족에 대한 거. 그리고 아동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원가정을 넣었고요. 아동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담치료를 넣었어요. 항상.

(2) 처음이 중요하다.

① 입소할 때 부모와 연락을 취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표현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아동이 분리되어 시설에 입소할 때, 아동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원가족을 만나 부모를 안심시키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올 때는 부모들이 센터를 통해서 저희는 들어왔었잖아요. 센터에서 이제 만나서 오고 아니면 거의 머물다 와서 부모를 못 보기도 하지만 저희는 꼭 반드시 부모는 저희한테 전화를 하거나 애 수속해야 된다고 애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다 하거든요. 연락을 해서 어머니 걱정하시고 애 잘 들어왔어요. 애 잘 키웠더라. 걱정하지 마시고요.

② 입소할 때부터 원가족 및 시설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원가족 및 시설 모두가 아동에 대한 공동 양육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작업은 입소 초기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서면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역할 명료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기대를 줄일 수 있으며 원가족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나라에서 이렇게 키우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데려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못 데려갈까 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데려가시라고.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고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아이가, 처음부터 해요. 원가정 복귀예요 아버님. 빨리 준비하셔갖고 데려가셔야지. 준비 빨리 하셔야죠. 어떻게 뭐 직업은 하세요? 일용직 못하신다고 그러면 아버님 몸부터 하시라고. 추스르시라고. 건강해야 애 데리고 가시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주민 센터, 살고 계신 주민 센터라든가 구청 찾아가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요즘에는 방법을 많이 알려줄 거라고. 이러면서 부모까지 같이 00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

2) 종사자의 역할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1) 종사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는 두 가지 측면의 인식전환을 이야기한다. 원가정 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보육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원가정 복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아동양육시설의 중요한 책무로 원가정 복귀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왜 부모교육이 필요해? 시설에서, 부모가 없는 애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가 인식인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애들이니까 거기 온 거 아니냐? 인식 전환을 먼저 시켜줘야 되는 게 그게 첫 번째였고. (중략)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랑 원가정에서 자립하는 게 맞거든요. 그 원가정에서 자립을 한다. 라고 하면 그 원가정이 탄탄해야 아이가 돌아가서 함께 자립 되잖아요.

② 종사자로서의 정체성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는 무엇을 하는 해야 하는가? 참여자는 보육사의 정체성을 사례관리사에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종사자의 책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자: 현장 잘못하면 우리 그 생활지원 선생님들이 매몰되는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가 비전문적으로 매몰되서 보육을 하려고 해요. 보육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항상 얘기하는 게 선생님은 이 한 집을 맡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팀장을 붙여줬거든요. 저희는 보육 팀장이예요. 00의집 보육팀장. 왜냐하면 보육사가 아니다 선생님은. 그거는 솔직히 뭐 00 가 와서 해도 되는 거고 우리 보육도우미 그거 서울시에다 신청해서 갔거든요? 진짜 관리 힘들어요. 그런데도 받아요. 왜냐 그분들이 기본적인 거 청소나 해주시는 이런 것들 하면 선생님들은 훨씬 더 할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선생님들 지금 보육사만 할 거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생활 직원들 있는데 너무 슬퍼지지 않냐. 사회복지에 대해서. 선생님 이 한 아이 하나에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이 아홉 명, 애네들 한명 한명의 사례관리, 스케줄을 짜주고 사례관리를 해주는 팀장이라고. 선생님의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홉 명인 거라고.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내 새끼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보면 정말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구분이 안 돼. 애들. 그러니까 잔소리만 나가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너무 밀착이 돼버리니까 그걸 좀 떼 줄 필요가 있어요. (중략) 본인이 거기에 매몰돼서 나는 뭐 애들만 보면 되는데 뭐. 재밌게 잘 살면 돼지. 아니 받은 만큼, 받은 건 둘째 치고 나 스스로를 전문가로 만들려면 종사자들 스스로가 내가 애를 그냥 맡아서 키운다가 아니라 사례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그 안에서 사례관리에는 원가정이 반드시 들어가요. (중략) 선생님들은 사회복지사 아니야, 생활지도원 아니야, 그 역할도 그게 그거지만 생활지도원의 역할이라면 그거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사례관리사예요 우리 다. 사례관리 해야 돼요. 생활지도원들이 사례관리사예요. 저희는 사례관리 하는 사람들이 슈퍼바이저인 거뿐이고

(2) 종사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는 종사자가 사례관리자로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시간(휴가) 및 교육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시간 및 교육 지원은 종사자의 힐링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서, 사례관리자로 새로 규정된 종사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 피드백으로 작용한다.

① 시간(휴가) 제공

연차를 다 쓸 수 있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어떻게 보면 1년에 본인 연차 7일 쓰는 거에 7일을 더 줄 수가 있고 그걸 더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저희가 그것만큼은 해줘요. 만약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늦게까지 했다. 라거나 애들 학교 다 보내고 관찮으면 본인이 원할 때 시간가능 할 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먼저 퇴근해라. 그리고 본인들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본인이 만약에 이런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서너 시간 밤늦게까지 했다, 그럼 그 시간대를 다음에 봐서 그때 애가 없을 시간이라고 하면 먼저 퇴근하게끔 시켜줘요.

②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교육 나가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배워라. 그 당시 있었던 선생님들은 다 각자 치료에 관련된 거 사회복지도 이제는 앞으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알아야 그들과 치료사나 상담사 일반인들과 사회복지사랑 상담사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다가 네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걸로. 그러니 알아야 된다. 어설프게 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현장에서 보려면 그게 그냥 애 개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애가 이러이러한 성향과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라는 걸 하려면 보는 눈 있어야 되니 공부를 해라라고 깨우쳐요. (중략) 근데 동명에 있을 때만큼은 본인의 역량을 올려주고, 그리고 저희는 3년 이상 보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시간을 빼줘요. 단, 이제 그 짝꿍 선생님이 그거를 조금 배려를, 배려인 거죠. 그 사람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근무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대신 본인이 학교 나가는 시간이 아닐 때는 선생님한테 먼저 다 맞춰주는 거? 그 조건 하나로 해가지고 공부들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 와서 석사한 사람, 박사한 사람 그러고도 다 풀어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야 뭐 어느 기관은 안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생활 시설에서 생활 지도원으로 아이들을 직접 보는 그런 거를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종사자를 대신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한 후, 종사자에게 실행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종사자의 역할 인식 및 사기진작,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된다.

③ 종사자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함

물론 프로포절 쓰고 저도 이제 하고 중심돼서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해야 되는 분들이예요. 같이 해야 돼요. 그때는 애들 다 재워놓고 밤11시에 내려와서 같이 아이디어 회의하고요. 이 당시에는. 이 당시만 해도 이것도, 이것도 판 데로 새는 거 같지만 연결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한 달 내내 그것만 했던 시절이에요.

3)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

10년 넘게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1) 프로그램 구조화, (2) 선제적 프로그램 운영, (3) 부모와 함께 함, (4) 원가정 복귀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시작함(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5) 팀 활동과 수퍼비전, (6) 연락할 사람이 없는 아동 보호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프로그램 구조화

프로그램이 구조화되었다는 것은 개입의 단위가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뜻한다.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경우, 종사자가 바뀌어도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종사자가 있어야만 원가정 복귀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종사자가 있어도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됨을 뜻한다.

애들에 대한 뭐든지(제안서) 낼 때 거기서 빠지지 않았던 거는 기본은 애들 프로그램이지만 딱 두 개는 안 뺐었어요. 원가족에 대한거.

(2) 선제적 프로그램 운영

‘선제적’에는 먼저 시작함이 담겨있다. 연구참여자는 다른 누가 먼저 하길 기다리지 않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시작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를 갖고 정부를 설득,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네. (법인 예산으로 프로그램 전담 인력 추가 채용) 자체 예산으로. 인력 없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린 하겠다. 그리고 뭐든지 정책이든 뭐든 내놓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해보니 인력이 이게 필요하고 현장이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해. 라는 거를 디밀어야 그분들도 아, 그렇구나. 그냥 막연하게 다 똑같잖아요. 어디든지, 우리 힘들어요, 인력 없어서 못해요, 이런 얘기들을 결국에 할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데이터를 드리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3) 부모와 함께 함

시설(종사자)은 모든 것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시설은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며, 특히 원가족이 있는 경우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곳이기에, 아동과 관련된 일은 무엇이든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는 저희가 안 해요, 부모하고 같이 해요, 어떻게 해요. 개 이번에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렸대요, 아버님, 저희도 가겠지만 몇 시에 시간 되세요? 거기서 만나요, 학교에서, 같이 가요.

지금 그룹홈에서도 다 각자들 하고 계실 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례회의, 지금 제가 아까 부모님 오셔야 될 거 같아. 선생님 옷 다 잘라놔어. 오세요. 이거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사례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시점에서는 그 엄마가 오셔야 될 거 같아. 해서 엄마가 와서 이걸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연락할게, 약속 잡아서 오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룹홈에서도 마찬가지로, 애가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전화도 드리고, 근데 전화 안 드리고 본인들이 다 책임지고 내 새끼인데 내가 맡았으니까 우리 새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라고 책임을 과도하게 다 지고 계셔서 그렇지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할 때, 부모의 역할에서 일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시설과 원가족이 아동을 함께 키우는데 서로의 양육방향이나 방식이 차이가 있다면 아동을 잘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저희 오실 때 오시기전에 이틀 전에만 전화 달라고. 그럼 저희가 애 스케줄 이제 바빠질 거예요. 학원가야지, 배워야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보고 우리는 스케줄 관리 해줘야 되니까 미리만 연락주시면 되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오세요, 와서 한번 만나.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원 가족 프로그램 들어갈 때 어떻게 먼저 접근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일단 이것도 프로그램일 수 있죠. 프로그램으로 해서 과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항상 하거든요? 아이한테 쓸데없는 약속하지 마라, 지키

지 못할 거면 하지마라, 너 내가 조만간에 데려갈게, 너 말 잘 듣고 있으면 데려갈게, 이 단어 절대 쓰지 마라.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썩기를 박거든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줘라. 아이는 기다린다. 오늘, 내일, 그러다 나중에는 화가 되고 나중에 미움이 돼버린다. 미움 받고 싶지 않으면 그 단어 절대 쓰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게 페이퍼 동의도 받고, 아버님 그때 싸인 하셨잖아. 그때, 왜 싸인 하셔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자꾸 약속 어기세요, 100% 약속 어기요. 울면서 말 잘 듣고 있어 조만간 갈게, 며칠 있다 갈게, 그렇게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지를 시켜줘야지. 심정은 아니까. 심정을 아니까. 근데 애는 기다리는데.

(4) 원가정 복귀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시작함(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원가정 복구를 위한 노력은 당연한 업무이며 무엇이든 당연히 해야할 업무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그 당연한 업무는 거창하지 않다. 거창하면 시작이 어렵다. 정기적으로 아동 사진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은 그게 있어요, 아닌 듯, 아닌 듯, 하지만 하는 거? 정해놔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있고 친한 후원자와 관심 있는 후원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업무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무심한 척, 한 달에 한두 번 문자 하나나 카카오톡 하나 보내면서 애 사진, 놀고 있는 사진을 보내줘라.

정말 알게 모르게 스며들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 이게 최고 방법이지요. 스며들게 해주는 거? 근데 그들에게 부모님들에게는 스며들어가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인거죠. 계획 같지 않은 계획,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5) 팀 활동과 슈퍼비전

① 팀 활동

원가정 복귀는 쉽지 않은 일이다. 원가정 복귀는 담당자 1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팀으로 해야 한다.

(시설에 입소하면) 이제 우리 아이가 중심이 돼서 사례관리가 펼쳐나가야죠. 사례관리를 해줘야죠. 이 아이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어떤 걸 연결해줄지, 이 아이 중심으로 이 아이의 꿈에 맞춰서 학원을 어떤 걸 해줄 건지 이 아이가 가족이 있으니 가족복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걸로 할 건지 이 아이가 여기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원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어떤 세팅을 해줄 것인

지 이런 게 사례관리인데 사례 관리 갖고 뭐 부모 뭐가 됐고, 중심이 사례관리사 대상이 우리 아이들. (중략) 근데 이것을 뭐 국장, 원장, 무슨 생활복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례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거는 생활지도원이예요. 서브가 나머지 스테프인지지. 저는 사무국 직원들을 스테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서포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서포트다. 서포트 하는 거다. 선생님 필요하면 얘기 해.

② 슈퍼비전

또한, 종사자가 맡은 원가정 복귀 업무를 지치지 않고 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비전 체계가 함께 가야 한다.

그 선생님들이 오하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 아빠가 그 난리를 치면서 전화를 했는데 어떡해요? 어떡하죠? 이럴 때는 애가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자꾸 옆에 있는 애들한테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죠? 선생님들은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슈퍼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해주면 될 거 같아. 그 부모한테 그러려면 선생님 전화 차단시켜놓고 나한테 그냥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나한테 넘겨. 부모는 그냥 내가 다 할게. 이런 식으로만 하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그래서 가족 치료를, 가족을 한번 봐야겠다. 이제는 아동 쪽에 이거는 정말 우리 애들 필요해서 했던 건데 좀 더 구체화를 시키려면 그쪽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유아교육하고 사회복지 한 다음에 이제 가족까지 됐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게 뭐냐면 어떤 이러한 것도 다 중요하고 이론적 배경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아이들과 직접 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본인들 마인드와 퀄리티를 어떻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느냐가 내 역할이구나. 라는 게 역할로 본다면 그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부모에 대한 그런 관리는 선생님들이 부모 상담일지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다 써서 내게 하거든요? 그럼 부모 상담일지를 쓰려면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전화 한번 드리고 무슨 일 있을 때 잘 지내니까 염려 마세요. 이런 거 해서 소통을 계속 하게 하고 대신 어떤 문제가 터졌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기어나 이런 원 가족 복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제어해야 될 때는 제가 담당으로 하거든요.

(6) 연락할 사람이 없는 아동 보호

연구참여자도 연락할 원가족이 없는 아동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찾아오는 부모와 아동을 몰래 만나게도 하고 종사자가 부모를 대신 만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동 내에서도 편이 갈라지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족이 없거나 연락할 상황이 안되는 아동을 위한 별도의 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혹은 “각자의 상황에서 출발하기”로 볼

수 있다. 즉, 원가족이 있는 아동을 없는 아동에게 맞추거나 하지 않고 각각을 위한 활동을 찾는 것이다.

집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동원하는데 간혹, 부모가 있는 아이들 중에 한두 명, 애착이 엄청 크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맡긴, 그런 케이스의 부모는 자꾸 명절 때 데려가려고 하고 근데 그게 좋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지. 아버님 죄송한데 애만 그렇게 하시면 애들이 이롭니다. 애들 전체적으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애가 따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님 그냥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조용히 오셔가지고 선물이나 이런 거 전해줄 거 있으면 저희한테 살짝 전해주시면 저희가 할게요. 근데 그거는 몇날며칠 자고 이러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중략) 그리고 거기서 또 나뉘지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애들 중에서도 활발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잊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자꾸 이게 되니까 선생님들도 중간 중간 힘들고 어떡하지?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뭔가 조금 다른 걸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되나? 대신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애들도. 언제까지 개 미워하고 나는 없는데 너는 있어, 왕따 시키고 이거는 아니니까 애들한테는 00 잠깐 갔다 오는 거야. 너희는 여기가 집이잖아. 너네는 선생님들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그냥 애들 원하는 대로 집에 있는 애들한테 왕창 쏟아주려고 (중략) 그럼 애들이 잘 갔다 와. 하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를 어떤 이거 원 가정에 대한 거만큼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원 가정 없는 이 아이들에게는 덩달아 이걸 해줄 거야. 라는 거를 두톤으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되요. 투 트랙, 투 트랙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어느 한쪽도 상처 안 받고 갈 수 있는 그래야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론이 결국 우리 애들 집에 갈 애들 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면서 했고요.

4. 소결



아동양육시설인 동명아동복지센터 프로그램의 시사점은 앞서 프로그램의 특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가족(부모 혹은 친인척), 종사자, 국가 모두를 “공동 양육자”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아동 1명을 잘 키우기 위해 원가족, 시설(종사자), 국가가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한 점, 그리고 이를 관리할 사례관리자로서 종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한 점 등이 두드러진다. 시설의 모든 활동을 서류로 증빙하고 시설 종사자 모두가 한 팀으로 움직인 점, 수퍼비전 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안정화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매우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원가정 복귀를 시설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여기고 천 리 길도 한 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원가정 복귀를 향한 긴 여정을 묵묵히 만들어간 것도 눈에 띈다.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

VI

결론 및 제언

제6장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관련 문헌고찰, 설문조사, 종사자 FGI, 아동 개별 면접, 사례연구 등을 통해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우선,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룹홈은 원가정 관련 복귀 지원에서 아동과 원가족과의 접촉(연락)을 유지하는 것, 복귀 후 필요한 것을 아동에게 교육하는 것,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뤄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평균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향후 원가정 복귀 지원과 관련하여 더 필요한 것은 사후관리, 아동보호 관련 다양한 기관, 관련 공무원과의 협력,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FGI와 원가정 복귀 경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개별면접으로부터 도출된 내용은 원가정 복귀를 촉발하는 요인, 원가정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원가정 복귀 지원과 관련된 그룹홈의 역할은 원가정 복귀를 촉발하는 요인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사례연구 3곳의 경험과 연결하여 정리하였다.

〈표6-1〉 원가정 복귀를 촉발하는 요인

아동	원가족(부모 등)	그룹홈
- 탈출과 자유를 원함, 집단생활의 어려움 - 부모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 그냥 부모랑 같이 살고 싶음(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 - 원가족이 인식하는 아동측 분리요인 감소(예: 아동의 긍정적 변화)	- 자녀와 함께 사는 게 어려움으로 도움(실익)이 됨 - 분리 요인의 감소(해소)(부모의 준비)* - 그룹홈에 대한 신뢰*	- 재결합에 대한 종사자 의지, 확신* - 재결합을 위한 종사자의 노력* (아동에 대한 개입(아동을 준비시킴), 양육방식 안내/소통과 관계 유지 등과 같이 원가족에 대한 케어 제공) - 가족과 협력(예: 정보 공유)* - 아동과의 관계(갈등)(예: 아동과 잘 지내지 못함) - 부모의 막무가내 요구에 굴한 지자체의 선택, 퇴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아동 – 원가족의 지속적 교류*		

* 표는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에 필수적인 요인

〈표6-2〉 원가정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

아동	원가족(부모 등)	그룹홈
- 원가족이 인식하는 아동 측 분리 요인(예: 아동의 행동, 정서문제)의 지속 -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에 대한 실망) - 미래에 대한 불안,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	부모 측 분리 요인의 지속	- 업무 환경(예: 여력이 없음) - 재결합에 대한 의지, 확신 부족 - 어찌할 바를 모르겠음(예: 부모나 가족관계에 대한 원조 어려움, 예산 부족) - 원가족이 없는 무연고 아동이 마음에 걸림 - 부모에 대한 불신 - 원가정 복귀 후 아동지원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 아동의 안전이 걱정됨

이상의 원가정 복귀 촉발 및 저해요인의 작용으로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며, 원가정 복귀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로 돌아가기도 한다. 원가정 복귀 자체를 두고 성공,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추가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3개 시설(그룹홈 2곳, 아동양육시설 1곳)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한 성공의 조건, 성공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변화 및 변화의 확산은 발견된 예외와 성공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사례연구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3개 시설은,

첫째, 그룹홈의 역할을 재정적하였다. 그룹홈을 ‘부모 대신 아이들을 키워주는 곳이 아닌, 상처받은 아동과 가족을 회복시키고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준비시키고 돌보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그룹홈의 역할을 재정적이고 이에 맞춰 그룹홈 업무를 조정하였다. 원래 했던 일 가운데 원가족 관계 회복과 관련된 일, 예를 들어 부모 연락 업무는 ‘더 자주’, ‘일상적으로’ 계획이 아닌 ‘뚝’ 수행하였고 원래 했던 캠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원가족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계획하였다. 가능하다면 가정방문도 하였다. 가정방문을 원가정의 양육 환경을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업무 부담이 매우 큰 것 또한 사실이다.

둘째, 부모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였다. ‘부모의 자리를 그룹홈이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족을 최대한 존중하였다. 부모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니, 부모가 달리 보였다. 부모 또한 자신을 비난·심판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그룹홈 종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룹홈 운영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부모의 강점을 중시하면서, 그룹홈 종사자의 역할을 지지자, 자원 연계자로 설정하였다. 최대한 대등한 관계에서 부모와 관계 맺음을 시도하였다. ‘아동을 맡긴 사람 - 아동을 대신 키워주는 사람(돌보는 사람)’이 아닌 아동을 ‘함께’ 키우는 동반자로 부모를 인식하였다.

셋째, 원가정 복귀를 위한 세심한 계획을 부모와 함께 수립하였다. 원가정 복귀 이전에 원가족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경험상 1년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했다. 원가족 관계 회복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한 계획을 부모 스스로가 해보도록 요청했다. 부모는 양육계획서를 실제로 작성하면서, 그룹홈과 협의하여 양육계획서 상의 계획을 실행하면서 시간을 갖고 원가정 복귀를 준비하였다.

넷째, 그룹홈 종사자가 한마음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 그룹홈 종사자의 역할을 원가정 복귀를 위해,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과 협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였다. 보육사가 아닌 원가족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직무 만족도로 이어져 이직률이 낮아졌다.

다섯째,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부모의 양육 의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주변의 실질적인 지지자원을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기존 지지 자원이 없을 때, 지역사회 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계하였다. 때로는 멘토/대안가족을 직접 만들어 지속적인 지지체계를 새롭게 형성하기도 했다.

여섯째, 교육 및 수퍼비전 체계를 마련하였다. 원가족 복귀나 원가족과 관계 회복이 늘 순조롭지만은 않다. 지치고 힘들 때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즉 수퍼비전이 꼭 필요하다. 돌아갈 집이 없는 아동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막무가내로 아동을 데려가겠다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에 다녀온 후 그룹홈 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하는 아동의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일상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종사자 개인의 역량과 경험에만 맡기지 않았다. 다양한 교육과 수퍼비전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일곱째, 그룹홈에서 원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동을 잘 키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부모가 없는 경우, 부모가 있는데 돌아갈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있어도 때로는 지우고 싶은 경우 등의 다양한 원가정의 맥락을 무시한 채, 진공상태에서 아동을 잘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복귀, 관계 정리 등을 아동 중심에서 실천하였다.

여덟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집으로 돌아간 후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였다.

사례연구, 종사자 FGI, 아동 개별면접, 실태조사, 문헌고찰 등을 종합하여,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그룹홈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관계 회복, 원가정 복귀를 아동에 대한 업무와 별개로 여기지 않고 아동초점의, 가족중심의, 지역사회 기반의 실천(Child focused, Family centered, Community based Practice)을 수행한다. 가족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이 아동을 잘 키우는 것임을 인식한다. 원가족 관계 회복, 원가정 복귀를 향한 의구심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만 유효하다.

둘째, 실천의 변화는 관점과 태도의 변화에서 가능하다. 가족을 아동보호 및 양육의 실패자로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룹홈이 원가족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동의 안전을 견지하면서 원가정의 강점을 발견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위해 교육과 슈퍼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소한 관점과 태도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실천에 반영되지 않는다.

넷째, 업무 여건이 변화하지 않은 채 실천의 변화,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종사자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종사자의 희생에 의지한 실천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업무 조정 등을 통한 업무 환경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상의 역할을 아동보호가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재정리하면 다음 <표6-3>과 같다.

<표6-3> 아동보호업무에서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 종사자의 역할

아동보호업무	그룹홈 종사자 역할
보호조치 의뢰된 아동에 대한 상담 · 조사 · 사정	- 그룹홈의 정체성 재정립: 아동을 부모 대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키운다는 관점 정립 - 원가정 복귀에 대한 관점 정립: 원가정 복귀 지원은 매우 어려운 일임.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인식 전환 필요. 지나친 낙관주의 혹은 비관주의를 경계함. - 그룹홈의 정체성에 따라 업무 조정(원가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조정 필요) -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슈퍼비전: 가족중심실천에 대한 교육 및 슈퍼비전 지원 필요 - 증거기반실천을 내재화함: 실무 경험에 덧붙여, 원가정 복귀 지원과 관련된 유의미한 증거들을 수용하는 태도 필요
보호조치 계획 수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보호조치 계획 수립에 관여할 수 있음
보호조치결정후 보호관리계획수립	그룹홈에 배치될 아동에 대한 보호관리계획 수립에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력
보호서비스 제공	- 보호관리계획에 따라, 아동에 대한 양육, 자립, 원가정 복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 보호관리계획에 따라, 아동의 원가정에 대한 직간접 지원서비스 제공
양육상황점검	- 아동양육상황에 대한 점검을 받음 - 보호관리계획에 따라 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입증함. - 아동별 보호관리계획에서 원가정 지원과 관련된 그룹홈의 역할이 있었을 경우, 그룹홈의 역할 이행 정도 점검 받음
보호 종결	‘원가정 복귀 의견서’에 아동 및 원가정에 대한 근거 있는 의견을 제출함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제공할 기관(예, 읍면동 맞춤형 복지담당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

한편, 이러한 그룹홈의 역할은 그룹홈만의 역할이 절대 아니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에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룹홈은 없다. 또한, 그룹홈 종사자의 개인적 인식 변화만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원가정 복귀가 안되는(어려운) 현 상황은 그룹홈 종사자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룹홈이 원가정지원에 대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 및 제도의 역할도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과 슈퍼비전의 경우도 그룹홈 외부에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 슈퍼비전은 시설장 외 보육사 2명의 상황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별도의 외부교육 및 슈퍼비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종사자 교육 동안에 발생할 업무 공백을 지원할 추가 인력 및 원가정 복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이 잘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할 수 있는 토양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룹홈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일은 아동을 차별적인 상황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을 그룹홈의 역할로 강조한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그룹홈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룹홈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세원 · 김지혜 · 김경희(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결정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3), 33-68.
- 동명아동복지센터(2004). 해체(위기)가정의 결속력 강화연구 II. 동명아동복지센터.
- 동명아동복지센터(2007). 아동복지생활시설과 입소아동부모의 NETWORK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2006년 삼성복지재단 작은 나눔 큰 사랑 지원사업. 동명아동복지센터.
- 보건복지부(2018).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 아동자립지원단(2019). 「2019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 송이은 · 광태희(2019).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원가족 복귀 지원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신혜령 · 김형태 · 김명희 · 진선미 · 박윤미(2011). 공동생활가정 운영 매뉴얼 개발.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신혜령 · 정솔(2011). 보호아동의 원가족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유서구 · 이순기 · 정해린(2019). 가족재결합서비스 효과성 평가. 굿네이버스.
- 유서구 · 정해린(2019).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재결합을 돕는 평가도구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굿네이버스.
- 이용교 외(2014). 아동보호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 정은주(2011). 가족중심실천에 관한 중요성 인식과 현재실천의 차이 연구: IPA기법 활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6(2), 67-93.
- 정익중(2018).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연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 세미나 자료집.
- 황성철(2009).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공동체.
- 황옥경 외(2015). 아동·청소년 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2015). Reunification: An Evidence- Informed Framework for Return Home Practice.
- Wilkins, M and Farmer, E.(2015). Reunification: An Evidence- Informed Framework for Return Home Practice. NSPCC.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

부록

양적연구 설문지

원가정 복귀 지원 관련 의견조사 A (그룹홈 운영자(시설장)용)

안녕하세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입니다.

먼저 귀 그룹홈의 무궁한 발전과 운영자, 종사자, 그리고 아동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진행하는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 수집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노력에서

그룹홈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개인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보장되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그룹홈 운영자(시설장)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마감일은 1월 23일(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윤수민(사무국 담당자) 02-364-1611/1617
- 책임 연구자: 정선옥 교수(덕성여자대학교)
- 공동 연구자: 김진숙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최경옥 박사(청운대학교)

2020년 1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Korea Council of Group home for Children & Youth

※ 그룹홈 일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V)해주세요.

A1. 귀 그룹홈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 ② 학대피해아동 쉼터 ③ 영유아 ④ 기타

A1-1. 귀 그룹홈의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 ① 개인
② 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등)
③ 비영리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⑤ 기타

A2. 귀 그룹홈의 소재지는 어느 지역에 속해 있습니까?

- ① 대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지역

A3. 귀 그룹홈의 주거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다가구주택 ③ 아파트
④ 빌라 ⑤ 주상복합건물 ⑥ 기타 _____

A4. 귀 그룹홈 건물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운영자 개인 소유 ② 법인 또는 단체 소유 ③ 전세
④ 월세⑤ 무상대여 ⑥ 공공임대주택
⑦ 기타 _____

A5. 귀 그룹홈은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설립

A6. 귀 그룹홈은 현재,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A7. 귀 그룹홈의 종사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운영자(시설장) 제외) (201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 아래 질문에서 “연락”은 전화, 방문, 편지,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접촉을 뜻합니다.

B1. 우리 그룹홈에 사는 아동청소년은 총 ()명이다(2019년 12월 31일 현재)

B2. 이 중에서 2019년 12월 31일 현재, 연락가능한(실제 연락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총 ()명이다.

B3. 이 중에서 2019년 12월 31일 현재, 부모 혹은 친인척과 실제 연락하고 있는(연락 횟수나 방법에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은 총 ()명이다.

B4. 연락 가능한 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는(혹은 연락을 못하는) 이유들입니다. 귀 그룹홈에서는 각 이 유별로 어느정도 해당되시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아동이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② 연락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③ 부모 혹은 친인척이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④ 부모 혹은 친인척과의 연락이 중간에 끊겨서					
⑤ 연락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예, 교통비, 선물비, 교제비 등)					
⑥ 부모 혹은 친인척의 상황이 아직 연락할만 하지 않아서(예, 부모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주거가 불안정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아동 양육 태도의 문제 등)					
⑦ 연락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기관)(예, 그룹홈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없어서					
⑧ 기타(기재: _____)					

B5. 귀 그룹홈 아동이 실제 부모 혹은 친인척과 연락하는 경우, 부모 혹은 친인척과의 연락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각 항목을 읽고 해당되는 것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아동이 원해서					
② 연락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③ 부모 혹은 친인척이 원해서					
④ 연락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예, 교통비, 선물비, 교제비 등)이 가능해서					
⑤ 부모 혹은 친인척의 상황이 개선되어서(예, 부모의 취업, 안정된 주거, 부모의 건강 회복, 아동 양육에 대한 태도 변화 등)					
⑥ 연락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기관)(예, 그룹홈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있어서					
⑦ 원가정과의 연락을 지원하는 것은 그룹홈 종사자의 당연한 의무라서					
⑧ 기타(기재:)					

※ 원가정 복귀(만 18세 이전에 복귀한 경우만 해당)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C1. 그룹홈을 운영한 이래,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2. 그룹홈 운영자로서,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문항을 읽고 답하세요.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아동 입소 이후, 원가정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원가정과 연락이 안된다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가 어렵다					
아동 관리가 힘들어 원가정으로 보내고 싶는데 원가정이 거부한다					

원가정 복귀 준비가 안됐는데, 부모(혹은 친인척)가 아동을 무리하게 데려 가려고 한다					
아직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지 않은데, 아동이 원하고 부모(혹은 친인척)가 동조한다					
원가정 복귀 후, 아동이 힘들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는다					
원가정 복귀 후, 아동이 잘 지낼지 걱정된다					
원가정 복귀 후, 아동이 어떻게 지내는지 사후관리가 안된다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아동, 부모(혹은 친인척), 그룹홈,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생각(입장)이 서로 다르다					
원가정 복귀는 그룹홈의 업무가 아닌데, 계속 요구받는 상황이 불편하다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그룹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원가정 복귀가 아동에게 좋은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룹홈에는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할 여력(예산, 인력 등)이 없다.					
원가정 복귀 과정에서 도움받거나 수퍼비전 받을 곳이 없다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예,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드림스타트 등)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호대상아동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가정 복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 및 지원이 부족하다.					
기타(기재:)					

C3. 보호대상아동의 그룹홈 입소 및 퇴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은 어떠합니까?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보호대상아동 입소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보호대상아동 퇴소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C3-1.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어떤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셨습니까?
혹은 어떤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셨습니까?

C4.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몇 번 바뀌었습니까?
() 번

C5. 보호대상아동의 그룹홈 입소 및 퇴소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은 어떠합니까?

보호대상아동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보호대상아동 입소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보호대상아동 퇴소에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C5-1.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어떤 이유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셨습니까?
혹은 어떤 이유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셨습니까?

C6.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C7. 원가정보호 원칙과 관련된 아동복지법 4조 3항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법 4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C8.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고려해야 할 각 사항들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고려할 사항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① 아동의 바램(욕구, 아동 이익)					
② 아동의 안전					
③ 분리 이유(부모의 실직, 빈곤, 이혼, 질병, 장애, 아동학대, 베이비박스에 유기 등)에 따른 차별화된 복귀 지원					
④ 분리 이후, 아동과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 간의 지속적인 연락					
⑤ 그룹홈 운영자(종사자)와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 간의 협력적 관계					
⑥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양육 태도(의지) 및 양육 행동 변화					
⑦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경제 상황					
⑧ 복귀 후 양육환경(주거, 위생 등)					
⑨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⑩ 아동과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 간의 애착관계					
⑪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강점(변화 가능성)					
⑫ 원가정 복귀 후 사후 관리					
⑬ 원가정 복귀 관련 그룹홈의 역할 및 권한 명료화					
⑭ 원가정 복귀 관련 그룹홈의 전문성 강화					
⑮ 원가정 복귀 관련 그룹홈에 대한 추가 지원(예산, 인력 등)					
⑯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예, 담당 공무원, 드림스타트 등)와의 협력					
⑰ 보호대상아동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⑱ 기타(기재:)					

C9. 귀 그룹홈은 원가정 복귀를 위해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정 복귀를 위한 그룹홈의 노력	① 전혀 하지 못한다	② 하지 못한다	③ 보통 이다	④ 하고 있다	⑤ 매우 많이 하고 있다
① 지속적인 연락을 주선(예, 주말/방학/명절 때 방문)한다					
② 연락에 필요한 예산(예, 교통비)을 지원한다.					
③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어준다.					
④ 원가정 복귀 후 필요한 기술(방 정리정돈, 설거지, 부모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아동에게 가르친다.					
⑤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어려움을 듣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⑥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혹은 연계한다.					
⑦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예, 그룹홈 내 활동, 학교 활동 등)를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예, 카톡, 문자 등의 SNS 활용)					
⑧ 원가정 복귀를 위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특정 목표에 따라 여러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도 하는 경우)을 실시한다.					
⑨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활동에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을 참여시킨다.					
⑩ 원가정 복귀 이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⑪ 원가정 복귀를 위해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예, 담당 공무원, 드림스타트 등)와 협력한다.					
⑫ 원가정 복귀를 위해 보호대상아동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협력한다.					
⑬ 기타(기재:)					

C10. 귀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족개입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V)하세요.

문항	① 매우 미숙하다	② 미숙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능숙 하다	⑤ 매우 능숙하다
원가정 복귀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					
원가정 찾기(예, 연락두절 부모 찾기 등)에 필요한 기술					
원가정 방문 혹은 전화, 편지 등 지속적인 관계(접촉) 유지에 필요한 기술					
원가정 가족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평가에 필요한 기술					
원가정 대상 부모교육, 부모·가족 상담에 필요한 기술					
원가정 기능강화를 위한 가족 지원, 지역사회 연계에 필요한 기술					
원가정 기능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에 필요한 기술					
아동과 원가정과의 관계 진단 및 관계 개선(예: 갈등 해결 등)에 필요한 기술					
아동에 대한 원가정의 관심과 참여 유도에 필요한 기술					
원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사정에 필요한 기술					
아동의 원가정 복귀 준비에 필요한 기술(예: 원가정 방문 등)					
기타 응답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개입기술()					

C11. “대체적으로 아동의 원가정들은(의) ~~하다”의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V)하세요.

대체적으로 아동의 원가정들은(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편이다					
행동에 믿음이 간다					
개입과정 동안 약속한 것에 대해서 만큼은 그대로 이행하는 편이다					
개입과정에서 나를 믿고 잘 따르는 편이다					

C12-1. 다음은 원가정 실천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세요.

현재 실천(현재 실천하고 있는 정도)	① 전혀 실천 하고 있지 않다	② 실천하고 있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실천하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실천하고 있다
나는 아동 원가정의 문화, 가치, 신념을 존중한다					
나는 원가정과 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 정직, 존중,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원가정과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					
나는 원가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원가정의 관심사를 공유하려고 한다					
나는 원가정의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원가정이 가능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는 원가정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과정, 그리고 아동 관련 프로그램 활동에 원가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나는 아동의 원가정과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원가정이 자신들의 아동이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관계할 때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나는 아동의 원가정 구성원이 부모 혹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 기회, 자원 등을 제공한다.					
나는 원가정이 아동 양육 및 기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이용가능한 서비스 정보들을 최대한 제공한다					
나는 원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나는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활동에 원가정을 참여시킨다					
나는 원가정의 신념과 원가정 문화를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원가정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지지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원가정마다 원하는 서비스가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최대한 원가정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나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원가정의 욕구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나는 좀 더 많은 원가정과 폭넓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나의 역할을 잘 조절한다					

C12-2. 이번에는 앞선 실천도 문항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중요성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중요성 인식(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 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아동 원가정의 문화, 가치, 신념을 존중하는 것					
원가정과 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 정직, 존중,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원가정과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					
원가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원가정의 관심사를 공유하려고 하는 것					
원가정의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원가정이 가능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원가정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과정, 그리고 아동 관련 프로그램 활동에 원가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것					
아동의 원가정과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원가정이 자신들의 아동이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관계할 때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					
아동의 원가정 구성원이 부모 혹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 기회, 자원 등을 제공하는 것					
원가정이 아동 양육 및 기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이용가능한 서비스 정보들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					
원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 하는 것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활동에 원가정을 참여시키는 것					
원가정의 신념과 원가정 문화를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원가정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지지들을 제공하는 것					
원가정마다 원하는 서비스가 다양함을 잘 아는 것					
원가정이 원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원가정의 욕구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좀 더 많은 원가정과 폭넓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나의 역할을 잘 조절하는 것					

C13. 귀하는 그룹홈의 주요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양육능력이 없거나 양육이 적절하지 않은 원가정 대신 아동을 양육한다
- ② 아동의 퇴소 후 자립지원을 준비하고 지원한다
- ③ 원가정과 함께 아동을 키운다
- ④ 원가정이 아동을 키울 준비가 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한다
- ⑤ 아동 원가정의 양육능력을 강화한다
- ⑥ 원가정 복귀를 지원한다

C14. 2019년 1년 동안,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총 _____회), (총 _____ 시간) (☞ C14-1번 문항으로)
- ② 없다 (☞ C15번 문항으로)

[범위 : 횟수 1~50, 시간 1~99]

C14-1.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은 어떠했습니까?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 교육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교육 내용					
교육 시간					
전반적 만족도					

C14-2. [C14-1에서 하나라도 1,2,3 응답자] 원가정 복귀 관련 외부교육에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C15. 그룹홈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교육을 한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16.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내용별로 그룹홈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정 복귀를 위한 그룹홈의 역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지속적인 연락을 주선(예, 주말/방학/명절 때 방문)한다					
② 연락에 필요한 예산(예, 교통비)을 지원한다.					
③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어준다.					
④ 원가정 복귀 후 필요한 기술(방 정리정돈, 설거지, 부모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아동에게 가르친다.					
⑤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의 어려움을 듣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⑥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혹은 연계한다.					
⑦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예, 그룹홈 내 활동, 학교 활동 등)를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예, 카톡, 문자 등의 SNS 활용).					
⑧ 원가정 복귀를 위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특정 목표에 따라 여러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도 하는 경우)을 실시한다.					
⑨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활동에 원가정 부모(혹은 친인척)을 참여시킨다.					
⑩ 원가정 복귀 이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⑪ 원가정 복귀를 위해 보호대상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예, 담당 공무원, 드림스타트 등)와 협력한다.					
⑫ 원가정 복귀를 위해 보호대상아동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협력한다.					
⑬ 기타(기재: _____)					

C17. 위에 제시된 역할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운영자(시설장)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DQ1. 성별 ① 남 ② 여

DQ2. 연령 만 _____ 세

DQ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 석사 ④ 박사 이상

DQ4. 결혼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DQ5. 자격증(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

① 사회복지사 1급 ② 사회복지사 2급 ③ 교사 ④ 보육교사 ⑤ 청소년 상담사 ⑥ 기타

DQ6. 종교 ① 가톨릭 ② 개신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기타 ⑥ 종교 없음

DQ7. 사회복지분야 근무년수(현직 포함)(2019년 12월 31일 기준) ____ 년 ____개월

DQ8. 현 그룹홈 근무년수(2019년 12월 31일 기준) ____ 년 ____개월

DQ9. 그룹홈 근무 만족도 ① 매우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만족

마지막으로, 응답자 답례품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답자 사례품 발송(모바일 상품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설문종료 후 사례품 발송 완료 시점까지

답례품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예’ 응답자]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주시오 이 름(필수): _____

휴대전화(필수): _____

장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원가정 복귀를 위한
그룹홈의 역할을 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잘 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진 일동 드림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Korea Council of Group home for Children & Youth

서울시 중구 을지로18길 5(을지로4가 315-1)무광빌딩 6층
Tel. 02-364-1611, 1617 Fax. 02-364-1613

grouphome2008@hanmail.net www.grouphome.kr



ISBN 978-89-965996-9-2